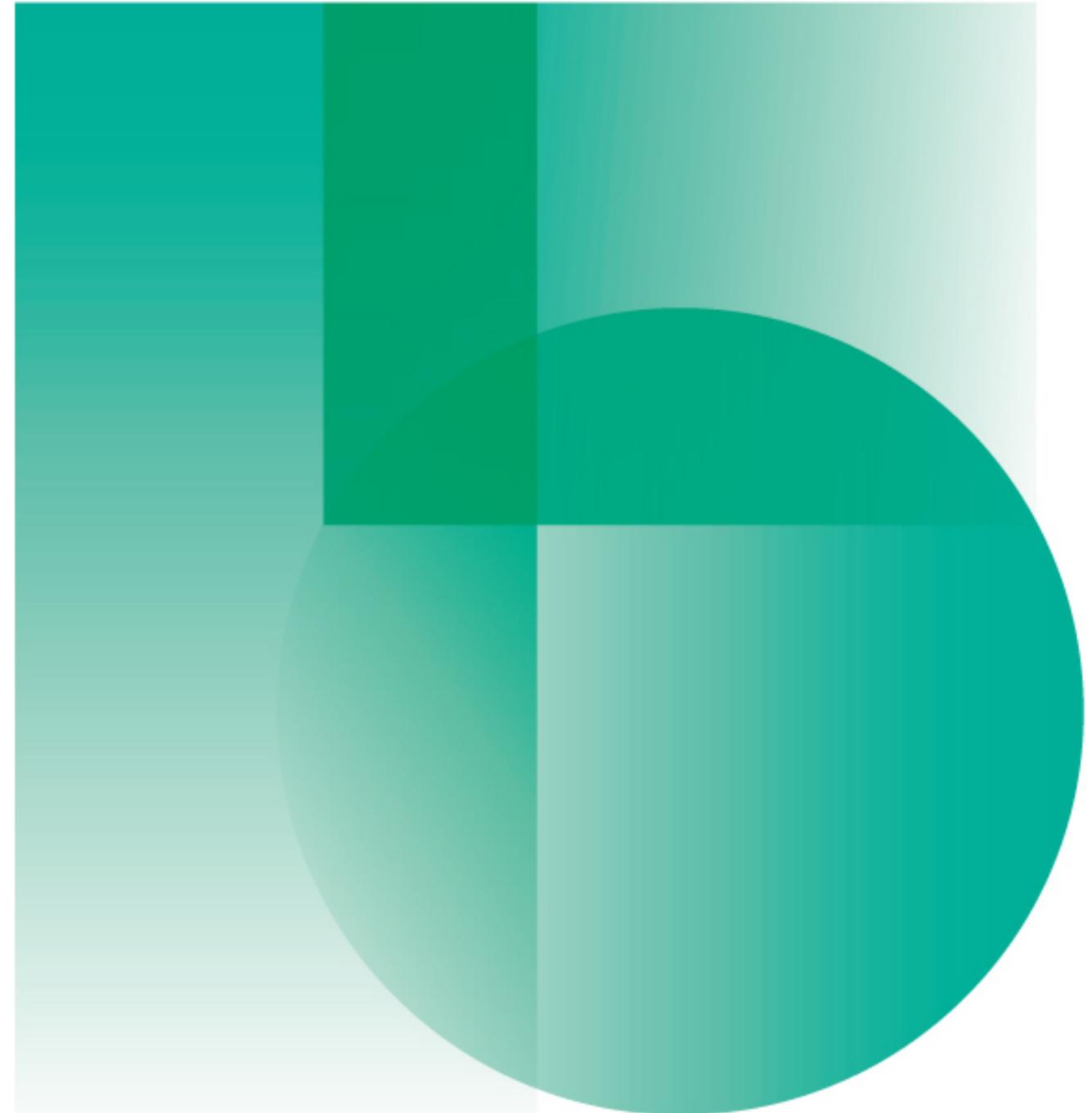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연구

STUDY ON CULTURAL PRACTICE STRATEGIES
FOR THE 15-MINUTE CITY OF BUSAN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연구

STUDY ON CULTURAL PRACTICE STRATEGIES
FOR THE 15-MINUTE CITY OF BUSAN

(재)부산문화재단 2023-014

2023년 12월

Contents

목 차

I. 들어가며	9
II. 15분 도시, 도시의 시간, 공간, 문화를 전유하기	13
III. 15분 문화 도시민의 주권과 공공성	34
IV. 15분 도시의 유사 정책 간 비교	63
V. 시간 중심 도시계획 사례 비교	84
VI.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98
VII. 나가며	110

표 목 차

[표 1]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연구 자문회의 참여 전문가 명단	11
[표 2] 서울시 생활권계획 구역 구분 및 주요 키워드	68
[표 3] 15분 도시 실행화 단계 주요 키워드	82
[표 4] 파리 15분 도시 주요 정책	86
[표 5] 부산광역시 15분 도시 계획 주요 내용	92
[표 6] 부산문화재단 15분 도시 추진 전략	95
[표 7] 부산문화재단 15분 도시 추진 전략 실천과제	96
[표 8]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개요	104

그림 목 차

[그림 1] 2차, 3차 표적집단면접조사	12	[그림 18] 농촌협약개념도	75
[그림 2] 캐나다의 노숙인을 위한 벤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어반 퍼니처	49	[그림 19] 어촌신활력사업 생활권 연계 방안	76
[그림 3] 프랑스의 노숙인 방지 벤치	49	[그림 20] 서울시 보행일상권 계획	77
[그림 4] 중국의 노숙인 방지 유희공간	49	[그림 21] 제주15분도시 생활권 설정	78
[그림 5] 함부르크 파크 픽션(Park Fiction) 운동의 사례	53	[그림 22] 청주시 15분생활권 내 탄력적인 운영계획(의료부분)	79
[그림 6] 지금은 사라진 함부르크의 프라판트 백화점	54	[그림 23] 파리 15분 도시 모델 지구	86
[그림 7] 프라판트 철거 반대 운동의 사례1과 사례2: 캐비어 비가 내린다	55	[그림 24] Maryse Hilsz학교의 참여적 건설현장	87
[그림 8] 네델란드 투자회사의 입점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인 갱에비어텔의 1800년대 건물	56	[그림 25] Quatre Fils 초등학교 참여적 건설 현장	87
[그림 9] 한체바스트의 구상 vs 예술가들의 구상	56	[그림 26] 몽마르트 관문 지구(quartier porte de Montmartre) 시민의 키오스크	87
[그림 10] 최선의 15분 도시 비전을 위한 기본 구도(안)	61	[그림 27] 녹화 허가 프로젝트 사례	88
[그림 11] 도시계획축면의 사회의 변화	65	[그림 28] 에든버러의 20분 네이버후드 모델	90
[그림 12] 부산지역의 도시쇠퇴 및 진단등급도	65	[그림 29] 따뜻하게 환영하기(A Warm Welcome) 참여 도서관 및 공간 지도	91
[그림 13] 도시·군기본계획수립 지침 중 생활권계획	69	[그림 30] 부산 62개 생활권 총괄도	93
[그림 14] 도시재생의 정의	70	[그림 31] 당감개금권역 [하하호호 맛실] 행사	94
[그림 15]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주요 키워드	71	[그림 32] 개포초등학교 하하호호 콘서트	94
[그림 16]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현황	72	[그림 33] 세대공감 비타민센터 전경	106
[그림 17] 인구감소지역 지원대상지	73	[그림 34] 학생 참여 지역 불편 지적 지도	106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연구

I.

들어가며

I. 들어가며

민선 8기 부산광역시의 핵심정책 ‘15분 도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도시계획 개념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끊임없는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도시의 현재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가운데 등장한 15분 도시를 많은 도시들이 추구하고 있지만, 그 방법론은 도시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15분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 또한 도시 고유의 지형과 여건에 맞는 추진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부산문화재단은 15분 도시 부산의 실천 전략에 부응하여 부산문화재단의 15분 도시 실천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15분 도시는 도시계획이나 마을재생 등의 특정 영역만의 노력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문화재단에서 실행 중인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15분 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들을 재구성하고 새로 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전략 연구가 필요했던 원인은 15분 도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기반하여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는 반성 때문이다. 15분 도시로 대변되는 시간중심 도시계획을 창시한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는 15분 도시를 도시계획 전략 중 하나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도시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5분 도시에서의 ‘15분’을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이때의 시간은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선형적 시간에서, ‘입체적이고 창조적인 기회의 시간’으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처럼 근본적인 15분 도시의 기본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15분 도시는 본질적 가치를 펼쳐보지도 못한 채 유행처럼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

이 연구는 시간 중심 도시 계획을 고찰해 보고 부산이 15분 도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인 관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15분 도시는 도시 전 영역에서 적용하려는 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야 성공할 수 있기에 문화예술이 기여할 수 있는 다각도의 전략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시작하며 고민했던 지점들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를 왜 하는가? (필요성) : 시간중심도시계획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많은 도시가 시간중심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도 민선 8기의 핵심공약으로 15분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의 도시계획이 공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이었다면 시간중심 도시계획은 시간적 차원에서 도시를 재구성하고 있다. 도시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바라보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사람 중심의 적절한 규모로 도시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도시를 인간적 규모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은 도시를 사람 중심의 적정규모로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15분 도시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적극적 개입과 문화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표는 무엇인가? : 이 연구는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 전략은 하나의 완결된 전략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택티컬 어버니즘(Tactical Urbanism)¹⁾ 처럼 작은 시도를 통해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 진행형 전략이다. 다양한 형태로 15분 도시를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반성과 평가가 필요하다. 즉 수행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도시 전환의 근본적 방향에 대한 고민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수립을 위해 견지해야 할 관점에 대해 강조하면서 향후 15분 도시에서 문화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는가? : 이 연구는 15분 도시의 지향점과 관련 배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도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가진 이들의 참여가 필요했다. 학자부터 도시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15분 도시를 검토할 전문가들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교육, 장애, 청년, 행정, 문화 등 부산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15분 도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청취하였다. 공동연구와 자문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성명	성별	소속	구분
1	강동훈	남	독립서점 크레타 대표	공간
2	김병수	남	미션잇 대표	기업
3	김아란	여	부산 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전문연구원	청년
4	김영민	남	로컬바이로컬 팀장	기업
5	박상화	남	푸드 트래블 대표	기업
6	서종우	남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보좌관	행정
7	송교성	남	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문화
8	심보라	여	심오한 연구소 대표	청년
9	우신구	남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학계
10	이수금	여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
11	이인미	여	책방 비온후 대표	공간
12	이지훈	남	필로아트랩 대표	문화
13	정유경	여	부산관광공사 선임매니저	관광
14	최영	남	부산진문화재단 사무처장	문화
15	현광희	남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장애
16	김동규	남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공동연구진
17	신지은	여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8	원향미	여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9	홍순연	여	로컬바이로컬 대표	

[표 1]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연구 자문회의 참여 전문가 명단(가나다순)

1) 택티컬 어버니즘은 어떤 도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저비용으로, 임시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도시의 모습을 실험적으로 바꿔봄으로써 새로운 해법들을 검증해보고 변화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도시재생 기법이다. 임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시드나, 게릴라 가드닝, 푸드트럭, 팝업스토어 등이 택티컬 어버니즘의 범주에 속한다. (출처: 구희상 외, 『택티컬 어버니즘 입문자를 위한 실천 지침서』, 제인지위크, 2019, 6쪽)



[그림 1] 2차, 3차 표적집단면접조사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15분 도시 부산 정책이 내포해야 할 관점과 태도들을 문화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진이 각 영역에서 바라보는 15분 도시에 대한 고찰을 독립적으로 서술하였고, 각각을 하나의 완결된 장으로 하여 보고서에 소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해보는 과정을 통해 15분 도시가 특정한 정답이 있는 개념이 아니라 각자의 최선을 통해 맞춰지는 퍼즐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에 필요한 다채로운 관점들이 자연스럽게 소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결론에 기반한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가 향후 어떻게 쓰이기를 기대하는가?: 이 연구는 15분 도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15분 도시 정책이 지녀야 할 문화적 관점과 15분 도시 실현 과정에 문화예술이 기여할 수 있는 실행 전략 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은 15분 도시는 시민의 도시권 회복이 우선적인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시민들의 열정적인 참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발전이 곧 나의 삶의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도시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15분 도시는 앞서 밝혔듯이 하나의 특정 영역에서만 회자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다. 도시 각각의 영역이 15분 도시를 깊이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15분 도시 부산을 실현하는데 있어 놓쳐서는 안 될 방향성과 태도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복지, 의료, 교육, 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산만의 15분 도시 레시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연구

II.

15분도시 : 도시의 시간, 공간, 문화를 전유하기

신지은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I. 15분 도시 : 도시의 시간, 공간, 문화를 전유하기

신지은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15분 도시

‘15분 도시’는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 그래서 더욱 여유롭고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이다. 이는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경제 위기, 사회 갈등 위기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도시 모델이다.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가 처음 이 개념을 정립했고, 이를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 시장이 2020년 재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 개념의 핵심은 ‘개발에서 삶의 질로’, ‘경제에서 문화로’ 도시 진화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데 있다.

파리시의 정책 추진은 매우 과감하다. 이미 결정되어 있던 대규모 건설계획도 백지화했고, 파리 전역에 숲 조성, 디지털 광고판 퇴출, 도심 주차 공간의 70% 이상 축소 등을 추진 중이다. 이것이 파리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낸 것은 딱 막힌 길에서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버려야 하는 현실 인식, 최근 이상 기후를 경험하면서 이미 늦었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이다. 이 계획은 여러 도시로 확산되었고 한국에도 소개되고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산의 15분 도시 계획은 파리의 15분 도시와 이름만 같을 뿐 꽤 많은 부분 다른 계획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모레노의 시간도시 계획의 이론적 배경과 목적, 핵심 개념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모레노의 핵심적 아이디어들은 에드가 모랭, 제인 제이콥스, 앙리 르페브르, 리처드 세넷 등의 도시에 대한 관점과 공명하고 있다. 모레노의 시간도시계획의 개념적 맥락을 재탐색해 보는 이유는 부산의 15분 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방향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 복잡성 사고로 본 도시

모레노는 자신의 15분 도시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도시에 살 권리』의 도입부에서부터 에드가 모랭을 인용한다. 모레노가 2018년 도시 만들기 세미나를 준비하는 중에 모랭을 만나 파리의 복잡성과 도시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채록한 내용 중 일부이다. 모랭은 환원시키는 단순한 사고 대신 복잡한 인식과 사고를 통해 도시를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¹⁾ 모랭 자신은 『우연과 필연』의 저자인 프랑수아 분자생물학자 자크 모노와의 만남에서 복잡성 사고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다고 한다.²⁾ 그는 오늘날 온갖 위기를 초래한 근대 이성의 환원, 분리, 단순화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복잡성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복잡하다(complexe)’는 단어의 어원인 복합체(complexus)는 ‘함께 직조된 것’을 뜻한다. 복잡성 패러다임은 외부 세계와 인간 정신이 함께 작동하며 구성하는 다차원적 현실, 정치·경제·사회·심리 등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 직조되어 구성된 현실을 해석해 내고자 한다.

1) 카를로스 모레노, 2023, 『도시에 살 권리』, 양영란 옮김, 정에씨, 9-10쪽.
2) 에드가 모랭, 2012, 『복잡성 사고 입문』, 신지은 옮김, 에코리브르.

이런 사유는 근대 과학의 발전이 복잡성과 애매모호함을 제거하고 단순성과 명료함을 지나치게 추구해 왔던 역사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런 발전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인간을 맹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거대하고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틀에 집어넣고 절단하는 것, 이것이 근대 이성의 폭력이다. 모랭은 이런 지식의 맹목성과 폭력을 비판하며 이성의 오류와 착각, 맹목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 특히 합리성과 합리화를 구분하면서 합리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리성이란 개방적인 것으로, 비합리적이고 애매모호한 것과 협상할 줄 알고, 또 자기비판적 특성을 가진다. 합리성 그 자체는 인간 정신의 한계와 현실의 미스터리에 대해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합리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대화할 줄 모르고 애매모호한 것은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모랭은 인간과 인간의 삶 모두 이런 애매모호성과 우연이 중첩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삶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자율성을 생산해 내는 극단적으로 복잡한 자기환경조직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에게 복잡성이라는 근본적 아이디어는 세계의 본질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복잡성이란 “질서, 무질서, 조직 사이의 대화 관계”이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질서와 무질서는 용해되고 구별은 사라져 버린다. 세계 전체는 질서, 무질서, 조직의 혼합물로, 모랭은 세계의 본질은 인간의 이해력 밖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³⁾

이런 인식은 ‘복잡성 윤리’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복잡성 윤리란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 등의 이분법적 코드에 종속되지 않는 것, 선이 악을, 악이 선을 품을 수 있고, 정의가 부정을, 부정이 정의를 포함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의 활동은 우연과 불확실성, 무질서를 띠고 있는데, 이를 단순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도덕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대신, 또한 삶과 사회, 개인에게 도덕규범을 강요하는 대신, 개인과 사회, 인류의 복잡한 관계와 그 조건을 고려함으로써 인류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무질서, 우연, 불확실성과 함께 살고 교섭해야 하는 것이다.

모랭의 복잡성 사유와 윤리는 카를로스 모레노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모레노는 “살아있는 도시는 복잡한 유기체다.”, “도시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맥락이자 삶과 공유의 터전으로, 고유한 개성, 다시 말해서 고유한 복잡성을 지닌다.”고 전제한다.⁴⁾ 도시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퇴하다가, 마침내 죽는다. 생명과 죽음은 단순히 대립 관계가 아니다. 죽음 역시 생명의 일부로 보는 것이 복잡성 사유이다. 도시가 오래되면 어떤 부분은 슬럼화되거나 소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도시는 그저 만들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는 대상이 아니라, 탄생하고 살아서 작동하고 스스로 조절하고 소멸하는 유기체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끝은 아니다. 죽은 부분이 다시 활력을 찾기도 한다. 죽어가던 도시가 예술가들의 개입으로 개성 있는 거리로 탈바꿈한 도시재생의 사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지역사회 문제와 도시 계획에 관심을 쏟았던 저술가이자 사회운동가 제인 제이콥스의 책 제목이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인 게 우연이 아니다. 제이콥스 역시 복잡성 사고와 도시를 결합시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도시 공원은 유기적 복잡성의 문제처럼 움직이며, 원래 그런 것이다. 도시의 다른 부분이나 특징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요소들의 상관관계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는 우연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⁵⁾

1930년대 생명 과학의 영향을 수용해 도시를 유기적 복잡성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제이콥스의 시도는 안타깝게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도시의 경제적 번영과 발전에 관심을 가지되, 풍부한 에

3) 같은 책, 159쪽.
4) 카를로스 모레노, 위의 책, 35, 68쪽.
5) 제인 제이콥스, 위의 책, 564쪽.

너지로 가득하고 살아 움직이는 도시라는 측면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의 풍경은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간의 엷히고 설킨 행동 유형이 만들어 내는 복잡한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의 환경에 활력과 색채를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풍부한 존재”(유진 래스킨)이다.⁶⁾ 이런 인간이 만드는 도시 역시 대단히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끝없는 생성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도시는 정적이고 닫힌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 과정과 이질적인 것들과의 접촉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또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다.

도시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도시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높고 멋진 건물을 지어 올리고 깔끔하고 세련된 공원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도시에 귀를 기울이고, 도시의 리듬과 호흡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도시의 여러 요소들은 상호 관계적, 상호 의존적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도시의 신진대사에 관여한다.⁷⁾

3. 거리생활의 중요성

15분 도시는 일상생활권에서 주민 간의 접촉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간 활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역 공동체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의식의 강화는 도시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요소이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한 제인 제이콥스는 정통 도시계획이 무엇보다 공간을 분할하고, 그럼으로써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시를 단순하게 만들어 통제하고자 한다고 비판한다.

전통적이고 이상적인 건축 설계와 도시계획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리를 줄여나가면서 사람들을 내부로 밀어 넣기 위한 공간을 건설하고자 했다. 그리고 혼돈과 무질서, 통제되지 않는 흐름, 뒤섞임과 뒤엉킴을 가져올 도시의 거리는 불필요한 낭비이자 위험한 공간으로 간주했으므로 도시 생활에서 거리가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최소화하려 했다. 뿐만 아니라 용도 혼합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데, 왜냐하면 용도 혼합은 보기에 흉할뿐더러, 교통 혼잡을 야기하거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이콥스는 바로 이런 점이 전통적인 도시계획에서 가장 유해하고 파괴적인 사고라고 평가한다.⁸⁾

도시의 거리가 최소화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면, 각 구역은 자기 내부를 향하는 하나의 섬처럼 분리되고, “도시라는 의미의 공중 생활”도 사라지며 오직 “각기 다른 사적 생활의 연장”만 남게 될 뿐이다.⁹⁾ 주거 지역과 놀이 공간, 일터와 상업지구가 분리되고, 이 각각의 구역에는 공원과 학교, 단일 용도 시설물로 채워진다. “대도시는 조각조각 분할되고, 그 각각은 관찰되고 정화되고 균질화된다. 낯선 경험의 수수께끼와 사람들의 비판적 이성 모두 도시에서 제거된다.”¹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놀이터, 공원이 자동적으로 좋은 장소가 되는 건 아니다.

제이콥스는 무엇보다 공간을 분할하는 것보다는 공간들을 연결하고 이로써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그녀가 도시의 거리 생활에 주목하게 된 건 당연한 결과이다. 복잡성 사고로 볼 때, 각기 다른 용도를 가진 건축물의 혼합, 건축 시기가 다른 건축물의 공존은 혼돈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복잡한 질서’일 수 있다. 무질서하다고 질서가 없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질서는 좋고 무질서는 나쁘다는

6) 제인 제이콥스,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옮김, 그린비, 308쪽.

7) 카를로스 모레노, 위의 책, 35쪽.

8) 제인 제이콥스, 위의 책, 300쪽.

9) 같은 책, 99쪽.

10) 같은 책, 320-321쪽.

식으로 접근해서는 도시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이콥스는 특별히 도시에서 거리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하길 원했다. 거리는 단순히 구역과 구역,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도시의 공적 생활과 사생활 사이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로 작용한다.

이는 ‘15분 도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동체, 관계, 공생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모일 수 있는 공간(예를 들어 공원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오며 가며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리 생활을 회복시킬 방법을 찾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 15분 도시 기본구상에서도 거리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연관된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편하게 접근가능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동네 놀터’ 프로그램 기획, ‘골목길 개선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¹¹⁾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동선 위에 있는 거리에서 팝업 형태의 이벤트를 기획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거리의 적절한 장소에 벤치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리에서의 공동생활은 보호와 네트워크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제이콥스는 사람들이 오가는 걸 지켜보는 ‘거리를 보는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¹²⁾ 이는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EPTED)의 초창기 아이디어가 된다. 이것은 공원, 놀이 시설, 주택 단지 혹은 방범용 카메라(CCTV)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도시의 거리 생활은 우리나라의 1980년대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 집 앞 골목길에서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기 집 청소하듯이 골목길을 쓸었다. 아이들은 여기서 축구 구도 하고 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마이카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주택의 마당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었고, 골목길 역시 주차장이 되어 갔다. 골목길은 더 이상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 수 없는 위험한 공간이 되었고, 사람보다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당이나 거실 역할을 했던 골목길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자동차가 들어오기 전의 골목길에서는 이벤트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동네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고추를 널어놓고 말리기도 하고, 아이들은 축구 시합을 하기도 했다. 과일이나 계란을 싣고 다니며 파는 트럭을 만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일상의 공간 속에서 이벤트와 변화, 우연성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골목길의 생활과 달리 아파트에서의 삶은 다양한 변화와 사건을 경험하기 어렵다.

도시의 거리는 다양하고 우연적인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공간이다. 물론 거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단위 거리당 출입구 숫자가 많아서 선택의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를 ‘이벤트 밀도가 높다’고 표현한다면, 명동이나 홍대 앞 거리는 이벤트 밀도가 높은 데 비해 정문이 하나 밖에 없는 미국 대사관 앞은 이벤트 밀도가 낮다. 이벤트 밀도가 높은 거리는 보행자에게 변화의 체험,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이양한다.¹³⁾ 사람들이 사건이나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그 공간에서 주도권을 가진다고 느끼는 거리, 이런 점들이 바로 사람들은 걷고 싶어 하는 거리의 특징이다. 멋지고 커다란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그 거리가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리, 걷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 도시와 인간이 맺는 관계는 다층적이고 복잡하다. 왜 사람들이 어떤 거리로 몰리는지, 왜 어떤 거리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11) 씨이트플래닝, 2022, <15분 도시 부산 기본구상>, 부산광역시, 106, 119쪽.

12) 제인 제이콥스, 위의 책, 117-120쪽.

13) 유현준, 2015,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을유문화사, 25-27쪽.

4. 도시의 익명성과 자유

도시에서 거리 생활과 연결, 공동체의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도시를 과거의 촌락 공동체 형태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도시의 익명성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자유와 매력이 사람들을 도시로 몰려들게 했다. 도시는 그 본성상 낯선 경험을 제공하는데, 왜냐하면 도시에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모르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살기 때문이다. 이때 이방인이란 인종적, 민족적 이방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생애사적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서로 모르는 이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만드는 공공 공간은 따라서 그에 적합한 매너와 규범을 만들도록 요청하고, 이는 각 사람에게 익숙한 전통이나 상식을 허물기도 한다.

도시를 경험한다는 건 무엇보다 익명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의 공론장, 공공 영역에 대한 연구들은 암묵적으로 ‘서로 아는’ 사람들, 또는 서로 만난 적은 없어도 공공 공간에서 ‘서로 연결된’ 사람들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로플랜드는 ‘서로 모르는’, ‘연결되지도 않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도시의 특성(urbanity)에 주목했다.¹⁴⁾ 물론 도시에는 이런 공공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 근린 영역도 있다. 사적 영역에서 사람들은 가족, 친족, 친구로 이어져 있으며 친밀성, 유대감을 가진다. 근린 영역은 이웃, 지인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도시에는 이 세 가지 영역이 모두 존재하는데, 로플랜드가 보기에 사적 영역과 근린 영역은 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발견되지만 공공 영역은 오직 도시만의 특징이다.¹⁵⁾ 작고 폐쇄된 촌락 공동체를 떠올려보면,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 자라고 아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었다. 이런 공간에는 익명성도 없고, 또 자유도 없다. 하지만 대도시에서 우리는 수많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산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방인들이 만들어내는 공공 영역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하다. 간혹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해도 이들은 주로 이를 부정적으로 간주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도시를 익명의 원자적 인간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싸우는 몰도덕적 공간처럼 상정하거나, 혹은 온갖 것들이 뒤섞여 무질서하고 부적절하고 역겨운 곳으로 상정하는 것이다.¹⁶⁾

그런데 이런 익명성에 기반한 삶,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삶이 꼭 나쁜 것일까? 도시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게 된다. 우리가 이들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이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좋건나쁘건 나와 함께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중요하다. 이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이들과 함께 사회적 공간을 함께 사용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¹⁷⁾

15분 도시가 도시의 공동체성, 주민 간 교류, 연대, 활력 증진을 통한 관계적 삶, 공동체의 회복을 주요 목표로 강조하더라도, 도시가 이방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사실과 도시성의 핵심이라 할 익명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15분 도시가 <응답하라 1988>의 쌍문동 골목길을 다시 만들어낼 수는 없다. ‘만남은 선이고 분리는 악’이라는 흑백논리, ‘공동체의 미덕과 도시의 악덕’이라는 단순한 대비, 이런 단순성은 현실에 적용될 수 없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닫힌 공동체가 얼마나 소수자나 차이에 대해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많이 보아왔다. 오히려 열린 대도시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 15분 도시가 ‘공동체 기반 연대 도시’가 되고자 할 때, 이때의 ‘공동체’는 과거 촌락 공동체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본연

14) 최종렬, 2016, 『다문화주의의 사용. 문화사회학적 관점』, 한국문화사, 209쪽.

15) 같은 책, 215쪽.

16) 같은 책, 211쪽.

17) 같은 책, 214쪽.

적이고 적절한 도시의 모습은 이웃사회이고, 공동체적 삶이야말로 지금 도시인에게 필요하다는 전제, 이런 전제는 과거에 대한 기성세대의 노스텔지어를 드러낼 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의 수많은 이방인들과 어떤 형태의 연대를 맺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삶은 낯선 이들과 자연스럽게 지내는 능력을 요청한다. 구 프랑스어 ‘urbain’이라는 단어는 도시 생활을 의미하지만, 또한 다른 도시에서 온 방문객들을 대하는 예절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었다. 현대 도시에서 이는 정중함(civility)이라는 가면 속에 있는 피상성, 기만, 비개인성을 의미한다. 이 단어들은 흔히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리처드 세넷은 이것이야말로 도시를 이해하는 데는 핵심적이라고 본다. 그는 “이웃들이 정중함의 가면을 쓰는 것이 옳다”고 분명하게 말한다.¹⁸⁾ 세넷에 따르면 이것이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 혐오, 타자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정중함의 가면만 쓰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소소한 예절, 피상성, 가면이 모두 악덕은 아니다. 진심으로 알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웃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묻고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예절의 역사적 배경은 ‘코즈모폴리턴’이다. 프랑스어 cosmopolite는 이 장소, 저 장소, 이 문화, 저 문화를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외교관을 가리켰다.¹⁹⁾ 폐쇄된 촌락 지역에서 사는 사람은 이질적인 것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필요 없겠지만, 대도시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도시의 삶이 요청하는 능력은 이방인을 피해 떠나거나 혹은 이방인을 배척, 혐오하는 것 대신, 정중함의 가면을 쓰고 그들과 가볍고 피상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 느슨한 연대의 상태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제인 제이콥스가 공동체와 이웃관계를 대도시에서 회복하길 원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녀가 ‘친밀함 없는 이웃관계’, ‘비공식적이고 자유롭게 느슨한 활동’을 중요시했다는 데 주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녀는 그저 따뜻한 ‘우리’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다. 제이콥스는 어떤 도시가 매력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도시의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원치 않는 관계에 빠져들지 않고 또 변명을 늘어놓거나 일일이 해명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염려하지 않으며, 번잡한 속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온갖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했다.²⁰⁾ 그리고 그녀는 매력적인 도시에서는 이웃들이 서로를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는 점도 발견했다. 물론 거리나 상점에서 만나면 사람들은 서로 친근하게 수다를 떨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 너무 깊이 알고 싶지 않다. 제이콥스는 사생활에 대해 존중받길 원하는 것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 균형을 이룬 상태가 좋다고 생각했다.²¹⁾ 도시의 공기가 사람들에게 주는 익명성의 자유, 그것이 도시의 특징이고 도시 인간의 DNA를 만든다. 제이콥스는 심지어 이것을 대도시 생활의 ‘선물’이라고 까지 표현했다.

이런 도시의 특성, 도시 인간의 특성이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어쩌면 보다 익명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온라인 환경과 오프라인 환경이 뒤섞인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중적 페르소나, 아바타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도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도시에 대한 감각, 지역에 대한 감각은 이전 세대와 확실히 다를 것이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태어나면서 디지털 기기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면적 접촉과 그에 기반한 강한 연대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따라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들에게 15분 도시는 어떤 의미를

18) 리처드 세넷, 『것기와 거주하기』, 212쪽.

19) 같은 책, 211~212쪽.

20) 제인 제이콥스, 위의 책, 97쪽.

21) 같은 책, 92~94쪽.

가질까? 이들에게는 근접성과 공동체보다, 유행과 힙합, 인스타그램머블 여부가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화와 지구촌이라는 환경을 경험했고, 교육이나 일자리, 취향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인식과 애정이 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당근마켓’이나 ‘숨고’와 같은 스마트 앱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근거리에서 찾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온라인 앱의 역할과 기능, 디지털 세대의 도시 인식을 세심하게 파악해서 15분 도시에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²²⁾

15분 도시는 공동체와 관계, 로우테크와 휴먼 스피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도시성, 유비쿼터스, 메타버스, 소셜 미디어와 적절히 결합할 수 있어야 다양한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도시의 삶의 질에 대한 권리

모레노의 ‘15분 도시’는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계승하면서 현대 상황에 맞게 수정했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는 주로 주거다운 주거에 살 권리를 위한 투쟁이 중심이었다면, 모레노는 주거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 일상생활 전반에 필요한 소비, 치료와 보살핌, 배움, 환경과 생태 등 사회의 전 영역에서의 권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역시 단순한 주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던 1960년대 파리는 심각한 도시 문제를 겪고 있었다. 당시 파리에는 농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거주지를 파리 외곽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이 추진 중이었다. 또한 도시를 상품화하려는 자본과 관료제에 의해 도시의 주민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문제가 심각해졌다. 바로 이런 문제를 비판하면서 르페브르는 도시민이 도시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그는 도시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에 도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정상으로 규정한 코드와 동질성을 거부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차이의 권리와 전유의 권리 또한 제안했다.²³⁾ 이는 도시 공간을 도시민 모두를 위한 사용가치를 최대화할 공간으로 보고, 자본의 동질화된 공간에 맞서 차별적인 공간을 생산하고 도시의 모든 일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가 다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층위에서 전개된다면, 앤디 메리필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일상의 삶과 이어진 매우 구체적인 권리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해 보여주었다.

“도시를 자기 것으로 삼아 살아갈 권리며, 도시를 위해서 살고, 도시에서 행복하게(혹은 불행하게)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알맞은 주택을 얻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공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도시의 지평선을 원하는 것만큼 좁히거나 넓힐 수 있는 권리이자, 이웃에 대한 충성, 거리와 건물에 대한 충성,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한 충성을 뜻한다. 도시는 그 전체가 당신의 것이 되어야 하고, 당신이 살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탐험하고, 소유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도시는 당신이 바라는 곳이어야 한다. [...] 공유된 공통의 목적의식을 느끼고, 도시의 일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²⁴⁾

22) 서우석, 2023, <2023 부산문화컨퍼런스II 토론회 “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 부산문화재단 자료집, 2쪽.

23) 앙리 르페브르, 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560쪽; Henri Lefebvre, 1996, Writings on cities, Blackwell Publishers Ltd, p.20.

24) 앤디 메리필드, 2018, 『아마주어』, 박준형 옮김, 한빛비즈, 301-302쪽.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의 일에서 소외되지 않을 권리이다. 자신의 생존과 휴식을 위해 깨끗한 환경과 에너지, 주거, 교통수단,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도시의 계획과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²⁵⁾

제이콥스의 ‘살아있는 도시의 정신’이라는 개념 역시 이런 측면을 강조한다. 거리와 광장, 동네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사회적 공간이면서 시민권의 토대가 되는 공간이다. 제이콥스가 거리와 광장, 골목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는 도시의 삶의 질에 대한 권리, 도시의 삶에서 소외되지 않을 권리를 향한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투쟁을 통해 획득가능한 것이다. 모레노의 15분 도시 역시 바로 이 점을 강조한다. 쾌적한 공기와 물, 적절한 그늘과 햇빛이 그저 주어지지 않는다. 유기체로서의 도시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할 것이다. 모레노는 우리가 빼앗긴 도시의 공간과 시간, 리듬,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투쟁해야 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쓰고 있다.²⁶⁾ 그는 생태적 필요, 사회적 필요, 경제적 필요가 서로 이어질 때 살기 편하고, 존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고, ‘탄소 제로, 소외 제로, 빈곤 제로’의 도시를 목표로 내건다.²⁷⁾ 개발과 진보를 찬양하는 도시의 이면에는 주민이 배제되는 현실이 놓여있다. 도시가 부유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빈곤과 사회적 소외가 심각해진다.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긴급한 환경 문제이다. 자동차는 주민들로부터 막대한 공간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심각한 환경오염, 교통 체증 등을 야기한다. 자동차는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 환경까지 빼앗아 간 셈이다. 시민들이 나서서 도시의 거리 생활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자동차에게 빼앗긴 광장과 골목길을 되찾고, 누구에게나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할 때이다.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향한 투쟁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령 이런 투쟁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레노 역시 사회적 관계의 혁명 중 특별히 여성 권리를 대표적으로 다룬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적 삶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표현, 새로운 사회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가능성을 가져다주었다. 양성 평등이라는 기치 아래 여성의 다양한 권리를 향한 투쟁이 이어졌다. 아마 여성이 도시의 삶의 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 각자가 원하는 가정환경을 꾸릴 권리, 후손을 낳거나 낳지 않고 입양할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구식이 되어버린 지난 시대의 가족 모델, 구태의연한 위계질서에 따른 가족 틀을 깨거나 적어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까지를 포함할 것이다.²⁸⁾

도시의 혁명은 도시에서의 삶의 질과 사회적 관계를 위한 투쟁을 의미한다. 개방적인 도시 속에서 사회적 관계, 사회적 권리는 계속 변모한다. 가령 인터넷 발달로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 되면서 초연결성과 초파편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도시의 사회적 관계는 어떻게 변모할까? 이런 새로운 도시 문화, 도시 환경은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삶의 질에 대한 투쟁의 내용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수정해 갈 것이다. 도시의 삶의 질에 대한 권리 투쟁은 지속가능한 도시, 매력적인 도시,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상상력으로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우리가 처한 긴급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것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방향 설정’이다.²⁹⁾

25) 최병두, 2011,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 『공간과 사회』 21(3), 27-28쪽.

26) 카를로스 모레노, 위의 책, 38-39쪽.

27) 같은 책, 111쪽.

28) 같은 책, 99쪽.

29) 같은 책, 122쪽.

6. 방향 설정

실제로 파리에서는 대대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파리의 15분 도시는 파리에서 자동차를 추방했다. 이는 결코 시장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수많은 저항과 반대를 직면하며 설득하고 협상해야 가능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편리함과 이익을 포기해야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폭을 넓히면서 문제를 해결해 갔다. 유럽과 전 세계 도시 네트워크들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논의했다. 전기버스 운행, 도심 진입 차량 금지, 도시 고속도로를 산책로로 전유하기, 하천에 공원을 조성하고 낡은 건물을 에너지 고효율로 현대화하기, 도시농업, 대기 질 측정 감시, 그리고 모든 생활의 차원에서 시민의 참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³⁰⁾

그런데 부산의 15분 도시는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그렇다 보니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무엇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지도 뚜렷하지 않다. 도시를 바꾸기 위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도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편리한 삶,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동차를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탄소 제로’는 친환경 버스 도입이나 탄소 제로 산업 단지 조성이 떠맡으면 되고, ‘빈곤 제로’는 사회 복지에서 알아서 하고, ‘소외 제로’는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낙관한다.

선한 사람들의 선한 의지에 기대하면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없다. 부산연구원에서 출간한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구상>, 제3장 ‘부산 어울림, 15분 도시 그려보기’에는 ‘부산의 미래 상상하기’가 있다. 15분 도시라 불릴 만한 자격을 갖춘 미래의 부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한 내용이다. 영이(30대 여성), 뫼꼬(20대 남성), 옥구슬(40대 여성), 안전(30대 여성), 세희(30대 여성), 현진(30대 남성), 상이(50대 남성)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상상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새내기 엄마, 막 20살이 된 청년, 여행하다가 부산에 정착해 산지 3개월이 된 여성 등의 삶은 요트파티, 공유이동서비스의 일상적 활용, 쾌적한 공기, 공공 공간에 적절하게 배치된 벤치,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자동차, 메타버스 활용, 재난 상황에도 안전할 수 있는 대피소와 재난 방송, 로컬푸드 판매 가게, 싱싱하고 안전한 먹거리, 재즈 공연, 브런치, 공유경제, 복합문화공간의 공유 카페 등으로 여유롭고 행복하다.³¹⁾

누구나 상상해 볼 만한 행복한 미래의 모습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상상한 15분 도시의 모습은 빠져있다. 가령 재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대피소로 갈 수 있었고, 따라서 도시의 모든 이가 안전했다는 해피엔딩을 선포하려면, 이전에 이동의 제한이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모두 잘 대피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가상의 인물들은 대부분 사회의 중심축이 되는 20~50대의 소위 ‘정상’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의 소수자들은 각각의 상상의 도시 속에서 과연 이들과 동일한 즐거움과 안전, 편리함을 누리고 있을까? 결혼 이주여성에게 15분 도시란? 휠체어 장애인에게 15분 도시란? 빈곤 노인에게 15분 도시란?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 15분 도시란? 40대 싱글 여성에게 15분 도시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상상력을 더해 나갈 때, 15분 도시의 계획과 사업 역시 구체성과 현실성을 갖추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보고서의 상상의 인물들은 마치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고강도 노동, 불안정 노동 등으로 위라벨을 누리며 살지

30) 같은 책, 61쪽.

31) 박상필 외, 2022,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구상>, 부산연구원, 134~142쪽.

못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집과 멀리 떨어진 직장을 다니면서 긴 시간의 출퇴근에 시달리고, 주말에도 추가로 일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허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위 보고서 외에도 부산광역시에서 발간한 <15분 도시 부산 기본구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나타난다. 15분 도시의 추진전략으로 즐겁게 배우고(learn, Learn), 건강하게 살며(health, Activity), 편안하게 쉬고(sleep, Rest), 가까이 일하기(work, Work), 걷기 중심의 삶(walkability, Walkability)을 제시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꿈꿀 만한 내용이지만, 이것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빠져있다.³²⁾ 과연 누가 매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에 출근하고 싶겠는가? 생활권 내 경제 활력 증대, 청년창업공간, 창업 시스템 확대, 순환형 경제체계 구축,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가까이 일하기’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지만³³⁾,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인가? 같은 보고서에서는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추진 사업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의 소관국이 교통국, 도시계획실, 문화체육국, 시민건강국, 녹색환경정책실 등이다.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권역별 조성” 사업이 유일하다(소관국: 일자리경제실).³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과연 ‘가까이 일하기’라는 15분 도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건축공간연구원(AURI)에서 제출한 보고서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2위를 차지할 만큼 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통근시간이 길수록 행복지수가 낮아 지므로 일-여가의 균형을 위한 개인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15분 도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주장한다.³⁵⁾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고질적인 과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부터, 부부 공동육아 지원, 장시간 근무 문화 변화,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여러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15분 도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15분 도시가 기존에 있었던 유사사업들의 반복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그리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고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복잡성 사유는 15분 도시 계획 단계에도 필요하지만, 계획의 실행을 위한 업무 분장에도 필요하다. 각기 맡은 영역에서 따로따로 15분 도시 사업을 추진한다면, 15분 도시가 상상했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32) 씨이트플래닝, 2022, <15분 도시 부산 기본구상>, 부산광역시, 82~87쪽.

33) 같은 책, 85쪽.

34) 같은 책, 16~18쪽.

35) 성은영 외, 2021,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AURI, 20쪽.

7. 도시 전유의 실천

도시에서의 권리를 향한 투쟁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 도시 빈민의 주거권 투쟁이나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1960년대 말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의 활동 역시 바로 이런 시도였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도시 공간이 점차 통제되고 있고, 현대인은 노동과 여가, 소비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들은 도시환경과 건축, 혁명적 관심을 종합하고자 했고 특히 당시의 도시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들이 보기에 도시 공간은 ‘소비의 사원’이 되어 버렸고, 사람들 역시 관광지나 쇼핑센터를 돌 듯이 도시 공간을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런 도시 환경을 타개해 나갈 방법을 모색했다.³⁶⁾ 이런 도시에는 원래의 공동체는 사라지고 오직 ‘가장된 공동체’, 여가를 위해 모인 군중이나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루어내는 유사공동체, 문화회관의 역할을 도맡아 하는 백화점 문화센터만 존재할 뿐이다. 공공 공간 역시 사라지고 백화점의 로비나 카페가 이 기능을 대신한다.

상황주의자들의 활동은 단명했고 활동했던 참여 인원도 적었으며 아방가르드적 난해함 때문에 도시 연구나 예술사 양쪽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본주의화 된 도시 문제를 일찍이 간파했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위해 투쟁한 사례로 주목해 볼 만하다. 특히 스펙터클한 도시에 붙들리지 않고 다양한 전술을 통해 도시 공간을 전유하고자 했던 이들의 모습은 15분 도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소외되지 않은 ‘상황’의 구축을 통해 권력과 자본의 일방적이고 완벽한 작동을 멈추게 하려고 시도했는데, 특히 이들의 활동이 흥미로운 점은 자본주의 공간 한가운데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도시는 사람들을 소외시키지만 사람들은 도시를 (재)전유함으로써 사회성의 플랫폼 역할을 되살릴 수 있다.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은 새로운 형식의 사회성을 만들어 내고, 개인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도시 환경 속에서도 비생산적이고 무의미한 실천, 전략과 전술을 통해 유희적 감정을 공유하고 도시 공간의 용도와 목적을 변경시킬 수 있다. 상황주의자들이 사용한 전략 중 하나인 표류는 스펙터클한 도시 공간 속을 움직이되 원래의 공간의 의도나 목적, 기능에 따르지 않은 채 도시의 여러 장소가 풍기는 기운과 분위기, 도시의 독특한 지형이 가진 매력,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과 사물에 자신을 맡긴 채 걷는 것을 말한다.³⁷⁾ 상황주의자들은 도시 안의 다양한 구역을 옮겨 다니며 그 구역의 리듬을 경험해 보고자 했는데, 이를 통해 도시의 각 구역이 가진 단순한/단일한 리듬을 전복하고 새로운 리듬, 다양한 리듬이 회복된 공간의 지도를 그려 보고자 했다. 르페브르의 유작 역시 리듬 분석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³⁸⁾ 르페브르는 리듬이야말로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보았다. 그는 리듬 운동과 행동의 반복, 단선적 리듬과 순환적 리듬의 얽힘, 리듬의 성장과 쇠퇴를 확인하여 장소의 시공간적 특수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르페브르와 상황주의자들 사이에는 상호적 교류와 영향이 있었다. 르페브르가 ‘도시에 대한 권리’를 이론적 수준에서 정초 했다면, 상황주의자들은 도시를 전유하는 실천에 주목했다. 르페브르가 ‘작품으로서의 도시’를 주장했다면, 상황주의자들은 도시를 전유하는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도시는 그 자체로 작품이 아니다. 작품이 될 수도 없고 작품이 될 필요도 없다. 모랭의 논의를 다시 언급한다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도시는 결코 하나의 완성된 예술 작품이 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오히려 도시를 전유하는 ‘예술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로 상황주의자들은 1960년에 <상황주의자 인터내

셔널> 기관지에서 스펙터클의 소외에서 벗어난 단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³⁹⁾

상황주의자들은 68 혁명을 스펙터클을 파괴하고 성공적으로 상황을 구축한 사례로 평가했다. 68 혁명은 소외에서 해방되기 위한 정치적 투쟁과 에로스적 흥분이 결합된 축제이자 혁명이었다. 이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추구하거나 이념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의 혁명과 달리, 살아 있는 에너지와 문화적 진동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성격에 가까웠다. 상황주의자들은 이를 소외된 도시적 삶에 사람들이 개입해 도시의 성격을 변화시킨 사례로 해석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시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하나의 사례로 1990년대의 “Take Back The Night(약칭 TBTN)” 운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도시의 밤을 되찾기’ 운동이다. 물론 현재 우리는 밤에 움직일 수 있다. 법이나 제도가 우리의 야간 이동을 제한하고 통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도시의 안전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렇다. TBTN 운동은 여성들이 도시의 모든 공간을 시간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드나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TBTN 운동은 밤 시간만 되찾기 위한 게 아니라 공간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⁴⁰⁾ 1970년대 중반 북아메리카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운동은 단순한 여성의 이동권에 대한 주장이 아니다. 매우 격렬한 반(反) 포르노/반폭력 운동, 성 전쟁(sex war)의 일부가 되기도 했고 여러 쟁점을 촉발시켰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운동의 목표와 계획에서 교차성이 반영되었다. 처음 시작 당시에는 ‘여성만’ 참여한 운동이었지만, 점차 모든 젠더를 환영하게 되었고, 휠체어의 접근, 수어 통역,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제공했다.⁴¹⁾ 앞서 언급했듯이 이와 같은 도시에서의 권리 투쟁은 인간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새로운 자기표현을 위한 투쟁의 성격을 띤다.

도시의 밤을 찾고자 하는 시도의 하나로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서 기획된 백야 축제를 들 수 있다. 파리에 서 매년 개최되는 밤샘 예술 행사인 ‘백야(Nuit Blanche)’는 2002년 시작되었는데,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여러 도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행사가 그보다 오래전부터 있었다. 현재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에서도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TBTN에서 나타난 정치성은 희석된 축제이긴 하지만, 이를 단순히 밤에 열리는 예술 축제라고 볼 수는 없다. 도시에서는 보통 낮 시간은 노동을 위해 보내고, 밤 시간은 다음 날의 정상적 노동을 위해 포기하며 산다. 하지만 밤의 시간을 뜯 눈으로 경험하고, 또 보통이라면 이 시간에 폐쇄된 박물관, 미술관, 관공서 등을 방문해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도시의 시간과 리듬을 일시적으로나마 회복해 보는 경험이 될 것이다.

상황주의자들의 표류를 연상시키는 백야 행사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전시 공간으로 전유한다. 이것은 도시 전체에서 이벤트의 밀도를 극대화하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신선함과 새로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기획은 자본과 자동차에게 넘어간 도시를 탈환해 내는 매우 시적인 기획이자,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공간에 대한 주체의 재전유”⁴²⁾ 경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도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 공간의 기획과 배치, 자본과 자동차, 상품과 사람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시 공간을 모든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전유해 내는 방법을 찾는다면, 상황주의자들의 시도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도시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다. 이것이 구체성과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시와 도시적 라이프스타일의 전반적 변화가 필요하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36) 기 드보르, 2014, 『스펙타클의 사회』, 유재홍 옮김, 울력, 172쪽.

37) 신지은, 2019,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의 ‘상황’ 개념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 『문화와 사회』 제27권 2호, 185쪽.

38) Henri Lefebvre, 1992, *Elements de rythmanalyse: Introduction à la connaissance des rythmes*, Syllepse.

39) 신지은, 2019, 위의 책, 212쪽.

40) 레슬리 켄, 2022, 『여자를 위한 도시는 없다』, 황가한 옮김, 열린책들, 184쪽; <https://takebackthenight.org/history/> (검색일: 2023.11.27.)

41) 같은 책, 185-188쪽.

42) Vincent Kauffman, 2001, *Guy Debord: La révolte au service de La Poésie*, Librairie Arthème Fayard, p.174.

권리는 도시의 치안과 안전, 규범과 윤리, 공동체와 소수자에 대한 인식, 도시 인프라의 혁신 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다. 하나의 문화적 이벤트를 기획한다고 해도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사회적 삶과 관계와 결합되어 만들어내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8. 시간도시계획: 도시의 시간과 공간의 전유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 도시계획이 선호하는 단일용도 건물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텅 비어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차고 등은 하루의 3분의 2 이상이 비어 있다. 오피스가 몰려 있는 동네의 경우에는 낮에는 거리, 식당, 카페 등에 사람이 북적이겠지만, 퇴근 시간 후나 주말에는 황폐한 곳이 되고 만다. 혹은 도시의 특정 지역은 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 반해 또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유기체로서의 도시의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구조이다.

모레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주요 요소(근접성, 혼합성, 밀도, 편재성)에 의해 지탱되는 다중심적 도시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⁴³⁾ 또 분리된 것을 다시 이어주고, 자연과 사회생활, 창의성, 혁신을 재발견하게 하는 복잡성의 어원(complexus, ‘함께 직조하다’)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다. 도시의 구석구석이 다양한 시간과 리듬에 따라 살아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을 문제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포디즘, 전문화, 분할된 공간 생활방식이 인간에게서 시간을 앗아갔는데, 모레노는 ‘시간도시계획(chrono-urbanisme)’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⁴⁴⁾ 모레노의 ‘시간도시계획’이 제인 제이콥스의 살아 있는 도시, 뉴어바니즘 운동, 시간지리학 계통 사상가들, 프랑수아 아셰와 튀 귀아즈진스키를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 학파의 도시 리듬 연구 등을 계승한 것이다.⁴⁵⁾

제이콥스는 매우 구체적으로 도시의 주요 용도들이 혼합될 필요성을 제시했고, 공간을 평면적으로나, 입체적으로, 지상이나 지하를 총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용도 혼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도시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다양성을 장려할 도시계획을 가로막는다. 제이콥스는 도시 주요 용도의 혼합, 촘촘한 가로, 건축 연수가 다양한 건물들, 이용자의 조밀한 집중 등이 결합되어 도시의 다양성을 촉진시킴을 증명해 보였다.⁴⁶⁾

지리학자인 튀 귀아즈진스키는 『24h/24 도시』(2004), 『유럽의 밤』(2007), 『크로노토피아』(2017) 등을 통해 현재의 도시계획이 시간도시계획과 크로노토피아를 중점에 둔 도시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가 보기에 도시는 매일, 매주, 매월, 계절별로, 사건과 사고에 따라, 혹은 사용법에 따라 시간의 흐름과 리듬이 변화한다. 달력과 시간표, 일과표는 사람들의 삶에 템포를 부여하고, 어느 공간을 점유할지 결정한다. 가령 평일 오전과 오후는 학교나 회사에, 일요일 오전에는 성당에, 토요일 오후에는 영화관에 있는 것이다. 귀아즈진스키는 시간의 차원과 공간의 차원이 접합되고 합류되는 영역을 ‘크로노토프’라고 정의하고, 이런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일정표(시간)와 지도(공간)를 모두 총괄하는 ‘시간도시계획’은 도시의 기술적, 사회적, 미적 기능을 최적화할 뿐 아니라, 보다 인간적이고 접근가능하며 현대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⁴⁷⁾

43) 카를로스 모레노, 위의 책, 138, 144쪽.

44) 같은 책, 132쪽.

45) 같은 책, 132쪽.

46) 제인 제이콥스, 위의 책, 300-321쪽.

47) Luc Gwiazdzinski, "Eloge de la chronotopie. Pour un urbanisme temporel et temporaire", Revue *Collage*, n°2, 2013, Fédération suisse des urbanistes, pp.7-10.

모레노의 시간도시계획은 다중심적 도시, 크로노토피아, 토포필리아를 모두 포괄한다. 중심과 주변으로 나눠진 현재의 도시를 다중심적 도시로 만드는 것은 실제로 현재 도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부산의 경우만 해도, 몇 개의 중심지와 그 외의 주변부 지역이 확연하게 분리되어 있는데, 중심지로 계속 사람과 자본이 몰리다 보니, 주변부는 노쇠화, 황폐화하여 소멸 직전이다. 주변부에 사는 사람들 역시 문화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위해서는 중심지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변부의 기반 시설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이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 가령 낮 동안만 사용되는 주변부 지역의 초등학교를 저녁 시간에 지역주민들의 문화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공유 오피스나 공유 자동차 아이디어도 이와 유사하다. 저녁시간에 텅 비어있는 사무실, 출퇴근 시간 외에는 하루종일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다른 시간대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레노 역시 자신의 시간도시계획이 도시에 실질적인 몇 가지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사람들이 근거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활동을 위한 공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소유주 입장에서 는 기존 시설이나 공간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⁴⁸⁾ 이런 아이디어는 모두 전유의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모레노는 이와 같은 공간의 활용법을 ‘크로노토피아(chronotopia)’라고 부른다. 시간(chronos)과 공간(topos)의 합성어인 크로노토피아는 시간에 따라 공간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중심부로 가지 않더라도 자기 집 주변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 슬럼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공간에 대한 애정, 즉 ‘토포필리아(topophilia)’를 가지게 될 가능성도 높여줄 수 있다.⁴⁹⁾ 모레노의 ‘15분 도시’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의 통합체로 나타난다.

분리된 건축물, 분리된 용도가 갖는 문제점 때문에 점차 복합문화시설에 대해 주목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부산시는 신노년세대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 ‘HAHA 센터’를 시내 62 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HAHA 센터’ 조성사업이 노인시설 및 관련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들락날락’은 어린이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이런 공간들은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고 있으나, 운영 방법이나 타겟으로 하는 이용객을 살펴봤을 때, 시간도시계획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남는다.⁵⁰⁾

병렬적으로 여러 시설들을 한 개의 건물 안에 옥여넣는 방식만으로는 시간도시계획이라 하기 어렵다. 복합문화시설을 통해 용도 혼합을 시도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도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도시가 잃어버린 시간과 리듬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도시가 다중심적, 다용도적, 복합기능적인 공간으로 변화된다면, 그 도시의 성격과 생리가 변화할 것이다. HAHA 센터의 경우, 노인복지관, 작은보건소, 스마트가든, 통합돌봄창구, 생활문화센터 등을 모두 제공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시급한 고령층 돌봄의 효율적 운영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도시계획이라는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복합문화공간에 주목한다면, 이 공간을 고밀도의 용도로 어떻게 사용할지, 이 공간이 가진 가능태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령 오피스가 즐비한 공간에서 밤에 특별한 팝업 문화 예술 이벤트를 기획해 본다면, 이곳은 밤의 사막화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거주지역의 경우,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 재래시장 등을 사용하는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그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

48) 카를로스 모레노, 위의 책, 140-141쪽.

49) 같은 책, 132-133쪽.

50) 씨이트플래닝, 2022, <15분 도시 부산 기본구상>, 부산광역시, 104-105, 136-139쪽.

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공간에 대해 자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 공간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떤 지역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추억을 남겼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특별한 이벤트를 경험했다면 그런 경험은 기억에 깊이 각인된다. 바로 이런 식으로 토포필리아가 만들어진다. 그 도시가 외형적으로 깨끗하고 질서 있고 아름다워서, 혹은 그 도시의 경제 수준이 높아서 토포필리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도시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 도시에 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가 토포필리아로 이어진다. 인문지리학자 이-푸 투안은 공간에 한 인간의 특별한 경험과 삶이 녹아들면 그곳은 장소가 된다고 보았다. 물리학자인 하이젠베르크는 덴마크의 크론베르크 성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햄릿이 살았다고 상상하자마자 성이 달라져 보였다는 감상을 남겼다. “과학자로서 우리는 이 성이 돌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믿으며 건축가가 그 돌들을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 고색창연한 녹색지붕, 교회의 나뭇조각이 성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어느 것도 햄릿이 여기에 살았다는 사실로 바뀌지는 않지만, 그것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갑자기 성벽은 아주 색다른 언어를 구사합니다.”⁵¹⁾ 투안은 이와 같은 하이젠베르크의 감상을 공유하며, 인간이 공간을 어떻게 체험하고 느끼고 기억하는지, 어떤 복잡한 감정의 이미지로 해석하는지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9.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 도시

대도시의 템포와 속도는 매우 빠르다. 자동차로 움직일 때는 걸어서 움직일 때보다 훨씬 적은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로 움직일 때 우리는 주변 장소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그 장소에 사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에 대해 고려하기는 어렵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공간을 그저 지나칠 뿐이다. 20세기 도시계획가들은 빠르고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도시를 좋은 도시로 간주했다. 그래서 고속도로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도시는 확장되었다. 자동차를 위한 도시는 결과적으로 도시 블록이 크게 구획되어지고 교차로도 많지 않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보행자는 다양한 경험을 선택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것은 보행자가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야기한다.

15분 도시는 ‘탄소 제로’를 목적으로, 그리고 자동차에게 빼앗긴 공공 공간을 보행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목적으로 근거리 생활, 자동차가 없는 생활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5분 도시 계획은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를 전유할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린 생활과 공동체의 중요성, 로컬의 중요성을 규범적으로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호응과 라이프스타일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에서 여러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도시의 라이프스타일에서 개개인의 선택지가 많아진다면, 그것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은 아침부터 밤까지 먹고 자고 일하고 이야기하고 쉬면서 만들어진다. 이런 루틴한 일상은 보통 선택지가 많지 않다. 하지만 퇴근할 때 어느 길로 걸어 갈지, 친구와 만나 어느 카페에 갈지, 주말에는 어디서 어떻게 쉴지, 어디서 무엇을 구매할지 등의 결정이 모여서 그 사람의 삶을 구성한다. 프랜차이즈 카페에 갈지 동네 작은 카페에 갈지, 온라인으로 장을 볼지 동네의 작은 가게에서 장을 볼지 대형마트를 갈지 등. 하지만 보행자가 선택권이 전혀 없는 길을 걷는다가거나 자동차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통과

해 간다면, 늘 같은 마트에서 장을 볼 수밖에 없다면, 이는 마치 채널이 하나밖에 없는 TV와 마찬가지로. 수동적이고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경험이라는 말이다. 거리의 다양한 상점, 교차로, 거리의 벤치, 그래피티와 벽화, 거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 등은 TV 채널 수나 인터넷의 하이퍼링크 수와 같은 기능을 한다.⁵²⁾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라면 영화의 전당에 들어갈 가능성은 줄어든다. 게다가 센텀시티의 고층 아파트 단지는 거주자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다. 이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의 수, 그리고 이 공간이 제공하는 선택지 역시 매우 적는데,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은 공간과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 즉 소외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공간은 걷고 싶은 거리라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 가로수도 별로 없고 벤치 하나 없다. 빠르게 들어갔다 나올 만한 편의점도 잘 보이지 않는다. 분명 건물 안에 들어가면 편의점이 있을 것 같지만, 선뜻 들어갈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여기서는 넓은 주차장과 건물들을 가로질러 자신의 다음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반면 구도심은 천천히 걷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작은 극장 앞에 도착했다고 가정해 보자. 마침 그곳에서 선보이는 영화가 마음을 끈다면 거기서 영화를 한 편 볼 수 있을 것이다. 원한다면 영화를 함께 본 사람들과 감상을 나누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 대한 이야기, 부산의 현재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영화 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영화를 한 편 보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 것 대신, 함께 영화를 본 이들과 감동을 함께 공유하거나 함께 비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건이 이어질 수 있다.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부산에 영화영상 관련 공공기관이 내려오고 국제적인 영화제가 열린다고 곧바로 영화의 도시라 말할 수는 없다. 문화예술이 일상과 결합할 때 시민의 삶과 도시가 보다 문화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⁵³⁾ 이런 점에서 부산의 향토 극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현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와 같은 기회와 장소가 많이 있다면 도시의 이벤트 밀도는 높아지고 사람들의 기억에 부산은 재미있고 매력적인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인식될 것이다.

인간은 직선거리로 최대한 가성비 있는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다. 발터 벤야민은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 시절’에서 숲에서 길을 잃듯이 도시에서 길을 헤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헤매는 사람에게 거리의 이름들은 마치 마른 잔가지들이 똑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려오고, 움푹 파인 산의 분지처럼 시내의 골목들이 그에게 하루의 시간 변화를 분명히 알려줄 정도가 되어야 도시를 헤맨다고 말할 수 있다.”⁵⁴⁾ 이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도시를 향유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때와 달리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대신 도심 하천을 걸을 수 있다면, 벽에 그려진 그래피티를 잠시 구경하느라 발걸음의 속도를 잠시 늦출 수 있다면, 새로 생긴 빵집에서 난생처음 비건 빵을 시식해 볼 수 있다면, 이처럼 삶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더 많을수록 우리의 도시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도시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권, 주도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공간에 대한 주권, 더 나아가 공간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과 이어진다. 부산연구원에서 제출한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구상> 보고서에서는 ‘공간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 생활의 만족도와 중요도를 조사하기도 했다. 어떤 생활시설이 필요하

52) 유현준, 위의 책, 26쪽.

53) 신지은, 2022, “15분 도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 도시”, 『공간 그리고』 Vol. 46, 2022년 가을호, 21쪽.

54) 발터 벤야민, 2007,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시절, 베를린 연대기』, 윤미에 옮김, 35쪽.

51) Heisenberg, Physics and Beyond, Harper Torchbook, 1972; 투안, 2007,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옮김, 대운, 17쪽에서 재인용.

고 느끼는지, 어떤 생활시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지, 부산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지 등.⁵⁵⁾ 이에 더해 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공간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지, 자신의 도시의 모든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았다고 느끼는지 살피는 것은 15분 도시의 계획 단계뿐만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도 필수적이다.

10. 15분 도시의 문화적 전환

문화란 바로 이런 경험을 만들어 내어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아 멈춰 세우고 그래서 도시의 속도를 늦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사람을 소외시키는 스펙터클과 같은 문화 상품, 문화 이벤트와는 무관하다.

지금까지 양적 개발과 성장에만 매달려 살아왔던 우리가 놓친 소중한 것들, 삶의 의미와 인간의 개별성과 고유한 개성, 생태와 돌봄, 공동체, 느낌의 미학 등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15분 도시다. ‘경제에서 문화로의’ 도시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라 바로 이런 의미이다. 문화적 관점으로 도시를 계획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공원과 산책로가 왜 필요한지, 로컬푸드가 왜 중요한지, 지역의 예술활동을 왜 지원해야 하는지, 복합문화공간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는 문화부만 단독으로 책임지는 분야가 아니다. 모든 행정부, 공공서비스에도 문화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문화를 여전히 문화부 사업, 문화정책에 제한되어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특히 15분 도시는 도시계획, 산업, 노동, 복지, 문화 등의 전 영역이 함께 목표를 공유할 때 실현 가능한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도시, 소외가 없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공정한 도시, 매력적인 도시는 각기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도시를 만드는 일을 어떻게 특정 분과가 할 수 있겠는가?

문화는 여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나 문화는 경제적 이득을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 모두 문화를 일상과 동떨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문화는 우리의 삶과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도시 문화, 지역 문화, 부산 문화, 청소년 문화, 여성 문화, 노동자 문화 등, 문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법을 생각해 보면, 문화는 늘 삶의 특정 국면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라는 단어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 역시 이를 방증한다. 문화가 사용되는 또 다른 방식은, 문화라는 단어가 뒤에 붙어 나오는 단어를 수식하는 방식이다. 즉 문화(적) 도시, 문화(적) 인간과 같은 식이다. 이때 ‘문화(적)’라는 단어는 그것이 수식하는 도시 혹은 인간의 형식, 양식, 스타일 등을 가리킨다. 15분 도시 사업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문화적’인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와 인간을 ‘문화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산업적, 물질적, 도구적 관점 대신, 상징적, 실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⁶⁾

15분 도시 사업은 한 도시의 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 각 개인에게 독특한 말하는 방식, 걷는 방식 등의 스타일이 있는 것처럼, 도시 역시 그런 스타일이 있다. 이런 스타일이 있는 도시가 사람들을 숨 쉴 수 있게 하고 살 수 있게 해준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도시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각 사람의 일상생활과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15분 도시의 문화적 전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도시사회학자 로버트 파크는 인간이 도시를 만드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55) 박상필 외, 2022,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구상>, 부산연구원, 95-99쪽.

56) 신지은, 2023, “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 에서 문화의 의미와 기능”, 『문화와 사회』 제31권 1호, 58쪽.

걸 일찍이 파악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 바람에 따라 자신이 사는 세계를 개조하려 시도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도시는 가장 일관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이다. 그런데 인간은 도시를 만들어낸 이상 운명처럼 그 안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임무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간접적으로 (도시를 만드는 일을 통해) 자신들을 거듭나게 했다고 할 수 있다.”⁵⁷⁾

‘우리는 어떤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가?’라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라는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은 문화의 총체라 할만한 도시를 만들었고, 도시를 만들으로써 동시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키고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적 인간이 될 수 있다. 문화적 인간이 되는 것은 결국 문화(여기서는 도시)를 전유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이를 짐멜은 객관문화와 주관문화로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인간이 만든 예술, 과학, 기술 등이 객관문화인데, 인간은 그 객관문화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기 삶과 세계에 대한 의미를 산출해냄으로써 주관문화가 발전한다.⁵⁸⁾ 따라서 도시를 전유하는 능력을 주관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유의 능력에는 도시에서 만난 낯선 이방인들과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도시에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숙한 지식과 상식에서 떠나는 것을 요청받는다. 좋건 싫건 도시에서 사람들은 낯선 이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이런 과정이 주는 달콤쌉쌀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저러 자기식으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타인과 새로운 질서를 구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적 역량이다. 이는 문화의 어원을 연상시키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문화(culture)의 어원은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colere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17~18세기에는 ‘토지를 경작하다’라는 의미였다가 나중에 ‘정신을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땅을 고르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인간이 자신의 정신을 경작하는 것은 분리 불가능한 것이다.

복잡성 사유를 통해 도시를 바라보고 도시를 계획해야 한다는 말이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연히 간단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가령 이제는 멋진 공원을 하나 만드는 걸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공원을 이용할 때만 그 공원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버림받고 실패한 공간이 되고 만다.⁵⁹⁾ 이것은 도시 그 자체에 적용가능한 말이다. 도시를 멋진 작품으로 만드는 게 다가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도시를 만들으로써 그리고 도시를 전유함으로써 자신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찾고, 자신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권리를 찾는 것이다. 도시를 전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 조직, 일상적 의례들, 지역적 지식, 버내쿨러 디자인, 브리콜라주 등, 이런 것은 이상적이고 질서정연한 도시 구조만큼이나 중요하다.⁶⁰⁾ 대부분의 도시는 최신 유행에 따라 비슷한 외관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도시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버내쿨러이다. 버내쿨러 디자인 혹은 버내쿨러 건축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성된 자생적이고 토속적인 디자인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한 도시의 특징, 인상을 만들어 낸다. 도시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것이 15분 도시의 문화적 전환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다.

57) 데이비드 하비, 2014,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력에서 정령운동까지』, 한상연 옮김, 에이도스, 26쪽에서 재인용.

58) 게오르그 짐멜, 2007,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 김덕영·배정희 옮김, 갈: 게오르그 짐멜, 2013, 『돈의 철학』, 김덕영 옮김, 갈, 2013 참고.

59) 제인 제이콥스, 위의 책, 132쪽.

60) 신지은, 2023, 위의 책, 56쪽.

11. 스트리트 스마트와 도시의 윤리

도시에는 다양한 강도의 연대와 공동체, 접촉의 수용과 접촉에 대한 기피가 공존한다. 연대의 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접촉의 수용과 기피의 수준 역시 늘 변화한다. 모레노의 『도시에 살 권리』는 리처드 세넷의 ‘도시 윤리학’을 언급하고 끝이 난다.⁶¹⁾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시의 공공 영역은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에는 도시의 윤리와 규범이 필요하다. 세넷 역시 도시의 윤리가 갖는 중요성을 간파했는데, 그가 보기에 도시의 사회성의 함양은 타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세넷이 사용하는 흥미로운 표현 중 하나가 ‘스트리트 스마트’이다. 이는 한 장소를 건드리고 듣고 냄새 맡기, 걷기의 지식과 대화적 실천을 의미한다. 이는 학문적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아니라, 거리 생활을 통해 얻은 정보가 많은 상태이다. 이와 유사한 것이 제이콥스의 통찰에도 등장한다. 거리 생활을 통해 아이들은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서로에 대한 공적 책임을 어느 정도 떠맡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했다. 이런 교훈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평범한 어른들을 보면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길 거리에서 위험한 장난을 치는 걸 보면 호통을 치거나 위험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등이 그렇다.⁶²⁾ 이것은 그저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유능한 도시인의 윤리가 전제될 때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이것은 도시의 죽음과 삶의 문제이다. 즉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바로 이런 전제 위에서만 논의할 수 있고 또 실현가능할 것이다.

계속 강조했듯이 새로운 도시계획은 도시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도시계획이 완성된 마스터플랜으로 제시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마스터플랜은 도시의 각 장소를 기능이 다른 장소들과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연결하는 닫힌 시스템으로 바라본다. 특히나 하향식 마스터플랜이라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열망을 둘러싼 토론이 사라질 가능성도 크다. 아무리 선의를 가졌다고 해도 마스터플랜은 도시에 대한 단순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유기체로서의 도시에는 날씨처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작동한다. 어쩌면 도시를 바라볼 때는 농부와 같은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적합할지 모른다. 앞서 문화의 어원이 ‘경작하다’라는 의미였다고 했던 걸 기억해 보면 이것이 전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15분 도시는 도시 개발 사업이 아니다. 특별한 건물을 짓거나 교통 체계를 바꾸는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연관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이를 다른 이들이 원하고 꿈꾸는 삶, 도시의 모습과 비교해 보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런 과정이 문화적인 것이다.

참고문헌

- 드보르, 기, 2014, 『스펙터클의 사회』, 유재홍 옮김, 울력.
- 르페브르, 앙리, 2011,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에코리브르.
- 메리필드, 앤디, 2018, 『아마추어』, 박준형 옮김, 한빛비즈.
- 모랭, 에드가, 2012, 『복잡성 사고 입문』, 신지은 옮김, 에코리브르.
- 모레노, 카를로스, 2023, 『도시에 살 권리』, 양영란 옮김, 정예씨.
- 벤야민, 발터, 2007, 『1900년경 베를린의 유년시절. 베를린 연대기』, 윤미애 옮김, 길.
- 서우석, 2023, <2023 부산문화컨퍼런스II 토론문 “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문화재단 자료집.
- 신지은, 2019, “상황주의 인터내셔널의 ‘상황’ 개념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 『문화와 사회』 제27권 2호.
- 신지은, 2022, “15분 도시,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 도시”, 『공간 그리고』 Vol. 46, 2022년 가을호.
- 신지은, 2023, “‘법정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서 문화의 의미와 기능”, 『문화와 사회』 제31권 1호.
- 유현준, 2015,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을유문화사.
- 제이콥스, 제인,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옮김, 그린비.
- 짐멜, 게오르그, 2007,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 김덕영·배정희 옮김, 길.
- 짐멜, 게오르그, 2013, 『돈의 철학』, 김덕영 옮김, 길.
- 최병두, 2011,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 『공간과 사회』 21(3).
- 최종렬, 2016, 『다문화주의의 사용. 문화사회학적 관점』, 한국문화사.
- 컨, 레슬리, 2022, 『여자를 위한 도시는 없다』, 황가한 옮김, 열린책들.
- 투안, 이-푸, 2007,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옮김, 대운.
- 하버, 데이비드, 2014,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한상연 옮김, 에이도스.
- Luc Gwiazdzinski, “Eloge de la chronotopie. Pour un urbanisme temporel et temporaire”, *Revue Collage*, n°2, 2013, Fédération suisse des urbanistes.
- Vincent Kauffman, 2001, *Guy Debord: La révolte au Service de La Poésie*, Librairie Arthème Fayard.
- Henri Lefebvre, 1992, *Elements de rythmanalyse: Introduction à la connaissance des rythmes*, Syllepse.
- Henri Lefebvre, 1996, *Writings on cities*, Blackwell Publishers Ltd.
- 박상필 외, 2022,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구상>, 부산연구원.
- 성은영 외, 2021,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AURI.
- 사이트플래닝, 2022, <15분 도시 부산 기본구상>, 부산광역시.
- <https://takebackthenight.org/history/> (검색일: 2023.11.27.)

61) 카를로스 모레노, 위의 책, 185~186쪽.

62) 제인 제이콥스, 위의 책, 123~125쪽.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연구

III.

15분 문화 도시민의 주권과 공공성

김동규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대표)

III. 15분 도시민의 주권과 공공성

김동규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대표)

1. 서론

이 글은 부산시의 15분 도시 계획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글이다. 비판이라는 말의 어원대로, 이 글은 부산시의 계획안에 대한 비난이나,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다. 오히려 이미 제출된 안을 토대로, 그 안이 놓치고 있거나, 결여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식을 지적함으로써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존 안이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기존 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 안을 먼저 점검하면, 기존 안은 다양한 개념들이 순서 없이 병렬되어 있다. 이는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출발점이 무엇인지 놓치고, 그저 좋은 개념들을 빠짐없이 나열하려는 데서 온 착오라 생각한다. 이는 물론 부산시가 제출한 안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무엇이 좀 더 근본적이고, 무엇이 좀 더 표면적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15분 도시는 비전과 관점이 부재한 비체계적 계획으로 출발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그 출발점을 ‘취약성’에서 찾는다. 도시의 행복에서 배제되고, 도시에서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 소위 취약한 사람에서 출발하는 도시론은 모든 이를 위한 도시론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도시라고 해서, 그 모두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취약한 사람들의 사정이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취약성이 그 지역의 장소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므로, 취약한 존재로부터 출발하는 도시론은 다양성과 복잡성 개념과 결부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취약한 존재에서 출발한 도시론은 취약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포용함으로써 문화 다양성, 차이들과의 공존을 중시한다. 아울러 취약성에서 출발하는 도시론은 취약한 타자의 상황에 대한 우선적 관심과 경청 없이 불가능함으로, 진정한 시민 참여형 도시론을 성취할 수 있다. 취약한 사람을 환대한 도시론은 도시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풀뿌리 도시론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다양한 거버넌스도 작동한다. 이렇게 작동하는 풀뿌리, 거버넌스는 기존 안이 추상적 선언이라는 당위적 언명 이상의 현실성을 발휘할 것이다.

이 현실성이 지향하는 최종점이 바로 인권을 구체화한 형태 중 하나인 도시권이다. 도시의 권리는 추상적 인권을 구체적인 공간으로서 도시, 집합적 관계의 결절점인 도시를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거주권, 이동권, 이주권과 같은 익히 아는 관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를 볼 권리로써 시선권, 도시에서 굶지 않을 권리로써 식량권¹⁾ 등 현재 많은 권리들이 발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권리들이 기존에 언명되지 않은 권리를 요구하는 시도, 그런 의미에서 초법적 시도(예컨대 스캷)와 실험을 통해 관철되고 있다. 그렇다면 15분 도시는 도로를 정비하고, 거점 시설과 공간을 조성

1) 식량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박용남, “제2부 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민중의 도시, 벨루오리존지”, 『도시의 로빈후드 뉴욕에서 몬드라곤까지, 지구를 바꾸는 도시혁명가들』, 서해문집, 2014.

하는 것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기존 안이 놓치고 있는 사람과 관계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고 발명하는 실험과 제도에 우선성을 두고 있다. 자기가 사는 도시에 대한 자기 결정권으로서 주권, 그리고 이 주권 행사를 조절하고 실험하는 공공성이 그것인데, 이러한 주권과 공공성을 시민 스스로 형성하지 못한다면, 15분 도시론은 도시 난개발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할 것이다.

2. 다양한 도시 개념

15분 도시 이전에 다양한 도시 비전이 있었다. 예컨대 **압축도시(compact city)**는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압축 도시를 말한다.²⁾ 반면 **생태도시(ecological polis)**는 사람과 자연, 환경이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최근 이 두 개념을 합하여 **생태적 압축도시(ecological compact city)**라는 개념도 등장했다.³⁾ 이와 유사하게 **슬로우 시티**도 있다. 이 도시 비전은 1999년 이탈리아 중북부의 작은 마을 그레베 인 키안티(Grevein Chianti)에서 시작된 슬로우시티(Slow City) 운동으로 느림과 여유 가치를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Slow’는 단순히 ‘Fast’의 반대가 아니라, 지역이 본래 가진 자연환경과 고유 음식, 전통문화, 시간, 계절, 우리 자신 등을 존중하고 느긋하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를 말한다.⁴⁾ 그밖에 **창조도시(creative city)**도 있다. 창조도시란 창조적 인재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 창조적 인재들이 예술적 영감과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여,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도시를 말한다.⁵⁾

최근에는 **소프트 시티(soft city)**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얀 겔의 제자인 데이비드 심이 같은 제목의 책으로 소개한 바 있는데, 소프트 시티는 “낮은 비용, 낮은 기술력, 크고 작은 현상, 분명하고 미묘한 용인성과 경향성”을 갖는 도시를 말한다.⁶⁾ 소프트 시티는 다양성, 밀도, 근접성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역시 압축도시 비전처럼 15분 도시와 많은 유사성이 있다. 소프트 시티는 인간관계의 개방성과 친밀성을 중시하고, 다양한 인간과 공간이 연결될 수 있는 도시를 표방한다. 이를 위해 규모는 작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정 기술을 활용하려 한다. 이에 더하여 고밀도, 저층, 다층성(multi-layer)에 기반을 둔 복잡성을 기본으로 한다. 나아가 도시는 지속 가능해야 하고, 나름의 독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도시에서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 받고, 거주가 자유로우며, 생태적인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동의 다양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소프트 시티는 인간적 삶과 생태적 삶에 유연한 도시다.⁷⁾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등장한 15분 도시는 15분 단위의 근거리 생활권 인프라를 구축한 도시로서, 탄소 중립,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한 생태-공동체 기반형 도시 모델이다. 하지만, 15분 도시와 같은 n분 도시 구상이 다른 도시론과 보이는 차별성은 시설과 공간 중심의 계획에서 일상생활과 시간 중심으로 계획의 관점과 기준을 전환했다는 점에 있다.⁸⁾ 우리는 여기서 이미 **시설과 공간 중심의 계획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이 활용하고 결정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 안은 15분 도시를 표방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 지점에서 다시 시설과 공간 중심의 계획으로 되돌아가는 퇴행 탄력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https://webzine.i-sh.co.kr/193>

3) 우에타 가즈히로 등 저(조동범 등 역), 『도시 어메니티와 생태』, 한울아카데미, 2013.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http://www.kchannel.kr/news/articleView.html?idxno=19947>

5) 이에 대해서는 <https://library.krihs.re.kr/search/media/imglist/ART000303389616?type=down>을 참고.

6) 데이비드 심(김진업 역), 『소프트 시티: 사람을 위한 일상의 밀도, 다양성, 근접성』, 차명시티, 2020, 209쪽.

7) 데이비드 심, 같은 책, 3-5쪽, 38쪽, 42-43쪽, 82쪽, 96-97쪽을 참고.

8) 성은영 외,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2021, 11를 참고.

이들 도시 아젠다가 공통적으로 표방하는 비전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가 모두에게 충분하고 다양하며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2) 도시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동적 공공성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언급된 공공성은 사적 영역에 속하고 사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도시 공공성을 위해, 도시민의 사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공공성이 형성되기 위해 도시민의 다양한 도전과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 문화와 결부된다. 그래서 이들 도시론은 3) 문화적 측면에서 충만하고 다양해야 하며, 도시민들이 다양한 강도와 밀도로 참여하여 도심 문화를 기획하고 실험하며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도시야말로 4) 인권적 측면에서 존엄한 생존/생계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으며, 5) 생태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넷제로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개념이 바로 도시권 또는 도시의 권리다. 여기서 도시의 권리란, 인권을 도시와 장소로 구체화한 개념이다. 여기에는 이동권, 주거권, 시선권, 식량권, 도시 이용권 등 다양한 하부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다양한 도시권 개념이 현재 발명되고 있다. 발명이라는 점에 착안하면, 도시권을 실험하기 위한 다양한 초법적 시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 대표적인 행동이 스콧(squat)이다. 15분 도시는 이런 도시를 위해 15분 생활권을 통해 도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5분 도시는 그런 점에서 모두의 15분 도시, 모두를 위한 15분 도시, 최선의 15분 도시를 표방한다. 15분 도시는 기존 도시 문제와 도시 비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런 점에서 15분 도시는 시간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도시론이라 할 수 있다.

3. 비판적 도시론

1) 비판과 공공성

비판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크리티케(kritike)에서 유래했고, 서구에서 의학 분야에서 최초로 사용된 말이다. 이 말은 어원상 인간의 건강 상태가 치명적인 위기에 이른 상태를 의미했기에 크라이시스(crisis)와 어원이 같다. 그래서 비판은 근본적으로 경각에 달린(위기에 처한) 환자의 생명을 회복시키려는 데 대한 관심을 최우선으로 한다. 영어의 크리틱(critic)이라는 말의 의미에 비판이라는 뜻 말고도 ‘임계’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비판은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의 ‘위기’와 ‘임계’를 직각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후 이 말이 문학이나 예술을 넘어 사회과학 분야로 확대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⁹⁾

비판은 어떤 사람의 나쁜 건강-심리 상태(건강 개선)나, 사회적-정치적 위기 상황(사회 비판), 나아가 특정 예술 작품의 작품성 부족 등을 개선하려는 관심(비평)에서 출발하는 **진단과 치료 행위**다. 그래서 비판은 우리가 흔히 비판이라는 말로 인식하는 비난이나 네거티브 공세와는 그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이 말을 일본이 번역 수입하면서 비난이나 네거티브 공세와 결부된 말로 활용되었다. 아무래도 일본은 자국 체제인 천황체제, 군국주의 및 제국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권위주의 문화를 보호하고 싶었을 게다. 이후 이렇게 변질된 의미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활용되었다. “너는 매사에 너무 비판적이야.”라는 핀잔은 오히려 칭찬인 셈이다.

9) 비판의 어원에 대해서는 문헌병,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비판이론』, 동녘, 1993, 185쪽, 위르겐 하버마스, 『후기 자본주의의 정당성 문제』, 종로서적, 1983, 3쪽, Jürgen Habermas, *Legitimationsprobleme im Spätkapitalismus*, Suhrkamp, 1977, S. 3을 참고.

그렇다면 비판이 없는 곳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한 사회에서 비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그 사회는 일단 표면적으로 조용하다. 그렇게 조용한 사회는 대개 특정 권위가 엄청난 위력으로 비판의 투명한 교류를 누르기 마련이다. 대표적으로 강력한 독재국가가 그렇다. 여기서는 타율적 검열이 작동한다. 반대로 강력한 독재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혐오나 편견 그리고 일상의 수직적 권력 등이 상시 작동하는 사회에서도 비판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곳에서 자기 검열이 작동한다.

『소문의 시대』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소문이 작동하는 이유를 이와 유사하게 설명한다. 소문이 작동하는 세계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가 없는 곳이라고 하며, 소문의 공식을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R=A \times I$ 다. 즉 소문(rumor)은 애매함(ambiguity)과 중요도(importance)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정보가 **중요**한데, 그 정보가 **애매**하면 **소문**이 퍼진다는 것이다. 음모론이 딱 이런 식이다. **소문이나 음모가 활개 친다는 사실은 그 도시나 국가가 투명하지 않으며, 공공성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소문을 막는 것은 애매성을 소거해 주거나, 특정 정보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면 된다. 전자와 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은 그 사회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 비판을 작동시키는 일이다.

예컨대 밀실 행정으로 생긴 음모론은 투명행정과 정보 공개로 해결하면 되고,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연예인의 사생활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쓸데없는 짓 입을 상기시키면 된다. 일찍이 국민국가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마키아벨리 역시 ‘공화국’ 중요 요소로 인민의 자유와 비판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¹⁰⁾ 그에 따르면 소위 조용한 공화국은 건강한 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인데, 한국의 정치 사회적 위기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진단’할 수 있다. 여전히 전시행정, 밀실행정, 정보공개 거부, 하향식 정책이나 낙하산 인사 등이 성행한 곳이라면, 제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입을 닫기 마련이다. 보완책으로 마련된 내부고발이 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지 않고, 청렴 교육은 하급 관료나 받는 것이라 여겨지고 있으니, 고위 관료와 친인척은 버젓이 비리를 저지른다. 그런 점에서 한국 역시 조용한 공화국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공공성을 담지한 문화적 공공성의 잠재력이 새삼 중요하다.

15분 도시 계획에도 이런 공공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 글에 비판적이라는 수사가 붙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심지어 n분도시 보고서나, 부산시 보고서에도 거버넌스와 풀뿌리를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왜 15분 도시라는 아젠다가 등장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는 충분히 짐작하지만, 그 짐작을 구성하는 내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더욱이 15분 도시라는 말을 접했던 나도 15분 도시라는 아젠다로 시민을 설득시키는 공적 과정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듯하다. 그렇다면 애매성을 해소하고, 15분 도시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물론 15분 도시론은 중요한 도시 아젠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중요한 도시 아젠다의 민주적 공공성을 높이려면, 그 개념 앞에 ‘비판적’이라는 수사를 달아야만 한다. 그래야 건강한 15분 도시 아젠다가 구축될 것이다. 어차피 15분 도시론도 이전 도시론에 대한 대안이자 비판으로 등장한 것 아니던가.

2) 프레임 바꾸기와 배제를 배제하기

부산시 예산은 대부분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많이 소요된다. 이미 굳어진 예산 활용의 관성이 인력을 구축하고, 제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심지어 ‘교육’을 포

10) 마키아벨리(강정인 외 역), 『로마사 논고』, 한길사, 2013, 87쪽, 140쪽 참고.

방하는 사업이라도 의회 내 일각에서 왜 인건비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5분 도시 아젠다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듯하다. 심지어 15분 생활권을 위해 도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편이 수립된 계획과 시행된 정책을 확인하는 데 가장 편리하고 분명한 방법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오래 쓰다 보면 **토건 행정에 혼육된 상상력**만 발동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15분 도시론은 15분 토건 도시론과 동의어가 되고 말 것이다. 예전 부산시 문화예산을 살펴본 바 있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건물 짓는데 활용되었던 경우를 생각하면,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토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폭설이 내렸을 때, 어디를 우선으로 눈을 치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 큰 길에서 작은 길로 눈을 치우는 기존 행정을 뒤집은 결과를 읽은 적 있다. 이 역발상 때문에 정작 출퇴근의 불편은 좀 늘었다 하더라도, 심각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진 않았으며, 오히려 의료보험 지출 비용이 줄었다고 한다. 작은 길을 우선해서 제설함으로써, 주로 작은 길에서 다치곤 했던 노약자의 부상이 줄었기 때문이다. 도시 계획이나 아젠다에도 이런 실험이 허용되어야 하며, 도시 계획이라고 무조건 하드웨어 구축에서 출발하지 않아야 한다.¹¹⁾

새로운 실험을 허용하지 않고, 토건 행정의 관성으로 출발하다 보면, 현장의 문제보다는 표준적 공간구성과 효율적 공간구성이라는 평균적 해법에 치우치게 된다. 이렇게 출발하면 구축된 물리적 구조나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 수준도 평균으로 전제된다. 예컨대 부산연구원이 제시한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구상에 나오는 7명의 ‘주인공’도 그렇다.

함께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30대 여성 영이는 새내기 엄마다. 자신의 현실이 확장된 삶을 꿈꾸는 20대 남성 뒤흔이는 각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다. 여행처럼 설레는 삶을 살고자 하는 40대 여성 옥구슬은 부산시민이 된지 3개월 남짓의 재택근무자이자 골드미스로 등장한다.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중시하는 30대 여성 안전이는 5살 여아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성이다. 즐거움을 만끽하는 삶을 살고픈 30대 여성 세희는 혼자 살면서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려는 30대 남성 현진은 아내와 퇴근 후 함께 주거지 인근에서 소비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다. 산책과 관조의 삶을 살고자하는 50대 남성 상이는 동네 주변의 공원과 자연을 만끽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7명이 전형적인 부산 시민으로 등장한다.¹²⁾

이상에서 전형이라 언급된 부산의 주인공들은 인구통계 상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영역에 속한 사람이다. 그나마 다양성을 반영하긴 했으나, 통계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한 영역, 평균으로 삼기 좋은 영역 내부에 속한 사람들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부산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셈이다. 이런 식으로 상상된 15분 도시에는 당연히 배제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저곳에는 그 어떤 취약한 존재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인도, 장애인도, 이주민도 없다. 계획서를 작성한 연구자가 일부러 배제를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저런 식의 상상력에는 배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견이 제시되면 으레 ‘배제되는 사람들 모두를 고려하며 어떻게 도시를 계획할 수 있느냐’는 항의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도시 계획을 제출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도 쉽게 따라붙는다. 하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런 ‘현실론’의 ‘현실’ 역시 특정한 인구 수준에서 배타적으로 결정된 ‘현실’일 뿐이라는 점이다. 배제를 유지하겠다는 완고한 고집에 다름 아니다.

11) 이렇게 출발한 꽤 재미있는 도시 실험들이 있다. 『우리에게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다』 / 『보이지 않는 여자들』 / <MSV 소셜 임팩트 시리즈> 등이 그렇다. 아울러 워싱턴 대학이 진행하여 시애틀에 활용하고 있는 사이드 워크 프로그램(시민참여형 이동권 보장 프로그램-<https://www.sidewalk-sea.cs.washington.edu/explore>)을 참고하라.
1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하라. 박상필 외,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 구상』 부산연구원, 2022, 135-143쪽을 참고.

이렇게 출발하면, 현실을 빙자하여 배제를 생산한 타협의 도시론이 등장한다. 15분 도시 역시 평균을 위해 소수를 배제하는 타협 또는 절충적 도시론으로 전략한다. 이런 도시는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도시로 자기 정체성을 굳히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하는데, ‘그 현실이 **누구를 위한 현실인가?**’다.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배제는 여전히 모든 도시 계획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념이다. 이 배제가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권을 배제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역시 바로 이 **‘배제’가 기준**이다. 여성친화도시, 생태친화도시, 장애인 친화도시 등은 그 반대로 **배제를 포용으로 전환하여 도시 정체성을 형성**했다. 최근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들,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사회권을 허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¹³⁾ 이 역시 배제를 포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다. 그렇다면 **배제/포함의 문제는 15분 도시 정체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기준**이다. ‘15분 도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시냐?’라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정작 현실을 내세우는 ‘현실론’의 기준도 이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3) 시간 - 공간 주권에 대한 문제

배제를 배제한 도시의 권리는 모두를 위한 최선의 도시를 상상한다. 15분 도시 역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상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15분 도시의 권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권’이다. 주권의 문제는 결정권의 문제다. 국가가 아닌 일상을 사는 도시민에게 주권은 바로 내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내가 강간을 당하지 않거나, 폭행을 당하지 않는 것을 ‘신체적 자기 결정권’이라 하지 않는가. 이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신체 주권’이다.

그런 점에서 15분 생활권을 기본으로 한 도시론은 그 도시를 사는 사람이 자신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즉 시간주권과 공간주권을 15분 도시민이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가 15분 도시론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15분 도시는 그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려는 도시 운동과 정책의 일환이다. 그리고 도시에 대한 기본 계획안이나 도시 구상이 실제로 모든 도시민에게 그 권리를 돌려주느냐 아니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공간과 시간에 대한 주권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증명하기 위해 1980년대로 돌아가 보자. 1980년대 독일에는 우리가 사는 일상의 세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선언이 있었다. 1980년대 독일의 하버마스가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체계(경제)와 행정체계(국가)로부터 우리가 사는 풍부한 생활세계를 잠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를 줄여서 ‘생활세계 식민화 테제’라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체계의 공격을 생활세계의 공공성 증대로 막아내자는 수세적 전략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¹⁴⁾

13) <미친 존재감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https://actmediactistory.com/1750/>
https://www.sfac.or.kr/theater/WZ020600/webzine_view.do?wtIdx=13208/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1162037005>

기획자인 손성연은 공동체가 안전하게 흘러갈 때, 개별적 존 존재가 위협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은 “장애인들이 모두 쫓겨난 역사 안에서, …… 친절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이제부터 열차는 정상 운행합니다.” 장애인들을 내쫓고 정상 운행한다는 열차, 정상을 되찾은 나날들이, 나는 정말로 무섭다.” 라고 한 고병권의 인용문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2142041015>

14) 함부르크에서 일어난 두 사건 파크픽션과 갠베이어벨 점거 사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동규, 『함부르크의 두 가지 공공미술 사례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테제의 양상』, 『독일연구』 vol. 33, 한국독일사학회, 2016을 참고. 김동규, 『공공미술과 장소서사: 함부르크의 파크 픽션을 중심으로』, 『도컬 서사와 제권』, 소명, 2017을 참고.

그 주장이 등장한 지도 어언 40년 남짓이다.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 독일 같은 경우는 생활세계가 체계에 의해 잠식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궁지에 몰린 생활세계민들에게 탈환되는 일들이 빈번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쿼트(squat), 바로 **불법 점거 운동**이다. 파리에서는 주거지 렌트 비용이 치솟자, 파리 시민과 학생들이 텐트로 공공장소를 점거하는 일들이 있었다. 함부르크에서는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합세하여 세습임대(Erbepacht)라는 새로운 제도를 발명하기도 했다. 작업 공간과 안정적 연봉이 없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도시에 공공연히 펼치는 대가로, 국가와 시는 그들에게 싸게 공간을 임대해주고, 전시를 지원 하는 제도다. 그리고 그가 이사를 가면 거기에는 예술가만 세습적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가장 잘 된 독일의 도시가 베를린이다. 부산에도 또따또가라는 곳이 있다.

15분 도시는 이처럼 도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공간에 대한 주권과 시간에 대한 주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원래 그들의 권리였던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이다. 15분 도시는 이 주권의 행사를 위해 공간과 시간을 시민들의 일상에 맞게 잘 분할-연계해야 한다.

그래서 15분 도시는 단순 공간의 분할과 연계만을 통해 15분을 확보해 주는 것을 넘어선다. 실제로 도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간 주권(discretionary time=sovereignty of time)을 보장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정작 공간과 건물 그리고 길과 통로 등을 잘 구축하여 15분 환경을 제공했다고 해도, 정작 시민들이 자기 도시를 활용할 시간이 없다면, 결국 그 공간이나 건물은 텅 빌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두를 위한 15분 도시는 모두에게 시간-공간 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부산시민공원 11시 폐쇄는 그런 점에서 11시 이후의 삶을 사는 부산시민의 공원 사용권을 박탈하는 셈이다.¹⁵⁾

심지어 이 시간-공간 주권은 그 사회의 빈/부 문제와 같은 계급 문제를 넘어서, 젠더 문제나 인종 문제 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차별금지 도시와 결부된다. 시간주권만 해도 그렇다. 남성과 여성 또는 비남성 중 누가 시간빈곤에 허덕일까? 여성 중에 미혼이나 비혼여성 대 기혼 여성 중 누가 시간빈곤에 허덕일까? 기혼 여성 중 무자녀 여성 대 유자녀 여성 중 누가 시간빈곤에 허덕일까? 유자녀 여성 중 이혼한 여성과 이혼하지 않은 여성 중 누가 시간빈곤에 허덕일까? 지금 거론된 물음 중에서 시간이 없는(시간빈곤) 사람은 누구일까? 여기에 장애나 인종 문제와 같은 교차 차별 요소가 더해진다면, 그의 시간과 공간 주권 행사의 상황은 어떨까?

15분 도시가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가 되려면, 시간주권이든 공간주권이든 형식적으로 보장된 수준을 넘어 서야 한다. 실제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이 권리와 권력을 누리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15분 도시를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에게는 결코 15분 도시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15분 도시는 도시민의 시간-공간 주권을 보장하는 경제구조 구축과 아울러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 등과 긴밀히 결부되어야 한다.

결국 15분 도시론은 시-공간 주권 역시 주권이 빼앗긴 취약한 존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5분 도시론은 도시를 개량하자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도시를 뒤엎어야 한다는 혁명적 도시론이다. 2010년 시작된 원도심예술창작공간 또따또가는 1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나, 2020년 운영 예산 삭감과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운영 여건에 처해 있다. 15분 도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가 될 것인지도 궁극하다. 취약한 예술가들이 작업하고, 이를 알리고, 교류하는 공간이 사라진다면, 그 15분 도시는 누구를 위한 도시이며, 어떤 도시가 될까.

15) 공공장소의 폐쇄 문제는 다음을 참고. <https://www.pps.org/article/what-is-placemaking>

4) 수동성과 하향식의 결을 끊어내기

처칠이 했던 말이 있다. ‘인간이 공간을 만들면, 이후 공간이 인간을 만든다.’는 것인데, 다수의 도시 서적이 나 건축 서적이 처칠의 말을 많이 인용한다. 하지만, 저 말은 사람을 절반만 본 것이다. 저 말에 간과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미 구축된 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공간을 파괴하거나 다르게 변용하기도 한다.** 전자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후자는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전자의 입장을 따르다보면 하향식(top-down) 정책을 만들기 쉽고, 후자의 입장을 따르다 보면 상향식(bottom-up) 정책을 만들기 쉽다.

최근 건축가들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 때, 사람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오래 관찰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안 짚에게서, 데이비드 심에게서 그리고 정기용 같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경우들을 보았다. 이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떤 공간과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는지를 설문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 생활하는 직접적 패턴을 통해 공간의 형식을 추출하려던 시도다. 이것 역시 일종의 상향식 공간 구성을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5분 도시와 관련된 기존 자료를 보면 대체로 시민을 수동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다만, 형식적으로 시민의 능동성을 언급해야 하는 거버넌스 항목에서는 시민을 능동적으로 봐야 한다는 추상적 주장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능동성에 대한 언급은 원론적 차원에 그쳐, 추상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주어인 공간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변용하고 있으며, 그 공간을 변용해 쓰는 과정에서, 그 공간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한 ‘소망’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평균을 드러내는 통계를 넘어서야 하며, 단순히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거나, 시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단순한 주장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평균으로 거버넌스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거버넌스로 평균의 거침을 디테일하게 보완해 가야 한다. 그러나 부산시가 제시한 15분 도시 계획(안)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

이처럼 시민을 수동적으로 보고 제출된 계획안은, 시민의 능동성을 반영하지 않는다. 기존 15분 도시 계획은 원칙적으로는 ‘풀뿌리(상향식)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 계획안을 살펴보고, 그리고 아젠다 제안의 형식적 형태를 살펴보면, 정작 **풀뿌리(상향식)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향식으로 주장’**되고 있을 뿐이다. 1) 15분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공약 자체가 이미 풀뿌리가 아니었다. 2) 시장의 공약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만들라는 ‘지시’로 만들어진 부산연구원의 보고서 역시 풀뿌리가 아니다. 그래서 3) 이 보고서를 구체화하기 위해 ‘외주를 받은’ 업체가 제안한 15분 도시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이나 정보에도 풀뿌리 정보나 데이터가 거의 없는 이유다. **풀뿌리(상향식)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정작 풀뿌리가 없다.**

실제로 사람들이 도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어떻게 변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데이터라도 있으면 좋은데, 흔히 구할 수 있는 형식적 통계 말고는 시민들에게 밀착해서 얻어낸 데이터는 없었다. 대부분의 지자체 연구원의 연구 업무가 이런 식의 관성이다. 이런 관료주의 형태의 혼용된 관성과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예컨대 부산시 보고서가 사례로 들고 있는 토목 생활권의 모델을 토목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 실제로 보고서 그림에 나오는 연산도서관 쪽 어린이복합문화공간과 과정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HAHA센터가 있는데, 정작 거기에는 거대한 블록의 모델촌이

성황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 물론 보고서에는 이 블록의 문제를 표기하고 있지 않다.¹⁶⁾

이어서 니코노미로 언급된 토목시장은 토목 사람과 연산동 사람들에게 ‘피사의 사탑’으로 불리는 곳이다.¹⁷⁾ 왜냐하면 시장 건물 전체가 지반침하 탓인지 눈에 보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은 상업적 잠재력보다 안전을 먼저 우려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여기 표시된 공간의 기울기와 보도의 상황을 생각하면, 토목 생활권은 성인이 자전거로 이동하기에 매우 좋지 않은 공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생활권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센터를 설치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나는 이를 다시 묻고 싶다.

5) 최선의 도시 VS 평균의 문제

도시 사용의 주체를 통계적 평균 또는 그 평균 안의 다양성으로 잡더라도, 부산시의 기본 보고서와 위탁 연구를 통한 보고서에는 이동장애인 문제는 누락되어 있다. 주로 행정이나 선거 운동과 같은 경우 통계 분포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서비스나 운동의 대상으로 삼는데, 15분 도시민의 기준도 이렇게 잡아버리면, 도시 사용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다. 이 역시 행정 관성이다. 앞서 살펴본 부산시의 부산형 15분도시 계획구상을 다시 살펴보자.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7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¹⁸⁾

1. ‘함께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30대 여성 영이’는 새내기 엄마다.
2. ‘자신의 현실이 확장된 삶을 꿈꾸는 20대 남성 뒤희’는 각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다.
3. ‘여행처럼 설레는 삶을 살고자 하는 40대 여성 옥구슬’은 부산시민이 된지 3개월 남짓의 재택근무자 이자 골드미스로 등장한다.
4.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중시하는 30대 여성 안전’이는 5살 여아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여성이다.
5. ‘즐거움을 만끽하는 삶을 살고픈 30대 여성 세희’는 혼자 살면서 다양한 문화적 취향과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다.
6.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려는 30대 남성 현진은 아내와 퇴근 후 함께 주거지 인근에서 소비생활을 즐기는 사람이다.
7. ‘산책과 관조의 삶을 살고자 하는 50대 남성 상이’는 동네 주변의 공원과 자연을 만끽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주인공들은 인구통계 상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분포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이다. 이런 식으로 상상된 15분 도시에는 당연히 배제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취약성에 둔감한 이 보고서에는 노인도 장애인도 이주민도 없다. 실제로 n분도시를 다루는 다른 연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시설 범위와 접근성 기준은 시설 공급의 방향에서 절대적인 서비스 인구보다 소외인구의 개선을 우선시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입지와 실행여건이 양호한 곳에 지원이 집중되기 쉬운 구조이다.”¹⁹⁾

16) 한영숙 외, 위의 보고서, 178-179쪽 참고.

17) 한영숙 외, 위의 보고서, 178-179쪽 참고.

18) 박상필 외, 위 보고서, 143-135쪽 참고.

19) 성은영 외, 위 보고서, III를 참고.

통상 15분 도시와 같은 시간도시론이나 전략에는 기본적으로 ‘배제 없는 도시’에 대한 관점이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기 때문이다. 모레노의 언급을 참고해도 그렇고, 모레노가 참고하고 있는 르페브르를 참고하면 더욱 그렇다. 심지어 15분 도시와 같은 시간도시 전략이 적극적으로 표명된 이유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안다면, 노인, 장애인, 노숙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나 난민과 같이 취약한 존재의 문제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²⁰⁾ 우리는 여기서 도시론의 출발로 돌아가야 한다. 최근 도시론의 등장과 기원을 살펴보면, 그 기원 중 하나가 르페브르의 ‘도시권’과 관련되어 있음을 본다. 그의 도시권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리적 구조로서 ‘도시’를 고려한 것이다. 적어도 르페브르에서 출발하는 도시는 최선을 상상하는 도시를 기본으로 한다. 그가 도시를 ‘집합적 작품’으로 여겼다는 점도 그 연장선에 있다. 그는 ‘너희 일상을 작품이 되게 하라.’라는 선언과 ‘모든 기술이 일상의 이러한 변모에 기여하게 하라’는 선언에서 출발하여, 그 작품들이 생활하는 도시 역시 하나의 집합적 작품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²¹⁾

이런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도시를 설계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겠지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취약한 사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런 계획(안)은 결국 **‘배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을 생산하기를 ‘허용’하는 상상**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는 시도로 도시계획을 출발시켰더라도, 정작 그 계획이 실현된 결과 어쩔 수 없이 배제를 생산하는 일은 모든 계획이 당면하는 숙명이다. 이후 도시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이를 고쳐나가면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며 출발하는 도시론은 배제의 폭력을 행사하는 도시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평균에서 출발하는 도시론은 무척이나 안일한 시도이며, 배제와 차별을 행사하는 폭력이다.**

장애인 인권을 위한 가장 중요한 모토 중 하나가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해 그 어떤 것도 하지마라.”**다. 이것만 보더라도, **취약한 존재에 대한 배제는 도시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 시도라** 할 수 있다.²²⁾ 왜 어떤 이들은 권리에서 노골적 또는 은밀한 배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15분 도시가 도시민의 일상과 관계한다면, 취약한 존재가 빠진 구상은 이들에게 일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시는 그런 일을 버젓이 물리적으로 구현해도 되는가. 그것도 도시의 권리에 기반을 두고 출발한 15분 도시에서 말이다.

이에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은 다시 타협의 도시를 제안하는 것이며, 배제와 차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원천 봉쇄의 오류’다. 상황이 이러니 이동장애인들이 지하철에 눕는 일이 생긴다. 이들은 노골적인 차별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한 권리를 파기당하는 파렴치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다.

APEC나루공원 앞 도로 역시 공원 접근을 차단하는 물리적 장치라서 지하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예산 문제라는 현실론으로 거부된 바 있다. 결국 이 공원은 유모차를 탄 아이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원이 되었고,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 실패한 공원이 되었다. 일부 도로 지하화 이야기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아마 앞으로 처음에 만들었다면 들이지 않았을 예산을 사용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 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한다.

20) Editions de L' Observatoire, "Urban life and proximity at the time of COVID-19" 『더 나은 도시 생활을 위한 근접성 혁명』, Editions de L' Observatoire, 2020, 수정 번역본 p. 15를 참고. 카를로스 모레노(양영란 역), 『도시에 살 권리: 세계도시에서 15분 도시로』, JEPNGYE-C PUBLISHERS, 2023, 5쪽, 15쪽, 190쪽을 참고.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2010, 28-29쪽, 39쪽을 참고.

21) 일상적 삶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앙리 르페브르(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朴貞子 역), 主編·一念, 1990, 274쪽을 참고. 작품으로서 도시에 대해서는 Henri Lefebvre(E. Kofman, E. Lebas ed. & trans.), "Right to the City", Writings on Cities, Wiley-Blackwell, 1996, pp. 65-66을 참고 또는 강현수, 위의 책, 28-29쪽, 39쪽을 참고.

22)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김동규, 『장애와 역량적 접근 그리고 공공성의 변증법』, 『한국문화논총』 제79집, 2018, 18쪽을 참고하라.

15분 도시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맥락에서 등장했다는 것을 상상하면, 보고서에 이주민에 대한 고려가 빠진 것도 심각한 문제다. n분 도시를 취약성을 고려하여 비판적 접근을 하고 있는 문헌에도 이주민 문제가 빠져있다.²³⁾ 예컨대 전국 n분도시를 조사한 성은영 외의 보고서에 따르면 병의원이 도시 규모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 사태 때, 부산의 이주노동자들은 마스크 구매에 상당한 애로를 경험했고,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거의 없었다. 예컨대 서울은 인구 100만에 1개의 공공의료원이 있는 반면, 인구 300만이 넘는 부산은 현재 단 1개의 공공의료원이 있을 뿐이다. 그것도 이주민이 가기에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 문제와 관련해서 이주민의 안전권과 건강권은 보장되지 않으며, 이는 15분 도시의 대의를 심각하게 해치는 요소다. 다른 도시의 여건은 어떨지 궁금하다.

여기서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15분 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여야 하고, 그렇다면 배제를 생산하지 않는 최선의 도시를 전제해서 제안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선의 도시 전략은 그 최선이 비록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후 지속적으로 현실을 견인하고, 현실을 변화시키도록 요구하는 ‘현실적인 이상’이며, 그런 점에서 ‘비판적인 이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비판적이어서 안되면, 왜 최선을 상상하면 안 되는가.

6) 일상과 과거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내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1980년대 부산은 동네에서 모든 것을 접할 수 있었다. 인근에 옷집이 있었고, 단골 짜장면집과 같은 식당도 있었으며, 재래시장이 있었다. 골목과 공터가 넓어터졌고, 많은 사람들과 친구들이 거기서 만나고 내일을 기약하며 놀았다. 주변에는 금성사 같은 전자제품상점, 소위 전파사도 있었다. 가구점 같은 상점만 해도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있었다. 아프면 늘 들리던 동네 의원, 마을 아저씨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점빵 등이 있었다. 내게 15분 도시는 오히려 1980년대의 풍경이다.

이를 반대로 상상하면 현재 우리가 로컬에 침윤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산업과 경제구조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지금은 미국식 소비 구조를 중심으로 한 삶과, 한국형 택배형 소비생활로 우리가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식 소비 구조는 자동차로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가득 싣고 돌아오는 형태를 말하고, 한국형 배달 중심의 소비 생활은 말 그대로 집을 나가지 않고서도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택배형 라이프 스타일을 말한다. 15분 도시로 동네를 충분히 향유한다는 것은 이러한 생활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on/off 라이프 스타일에 새로운 균형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15분 도시는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려는 토건 중력장 안으로 함몰되기 마련이다.

이런 입장에 기대어 이야기를 좀 더 진척시키자면, 15분 도시를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과거의 도시 인프라나 정보 그리고 관습 등이 흔적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 내가 15분 도시로 상상하는 1980년대 처럼 말이다. 이를 발굴, 선별, 재생하는 것은 동네 사람들의 기존 관성을 활용하기 위해 좋은 자원이 되므로, 새로운 공간이나 건물로 새로운 관성을 유도하는 일보다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 이는 도시의 기억을 다층적(multi-layered)으로 새기는 자원이 된다. 예컨대 예전의 빨래터가 하던 일을 빨래방이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산연구원 안’에는 이런 데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다층성을 ‘적극 활용’하려는 구상이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예전에 무엇이 있었고, 현재 무엇이 있는지, 그 층들과 공간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사람과 공동체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역학을 고려한 접근이 없다.

23) 성은영 외, 위 보고서, 112쪽을 참고.

기존 시설과 공간, 이미 있는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시행되는 사업이라면, ‘15분 도시는 장소에 맞겠거니……’하며 전문가가 형식적으로 추측한 시설만 설치하는 토건 사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간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분할하는 일은, 이전에 있던 자원이 갖고 있는 15분의 가능성 발견하고 견인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전제해야 한다. 동시에 15분의 도시 문화 기획으로 이전에 있던 자원에 기대어 그 도시에 맞는 15분 도시라는 장소성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택배형 삶에서는, 출퇴근의 거리가 먼 상황에서는, 시간빈곤에 빠진 삶에서는, 자동차 중심의 삶에서는, 사람들이 거리를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건물이나 센터를 만들어도, 사람들은 정작 그 건물이나 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토목 생활권의 경우도 충분히 그런 상황이 예상된다. 좀 거칠게 예를 들자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골목에 차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는 실험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 그 도로 중간에 로컬푸드 마켓 등 간헐적 시장을 형성해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리를 경험하게 하면, 사람들은 이후 그 거리 이상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파리에 머물던 호텔 앞 경전철 고가 아래에서 300-500미터 가량의 로컬 푸드 3일장이 열리는 풍경을 본 적이 있다. 그 시장을 걷고 물건을 보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눈을 맞추었던 경험은, 그 어떤 파리에 대한 경험보다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 덕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그저 지나치기만 할 통로(path)의 경험을 매우 풍성하게 만들었다. 15분 도시는 이런 경험을 도시민에게 먼저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들은 자기 동네가, 그리고 자기 도시가 바뀌기를 비로소 소망한다. 정책의 수혜자였던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도시를 바꾸려는 경험도 여기서 나온다.²⁴⁾

그런 점에서 15분 도시는 예전의 가능성을 견인하는 것이자, 예전의 가능성을 되살리는 일이며, 거기서 새로운 기획과 실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온고지신의 장이다. 예전의 가능성이 새로운 가능성과 교차하는 가운데, 그 도시는 자신의 장소성을 형성하기 위한 소중한 자원을 얻게 된다.

소결 : 모든 이(비인간존재 포함)의 필요에 부응하는 15분 도시

비판적 15분 문화도시론은 배제를 배제하는 최선의 도시론을 구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아울러 동원하고, 강제하는 15분 도시가 아니라, 취약한 사람과 존재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는 15분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는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도시 운동이어야만 가능하다.

4. 비판적 15분 문화도시론

1) 개념 잡기 : 문화, 시간 - 공간 - 매체 그리고 비판

15분 도시를 15분 문화도시로 잡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의 개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양의 문화 개념이 경작이라는 농업문화와 관계가 있고, 동양의 문화 개념이 문자 문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문화는 모종의 인간적 삶을 가꾸는 것과 결부될 수 있다. 물론 이 인간적 삶에는 인간만을 위한 삶만이 포함되지 않는다. 비인간존재와 지속가능한 공존 역시도 인간이 고려하고 있기에, 이 존재들과의 공존 역시 인간적 삶에 포함되어야 한다. 15분 문화도시론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24) 내가 부산의 동구에서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지도한 지 5년 남짓이다. 어린이 청소년 의원들은 이제 동구를 자신의 관점으로 바꾸는 제안을 조례를 만드는 일로 하고 있으며, 그중 몇몇 안은 관찰되었고, 현재 관찰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그 관찰되는 안 중에는 어린이 청소년이 전문 심의 위원으로 포함되어 의견 관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15분 도시론 역시 기능적 도시민을 생산하는 기계 공간이 아님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도시를 충만하게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15분 도시론은 곧 15분 문화 도시론**에 다름 아니다. 이 경우 **시간과 공간**은 도시민의 문화적 삶을 떠받치는 **기본적 구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는데, 이런 기본 구조 위에서 도시민은 나름의 15분 리듬을 구성하며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나는 도시의 시/공간과 도시민 사이에서 도시의 삶에 리듬을 부여하는 일종의 유/무형의 장치를 **15분 도시 매체**라 부르려 한다. 매체는 이 둘 사이에서 최선의 삶을 위한 인간적 역량을 보조하고 증대시킬 수 있다. 이 매체는 ‘제도’가 될 수도 있고, ‘건물’, ‘공간’, ‘이동 수단’ 등 다양한 것들일 수 있다.

이런 리듬이 효과적으로 형성되고 운용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비판’이다. 한국에서 비판이라는 말이 좀 거칠고 부정적인 의미로 들린다면, 이를 15분 도시 비평이라고 말해도 좋다. 어차피 비판이나 비평은 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한 것일 뿐이다. 아무튼 15분 문화도시 비판 또는 비평은 15분 도시를 건전하게 개선하는 치료와 진단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비판적 문화 도시론은 시/공간의 구조와 매체를 통해 펼쳐지는 문화적 삶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의 리듬의 문제를 점검하고 진단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더 좋은 15분 도시를 위한 문화적 배경을 조성하려는 비판적이며 대안적 작업이다. 아울러 기 제출된 계획안을 좀 더 완성도 높게 개선할 수 있는 시도다. 이런 배경에서 사람들은 생활주권을 행사하고, 도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를 통해 도시를 사용하고 실험하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도 획득할 수 있다.

2) 주권과 도시

- 시간 주권

실제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다양한 형태를 참고하는 것도 15분 도시를 위해 중요하지만, 정작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표면의 시간이 아닌, 시간이 작동하는 메타 구조(이면의 근본적 구조)를 고려하여 진정한 삶의 결정권으로서 시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시간 결정권을 시간 주권이라고 한다면, 15분 도시를 사용하는 도시민의 시간주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사람들은 15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간에 대한 결정권에도 **사회구조**가 스며있다. 따라서 도시민에게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분배되어 있는지, 그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시간 빈곤에 빠졌는지, 시간 빈곤 인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멀티 플레이어, 멀티 테스킹, 멀티 잡의 시대에 도시민 대부분이 **시간 빈곤**에 빠져 있다. 그중에 자발적 결정으로 시간 빈곤에 빠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를 참고하여 **시간 취약 인구를 산출해야 한다**.

예컨대 **워케이션이 어떤 이에게는 놀면서 일하는 여유겠지만, 다른 이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쉴 때도 일해야 한다는 과로다**. 시간 취약인구를 산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크로노 어바니즘을 표방한다면**, 이런 기본 작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시간 주권이 취약한 사람은 15분 도시를 만들어도, 그에 게 그 도시는 결코 15분 도시가 될 수 없다**. 보고서에도 이런 접근이 반드시 첨가되어야 할 이유다.

이런 분석이 진행되고 난 다음 시간의 다양성(크로노스, 카이로스, 아이온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도시 공간이 새기고 있는 시간의 다층성(multi-layer)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리듬을 분석하는 부산형 도구를 고안해야 한다. 이 모두를 종합하면 부산형 15분이라는 시간 개념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 공간주권

시민이 도시를 사용하고 변용할 수 있는 권리, 곧 시민이 자신의 공간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간주권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장과 행정 체계에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일이며, 동시에 자기 삶의 리듬을 되찾는 생활세계의 탈환이다. 접근성(근접성+이동성+연계성)과 공공성(개방성+공유 가능성)을 고려한 15분 도시도 공간주권과 시간주권 행사를 위해 도시 공간의 유기적 분할을 모색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공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다양한 공간과 거점을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풀뿌리 지역 공간(grassrooted locality) 및 기존 거점을 조사해야 한다. 이는 단순 설문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공간과 무의식적으로 관계하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병원-도서관-어린이집 같은 전형적인 공간도 있겠지만, 마을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모이는 비전형적 공간과 장소도 찾아야 한다.

예컨대 복지관, 문화센터, 문화관, 보건소, 주민센터, 마을건강센터, (작은) 도서관, 공원, 놀이터, 빈집, 폐교, 고가도로 아래 유휴 공간이나 다양한 굴터 등 정해진 용도로도 정해지지 않은 용도로도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는 않지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공용 공간도 찾아야 한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주민들의 생각과 견해를 물어야 한다. 그러면 형식적 설문조사와는 다른 답들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기 제출된 계획안을 주민들에게 보여줘도 좋다. 그러면 주민들은 그 계획안을 보고서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동네에 대한 다른 경험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기 제출된 계획안은 주민에게 아주 효과적인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방법이 풀뿌리다. 그래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소와 공간을 잇고, 결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도시를 단순히 양적 공간이 아니라 질적인 장소로 보게 할 것이다. 어쩌면 이 조사 단위도 15분 단위로 쪼개야 할지 모른다.

- 공간 대 장소(site vs place)

소위 장소는 인간 실존의 근본적 토대라 할 수 있다.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 산다는 것이다. 인간답다는 말은 곧 자신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램프는 장소성을 엄밀히 정의할 수는 없으나, **감각지각의 통합성**으로 드러난다고 본다. 이러한 장소는 공간과 다른데, “공간은 자신의 의미를 특정한 장소로부터 얻는다.” 장소는 의미가 부여된 공간, 즉 형식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객관적 크기로서 공간이 아니라, 특정 존재나 집단에게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갖는 공간을 말한다. 그래서 특정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배경이나 자원이 된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가브리엘 마르셀은 ‘개인은 자신의 장소와 별개가 아니다. 그가 바로 장소이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한 바 있다.²⁵⁾

장소 개념에는 특정 공간을 활용하는 집단의 정체성도 포함한다. 물론 그 집단 정체성은 배제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파악할 때,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을 배제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좋다. 배제와 집단 정체성 간의 관계는 일찍이 사회학의 조상 격인 뒤르케임의 주요한 방법론이기도 했다. 그들을 통해 우리가 정의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 장소성이 사라지는 경험, 즉 무장소성의 경험이 많다. 덕분에 도시는 대부분 무의미한 이동의 통로로만 전략하기 십상이다. 이에 반해 15분 도시는 현대인에게 다양한 장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생생하게 돌려주려는 체계적 시도다.

25) 에드워드 램프(김덕원 외 역),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16, 25쪽, 35쪽 104쪽 순서대로 인용.

3) 도시의 흐름과 주체

- 취약한 주체의 귀환과 모두의 도시

취약성(vulnerability), 다시 말해 상처받을 수 있음이라는 개념은 독특성(singularity)-개별성(individuality)-특수성 또는 일반성(particularity or generality)-보편성(universality)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다. 모든 존재는 몸을 가졌고(보편성1), 몸을 가진 모든 존재는 상처받을 수 있다(보편성2). 따라서 이들은 상처받지 않고 살 권리가 있다(보편성3). 중요한 것은 이 상처가 오직 나만(singularity)의 상처일 수도 있고, 특정 사회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나 한 사람의 개인적(individual) 상처일 수도 있으며, 내가 속한 집단의 상처 또는 집단 내부의 일반적인 상처(particularity or generality)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취약성이라는 개념은 독특성-개별성-특수성 또는 일반성에 이어 보편성(universality)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²⁶⁾

도시의 권리 역시 모든 도시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편성을 갖지만, 통상 인권이 가장 취약한 바로 그 존재를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아우른다. 최선의 도시를 상상한다는 것, **배제를 배제한다는 것이 도시의 권리라면, 도시의 권리는 평균의 존재가 아닌, 취약한 존재를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출발해서 모든 도시민의 시간주권, 공간주권, 생활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예컨대 벤치가 없다면, 또는 그런 벤치나 유휴 공간에 요철이나 가시가 있다면, 노숙인과 장애인, 여행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리에서 쉴 수 없다. 최근 대학에서 도시 수업을 진행하고, 동구에서 5년 남짓 어린이 청소년 의회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거리에 벤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였다.

아래는 캐나다의 유니버설디자인이 개입된 어반 퍼니처로서 벤치고 나머지 두 사진은 각각 중국과 프랑스의 벤치 또는 유휴 공간이다. 사람들은 어느 도시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도시를 향유할 수 있을까. 노숙인과 장애인과 여행자를 배제하고 무시하는 도시에서는 누가 15분을 존엄하게 향유할 수 있을까?



[그림 2] 캐나다의 노숙인을 위한 벤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어반 퍼니처(출처:https://www.raincityhousing.org)



[그림 3] 프랑스의 노숙인 방지 벤치 (출처:https://v.daum.net/v/AIYD02NUV7f=p)

[그림 4] 중국의 노숙인 방지 유휴공간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120705000091)

26) 취약성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Judith Butler, "Rethinking Vulnerability and Resistance", Vulnerability in Resistance, Duke University Press, 2016. Adriana Cavarero, Horrorism: Naming contemporary violence, Columbia Uni. Press, NY, 2011.

이 취약한 주체를 배제한 흔적을 좇아가면, 그 도시의 폭력적 정체가 드러나는 반면, 인권 도시는 그 배제를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도시 정체성으로 표방하는 대의를 얻을 수 있다. 여성 친화, 장애인 친화, 생태 친화 등등 친화를 표방하는 도시명 앞에 붙은 이름들이 이전의 배제를 철회함으로써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겠다는 대의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배제된 취약한 존재는 도시의 부정적 정체성을 폭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도록 요구하는 ‘임계적 공공성’을 가진 존재다.²⁷⁾

중요한 것은 **몸을 가진 존재가 인간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취약성에 대한 고려는 비인간존재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할 수 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도 가능하고 기후 위기를 고민하는 **생태 친화도시**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모든 존재들이 가진 서로 다른 시간과 리듬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존재가 멸종할 수 있는 도시리듬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나이트 마사아키는 짧은 시간에서 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의 시간과 리듬을 분석한 도표를 제시하기도 했다.²⁸⁾ 결국 이렇게 **취약한 존재에서 출발하는 15분 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도시 공공성)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 리듬의 분석과 생산

15분 도시는 단순한 공간의 분할이 아닌, 도시의 리듬을 파악하고,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5분 도시는 도시민의 시간주권에 더하여, 도시민의 공간주권을 결합하여 15분의 리듬 ‘들’을 만들어어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앞서 보았던 취약한 사람들에서 도시의 리듬을 분석하고, 모든 도시민이 도시를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내도록 공간을 분할하고 연결하고, 이동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15분 도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공적 공간에서도 충분히 사적일 수 있는 공간의 비율을 염두에 두어, 공/사의 리듬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개념을 연결해야 한다. 이에 기반을 두고 15분 도시 ‘들’만의 리듬을 만들어내야 한다.²⁹⁾

이를 위해 먼저 취약성에 입각하여 시민들의 유동성과 리듬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식의 마트-자동차 대량 소비, 한국식의 택배형 소비는 시장의 유동성에 적응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형태는 주로 대기업이나 거대 시장을 통해 드러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장의 유동성에 적응한 리듬도 있다. 거대 시장의 유동성에 **대항하는 유동성**으로서, 아파트 단지 내 3일장 같은 것이 그렇다. 소규모 상인들이 모여 주기적으로 여러 아파트단지를 이동하면서 번개장터를 꾸리는 것이다. 이는 유동성이 강한 **대형 시장의 흐름에 맞대응하는 소상공인들의 활동**이다.

이런 장터 중 일부는 단지 내 장터에서 아파트 내/외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는 공공성을 형성한다. 평소에는 지나다니는 길이지만, 이때만큼은 시장을 통해 사람들 간의 관계에 활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소규모 시장의 유동성을 마을 문화나 정치와 결부**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 시장은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공공성을 형성했던 전통적 장소다³⁰⁾. 여기서 예전의 기억과 연결하여 문화 플라마켓 같은 축제를 열어 시장과 마을 축제를 결합해보는 것이다. 여기서 청년 인력이 합세할 수 있는 구조(청년 스타트업, 청년 예술 장터 등)도 연출해 보는 것이다. 이는 상업적 잠재력과 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자, 시장을 일종의 공공장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합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는 15분 지역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이런 일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15분 문화도시는 먼저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27) 취약성-임계-공공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김동규, 『시발터니티라는 방법』, 『인문사회과학 연구』 Vol.24 No.3, 부경대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을 참고.

28) 나이트 마사아키, 『도시 신진대사: 순환형 사회』, 『도시 어메니티와 생태』 (우에타 가즈히로 외 저/ 조동범 외 역), 한울, 2013, 35쪽 참고.

29) 앙리 르페브르(정기현 역),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갈무리, 2013.

30) 전통적으로 시장(장시)의 공적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전성현, 「장시의 사회사, 장시의 정치사-허영란, 『일제시기 장시 연구-5일장의 변동과 지역주민』, 『지역과 역사』, vol.27, 부경역사연구소, 2010.

최근 유동성의 시대, 모빌리티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이동 수단과 정보 접속 매체들이 있다. 도시에 리듬을 부여하는 것은 ‘매체’의 영향력이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들을 살펴보고, 그 장소에 맞는 매체들을 선별하여, 이 매체들을 자유롭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체와 정보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15분 도시만의 리듬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이런 일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4) 15분 매체 도시와 네트워크

매체는 공간에 리듬을 부여한다. 매체는 이동수단부터 정보제공 수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매체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의 결정권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대중교통의 이동현황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일은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이렇게 접근하는 상황은 도시 공공성(접근성-개방성-민주성)을 높이는 일이다.

내가 자주 가는 매장이 문을 열었는지 아닌지도, 최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미 문이 닫힌 매장으로 이동하여 문이 닫힌 걸 확인하는 것보다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동을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장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예컨대 포스기를 켜고 끄는 순간과 연동시키면 어떨까. 이런 상상력을 확대하면, 15분 도시 기본 구상 등에 등장한 다양한 생활요소를 제공하는 **15분 동네 포털**을 제공하는 것도 좋겠다. 이것을 이동과 연계된 다양한 매체(이동수단)들과 연계하는 것은 어떨까. 아울러 이는 창업 이후 드는 막대한 홍보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공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상상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장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특정 장소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면 어떨까.

지방도시는 정작 해당 도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없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런 15분 동네 포털은 주민이 지역의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가 사는 도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정보의 민주적 생산과 공유라는 점에서 도시 공공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역 간, 인구 간 등, 미디어와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정체성을 생산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인구의 다양성과 취약성(정보 해독의 장애 등을 반영)에 입각한 효과적이고 필요한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약성의 문제로 접근하면 좋겠다. 최근 SKT에서는 통화를 동시통역하는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다양한 시민단체가 이주민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이 문서로 이루어지는 수준에 그쳐 이를 넘어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언어의 통역을 통한 사회통합과 문화다양성의 활기를 생각한다면, 15분 단위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미디어 인프라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매번 누가 정보와 매체 접근에서 배제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누구의 사회권, 매체권, 정보권이 배제되고 있는지, 누가 이런 문제에 장애를 겪고 있는지를 매번 고민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반영될 수 있기 위해 시민참여형 정보접근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플랫폼의 경우 프랑스의 경우 시민의 창구가 설치되었고, 독일 함부르크의 경우는 집 앞의 작은 공원(Park Fiction)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계획 컨테이너(Planungs Container) 같은 임시 창구도 있었다. 여기서는 공원 주변 200가구의 의견과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액션 키트를 만들어 의견을 접수했다. 그리고 이 의견이 파크 픽션에 있는 골든 푸텔 클럽의 다락에 아카이빙되어 있다.³¹⁾

31) 파리의 사례에 대해서는 한영숙 외, 위의 보고서, 32쪽을 참고, 독일 함부르크의 사례에 대해서는 김동규, 위 논문, 2016을 참고, 김동규, 위의 책, 2017을 참고.

이런 오프라인의 창구도 좋지만, 앞서 소개된 워싱턴 대학이 개발하여 시애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이드워크도 있다.³²⁾ 이는 시애틀의 모든 시민이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어서 광주의 경우 광주ON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서는 설문조사도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제안도 가능하다. 시민에게 묻고/듣는 쌍방향 소통이 기본 구조다. 15분 도시는 그에 맞게 이런 플랫폼을 15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참여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³³⁾

- 15분 도시 사이의 리듬

이상의 환경이 구축되면 15분 단위들 사이의 개방적 상호작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타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15분 도시 내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15분 도시 간 시너지를 유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15분 단위의 이동과 15분 이상의 이동과 교류 단위 사이의 관계를 체계화하기 위함이기도 하다.³⁴⁾ 다른 15분 도시와의 이런 관계는 특정 지역에 대한 내부 관심을 증폭시키고, 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각각의 15분 도시의 개성을 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플로팅한 도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통상 행정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밖에 홍보를 할 때, 주요 관심은 경제적 수치의 증가, 인구의 증가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주거지 감천을 관광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덕분에 수도권과 같은 외부 지역에서 다른 지방을 볼 때, 1) 관광지 아니면, 2) 저개발지나, 3) 우범지대로 상상하는 경우가 생긴다. 수도권 중심의 방송이 부산이나 여타 지역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보라. 거의 대부분 위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5분 도시는 15분 도시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형성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가야 한다. 이는 타지역의 관점에서 자기 지역을 바라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는 각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예전에 외국에서 온 어느 공학자 한 분이 부산을 보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300만이 넘는 대도시에서 자연 해안선이 살아 있어서 놀랐고, 평야-강-산지-바다로 이어지는 자연 환경에 매우 놀랐다는 말이었다. 나는 내가 몸 붙이고 사는 부산을 그렇게 놀라울 정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부산은 내게 의식되지 않은 공기 같은 환경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통해 부산을 다시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다른 도시의 입장에서 내가 사는 15분 도시를 본다는 것은 내가 사는 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보기 위해 좋은 자극이 된다. 수도권에서 부산 보기, 거제권에서 부산 보기를 통해 도시와 도시의 관계를 독특하면서도 수평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15분 도시의 민주성은 도시 내에서만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

도시 계획은 대개 어떤 공간을 물리적으로 조성하고, 특정 건물을 짓는 데 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부산의 15분 도시 추진 사업 또는 15분 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거의 전부가 토건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이 보고서가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의 15분 도시 추진 사업 현황에는 역시나 거버넌스와 관련된 계획이 전무하다. 문화 관련 사업의 예산도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귀결되어 있다.³⁵⁾ 이젠 아예 부산시의 예산 사용 관성이 이렇게 굳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지경이다. 심지어 의회 일각에서 교육과 관련된 사업임에도, 인력비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다고 하니 그런 의심이 확신으로 이어진다.

32) 사이드 워크 프로그램(시민참여형 이동권 보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의 누리집을 참고하라. <https://www.sidewalk-sea.cs.washington.edu/explore>

33) 광주온(On)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https://gwanguon.gwangju.go.kr/intro/index.html>

34) 이에 대한 기본적 고려는 박상필 외, 위 보고서, 118쪽과 133쪽에 나와 있다.

35) 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서 제출된 다음의 보고서가 이를 이미 사전 조사하여 보여주고 있다. 한영숙 외, 위 보고서, 16-19쪽 참고.



[그림 5] 함부르크 파크 픽션(Park Fiction) 운동의 사례
(출처: <https://fth1.hamburg.de/Behoerden/Kulturbehoerde/Raum/artists/park2.htm>)

이는 반대로 인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대한 예산 활용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행정 관성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단체장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교체하고, 진행되던 도시 계획이나 아젠다를 바꾸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연속성을 훼손하며, 그들을 예산이나 감사 등을 통해 길들이는 양상도 보인다. 하지만 15분 도시는 단순히 하드웨어 구축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드웨어 구축만으로 도시에 리듬을 불어넣을 수 없다. 그 하드웨어를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15분 도시는 도시 전체를 전복할 정도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단순히 하드웨어를 다르게 구축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 '시설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접근성 분석을 통한 시간거리-밀도맵 작성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런 이유 때문에 등장한다.³⁶⁾

도시의 다층성(multi-layer)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다용성(multi-use) 역시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토건 문제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도시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들은 사람이다. 그리고 도시민이 도시를 활용하는 질적 수준을 높이고, 도시를 다방면으로 실험하고 변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에 맞는 인력을 배출하는 일로 가능하다. 이들이 다양한 기획과 교육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15분 도시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다양한 15분 도시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도시를 새롭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실험하며, 변용(detournement)하는 가운데, 도시는 생명력을 얻는다.

이를 위해 문화 기획과 문화 콘텐츠가 필요하고 중요하다. 다양한 도시의 서사를 위해 인문학적 접근과 사회적 관계 변화를 위해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15분 도시 거버넌스가 꽃핀다. 물리적 거점은 이 기반 위에서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야 대규모 예산을 들인 공간이 텅텅 비는 일이 없다. 부산의 모 도서관의 지하 극장의 사례를 보자, 정작 극장을 지었지만, 극장으로 신고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 극장을 운영할 인력을 고용할 수 없다. 담당 주무관이 극장을 관리하는데, 극장을 토/일요일에 사용하려고 하니 이번 사용을 끝으로 앞으로는 주말에 극장 사용을 불허해야겠다고 한다.

36) 성은영 위 보고서, 7쪽 참고.

그가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극장 운영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의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이런 부당함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을 도대체 누가 연출한 것일까.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시민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15분 도시라니. 15분 도시 거점 중 가장 중요한 곳이 도서관이고, 도서관 내 극장일 텐데. 그렇다면 있는 거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서 15분 도시가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드웨어 먼저 투자하고, 이를 운용할 인력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나는 15분 도시든, 생태적 압축도시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획이 제출되어도, 계획이 표방하는 그런 도시가 우리 눈앞에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도시는 도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안으로 아무리 좋은 도시 하드웨어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실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나아가 그 권리를 촉진할 인력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도시는 결국 죽은 도시가 된다. 15분 도시 15분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모든 사업이 토건 사업으로 전락하고, 이를 위한 행정만 비대해지고, 결국 사람이 오지 않는 공간과 구조를 만들게 된다.

아래 그림은 이케아(IKEA) 회사의 간이 건물의 등장에 철거된 함부르크의 프라판트 백화점 사진이다. 이 건물의 철거를 반대하며, 100여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이 백화점을 점거하여 작업실과 전시실로 활용했다. 그리고 많은 도시민들이 이 백화점을 다르게 활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최종 철거 결정이 내려졌고, 철거되었다. 백화점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의 내용을 의역해서 번역하면 이렇다. “도시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이케아보다 이 백화점이 더 낫다”



[그림 6] 지금은 사라진 함부르크의 프라판트 백화점



[그림 7] 프라판트 철거 반대 운동의 사례1과 사례2 : 캐비어 비가 내린다

예술가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합세해서 프라판트 철거 반대운동을 벌이면서, 골든 푸델 클럽에는 다음과 같은 구호가 걸렸다. “Es regnet Kaviar”. 이는 캐비어 비가 내린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함부르크 전역에 캐비어 비가 내리라는 것인데, 함부르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캐비어가 매우 비싼 음식인데, 함부르크의 다양한 빈/부 격차에도 모든 시민들이 함부르크를 그러한 격차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³⁷⁾

- 지역 활동가들의 저력

활동가들의 매개나 촉진 없는 풀뿌리는 없다. 풀뿌리의 자생력도 중요하지만, 이 자생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풍부하게 만드는 활동가들의 개입 역시 중요하다. **활동가들은 도시에 리듬을 부여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지역의 다양한 풀뿌리들에게 새로운 인지적-감각적 자극을 제공하고, 기존하는 다양한 인력과 자원을 찾아내고, 수집하고, 이를 활성화한다.

이러하면 15분 도시 실험실 운영 및 기획팀을 TF처럼 가동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 팀이 활동할 수 있는 15분 실험도시를 공모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를 위해 광주On과 같은 플랫폼을 15분 단위로 조성하는 것은 어떨까? 이게 가능하려면 마을 교육 공동체나 15분 시민권익위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문제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니 토건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15분 환경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세대가 이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하고, 배워 정착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실험을 통해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Start up)**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이 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원과 제도를 마련해 이 일을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 아닐까. 여기서 생긴 테이터를 부산 연구원이 활용하고 체계화해야 진정한 풀뿌리가 된다. 토건은 이 다음에 진행해도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즐겨 쓰고, 오래 쓰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실제로 토건 행정에 예술가들이 승리한 사례도 있다. 함부르크의 갠베어텔의 사례가 그것이다. 이들은 200년이 넘는 건물을 점거하여, 철거 반대 예술제를 펼쳤다. 이들은 대기업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37)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다음을 참고. 김동규, 『함부르크의 두 가지 공공미술 사례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태세의 양상』, 『독일연구』 vol. 33, 한국독일학회, 2016을 참고. 김동규, 『공공미술과 장소서사: 함부르크의 파크 픽션을 중심으로』, 『로컬 서사와 재현』, 소명, 2017을 참고.

건물을 지으려는 시도를 막고, 부동산 이득을 취한 시의 행정에 제동을 걸어 다시 이 건물과 땅을 대기업으로부터 되사들이도록 만들었으며, 세습임대(Erbepacht)와 같은 제도를 통해 이 장소에서 예술가들이 정착하고,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새로운 예술가 정착촌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이를 위해 10년을 싸웠다.³⁸⁾ 그 결과 함부르크 예술가들이 베를린 같은 곳으로 이주하지 않으면서, 함부르크를 문화예술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게 되었다. 현재는 갱에비어텔 같은 장소가 시의 지원으로 하나 둘 늘고 있다고 한다.



[그림 8] 네델란드 투자회사의 입점으로 인해 철거 위기에 놓인 갱에비어텔의 1800년대 건물



[그림 9] 한체바스트의 구상 vs 예술가들의 구상

소결 : 우선 순위 설정

도시 전체를 15분 단위로 보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를 보는 인문학적 관점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 도시 문제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접근법과 대안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5분 도시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취약한 인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는 15분 도시민의 시간주권, 공간주권을 돌려주는 일이 된다. 이들의 주권 행사는 도시 공간에 장소성을 부여하는 일로 이어질 것이며, 15분 도시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이런 주권 행사를 통해 도시에 리듬을 부여하는 매체 사용과 인력 발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15분 도시 간의 관계도 새로이 정립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8) 이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과 책을 참고하라. 그리고 크리스티에 에벨링의 글을 내가 요약 번역한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라. <http://www.redian.org/archive/106090>

- 토건보다는 사람 먼저
- 행정보다는 문화 먼저
- 환경구정보다는 권리보장 먼저
- 수동적 시민이 아닌 능동적 시민으로
-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 획일성에서 다양, 다층, 다용성으로
- 도시 개량이 아닌 혁신으로
- 단기 전략이 아닌 장기 비전을 통한 전략으로

5. 결론 : 15분의 정신을 먼저 생각하자

성공적인 15분 도시를 위해서는 **취약한 인구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풀뿌리 15분 도시든, 주민이 참여하는 15분 도시든, 모두를 위한 15분 도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취약한 존재의 입장에서 구상된 15분 도시여야 한다. 취약한 존재들이 자유롭게 도시를 사용하면서 도시를 진단하는 데서 풀뿌리 15분 도시가 출발하고, 거버넌스 역시 풍성해진다. 여기서 다층성, 다양성, 다용성이 상상될 수 있고, 제대로 된 도시의 복잡성이 드러난다.

모두를 위한 15분의 리듬은 여기서 만들어진다. 최근 이동성(mobility)이 권력이라는 말이 많다. 15분 도시 는 이 권력을 모두에게 부여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취약한 존재를 배제하는 도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정의한 15분 도시이자, 인권 박탈형 15분 도시다.

그래서 인권형 15분 도시는 시장과 행정 체계에 자신의 권리를 뺏긴 취약한 존재의 시간주권과 공간주권을 되찾아주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도시의 권리는 다양하고 새로운 권리로 '발명'되고 도시 공공성도 든든해진다. 15분 도시권 역시 그렇게 생긴 새로운 도시의 권리 아니던가. 15분 도시 역시 그런 취약성의 기억을 새기고 있다. 코로나로 취약한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생긴 것 아니던가.

여기서 출발하면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자기 동네를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해야, 이들이 나중에 15분 도시를 위한 현장의 조력자가 될 것이며, 현장의 구체적 데이터를 생산할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들이 도시를 상상하고 실험하며, 도시에 리듬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그 도시만의 리듬(장소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도시를 사용하고 탈환하며 변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한다. 15분 도시를 모두가 활용하고 실험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나는 이를 **변박의 도시**라 부르고 싶다. 다양한 리듬과 템포를 실험할 수 있는 도시 문화와 기획이 그리고 이를 촉진할 인력과 매체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도시를 경험하고 도시민과 만나고 함께 도시를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사회적 권리를 만들고, 장소성에 입각한 15분 도시 권리도 발명할 수 있다. 다양한 매개자, 촉진자, 활동가들의 힘과 그들의 네트워크가 갖는 중요성도 여기서 생긴다.

그러나 인력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15분 도시를 상상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15분 도시를 상상해야 한다. 이들이 도시를 사용하고 실험하는 가운데, 도시를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행동들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물론 풀뿌리 주민생활 조직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부산시 보고서에도 일부 거론되고는 있다. 마을공동체(교육, 문화, 취미 등), 그 지역의 시민단체, 마을활동가(사회 및 문화 예술)와 주민기획단, 공공예술가 등, 심지어 자발적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저력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15분 도시 인적-제도적-물적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 발견된 특정 장소를 지정하거나, 기존 지역 조사를 통해 특정 장소가 가진 공적 힘(포텐)을 강화하는 기획이 여기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장소와 사람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매체적 접근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풀뿌리 데이터가 생산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광주온(on)과 같은 시민참여형 15분 포털(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15분 도시의 다양한 공공성이 열린다. 이 공공성은 이후 15분 공공장소 네트워크(MLPP: Networking Local Public Places)를 안팎으로 만드는 가교가 될 것이다.

최선의 15분 문화도시는 취약한 존재에서 출발해야 비로소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된다.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아이디어는 이 출발점의 하위 항목에 해당할 텐데, 부산시는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를 만들거나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에 소극적이다. 취약한 존재에 대한 출발점에서 비로소 지속가능성이 등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취약한 존재의 관점을 완벽히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과 경험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는 다양한 도시 실험 가능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정신장애인의 사회권을 보장하면서 이들과의 공존을 실험한 <미친 존재감 프로젝트>와 같은 실험들이 도시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주장은 노동에 대한 개념을 바꾼 데 있다. “일하기 위해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있기 위해 일을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여기서 행정체제와 시장체제에 잠식되지 않는 생활세계의 건강성이 유지된다. 생활세계의 15분의 풍성함을 유지하는 것이 15분 도시의 핵심 아니던가.

이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여파는 다음과 같은 언급 이상이다.

- 1) 사회적으로는 취약한 존재에서 출발하는 민주적 참여의 활성화, 차이와 연대의 조화, 15분 단위 거버넌스 창출
- 2) 15분 도시의 성과에 맞는 풀뿌리 산업-경제적 잠재력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와 산업에 새로운 생산적 자극을 제공)
- 3) 생태적으로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변화
- 4) 현실적 활력을 갖는 문화 다양성 도시,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허용되는 가치 창조의 도시,
이것이 다른 영역의 창의성으로 파급, 확산

따라서, 제도가 질러놓은 경계선에 따라 일상을 분류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먼저 보고, 그 일상의 활동에 따라 15분 제도와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한다. 일상인의 활발한 활동에도 일상의 문화가 없거나 척박하다고 보는 탁상행정이나 밀폐된 연구실험 전문가들에게는 일상의 자원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이웃이라는 개념은 있으나, 실제로 만나고 대화할 이웃은 없다.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거나, 무능하고 무지하며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제대로 된 15분 도시 구상 역시 등장할 수 없다.

지금 있는 것, 원래 있던 것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고, 그것부터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보는 편견과 불신을 철회해야 한다. 그런 시선은 시민의 실패가 아니라, 행정의 실패이자, 엘리트주의의 오만이다. 나는 시민 참여형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안 위원회에 시민을 참여시키지 않는 조례를 많이 봤다. 이런 변화를 위해 지금 어떤 것/어떤 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장을 살피는 것에서 15분 도시 구상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안이 실패하는 혼란 전례를 거치지 않는다. 도시계획은 시작부터 풀뿌리여야 한다.

아울러 15분 도시가 행정단위의 상상력에 그쳐 15분 도시 내부만 생각하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15분 문화 점이 도시 또는 15분 문화 환승 도시도 생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와 도시 간 차이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15분 도시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이 생긴다. 15분 상호 문화도시 역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15분 도시의 수직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내가 큰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해외를 여행하기 위해서라도 15분 단위 이상을 상상해야 하는데, 이 상상이 15분 도시와 연계되어야 한다. 큰 흐름이 작은 흐름과 어떻게 연동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흐름에 작은 흐름이 묻히고 만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면역성을 15분 단위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쿠바의 마을 병원이 마을 공원처럼 자유롭게 활용되는 것에 매우 놀란 적이 있다. 주민 100명당 주치의 1명이 있다는 사실에도 매우 놀랐다. 자원이 부족한 쿠바의 의사는 주민들과 만나고, 주민들은 병원을 놀이터처럼 자유롭게 들고나는 데서 치료의학이 아닌 예방의학이 갖는 잠재력을 본 것 같다. 15분 도시의 보건의료도 이러한 경험을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풀뿌리 보건의료 위에 더 큰 시간대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하는 건 아닐까. 이처럼 15분 시간과 그 위의 더 큰 시간대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산시의 기본 구상에도 이러한 구상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소 기계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취약성에서 출발하는 수직형 도시 구상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미 마을 건강센터라는 15분 단위의 보건의료 조건을 구축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단위를 든든히 해서 수직적 보건의료 구조를 만든다면, 형식적 시간 수직성과 이에 근거한 토건 사업과 전시행정으로 행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15분 도시 단위의 구상이 다시 대형 도시의 중력장 안으로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구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15분은 15분 만에 도시를 만들라는 의미는 아니다. 충분한 시간과 실험을 통해 15분 도시를 느리고 길게 구축해 가야 한다. 생태적 문제까지 고민해야 한다면, 더욱더 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다. 누가 이 속도를 지배하고 있는가? 도시 계획이 즉시 제출되고 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질주는 도대체 누구의 속도인가? 15분 도시는 이 행정 질주를 멈추는 것과도 관계한다.³⁹⁾

아울러 사람을 키우지 않는 환경 정비 역시 문제다. 공간과 도시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

39) 속도와 질주에 관한 언급은 다음을 참고. 폴 비릴리오(이재원 역), 『속도와 정치: 공간의 정치학에서 시간의 정치학으로』, 그린비,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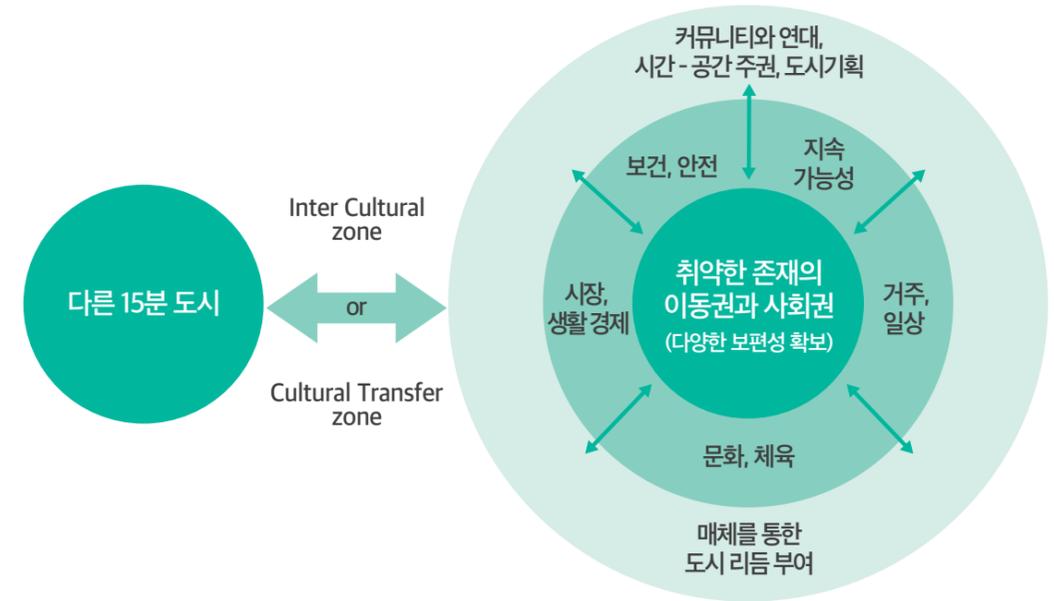
지 않으면, 그 도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15분 문화도시의 관점에서 물적(시설, 공간, 이동 수단 등)-인적(지원자와 활동가의 문제)-제도적(접근과 흐름을 규제하는)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력 양성, 콘텐츠 개발, 기획, 실험, 교육, 공유에 중점을 두면서 15분 도시비전을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만들어가야 한다. 기본구상(안)이 마치 최종결론인 것처럼 먼저 제시되고, 그 제안에 따라 15분 도시로 시민을 동원하지 말고, 장기비전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만드는 15분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사람을 찾고 모으고, 실험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실험도 해보자.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를 확산시켜 보자.

15분 도시 같은 도시 계획은 선언과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어야 한다. 이제부터 이 과정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여기서 최선의 도시를 만드는 첫 출발점이 마련된다. 그렇다면, 이미 제시된 계획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이미 제출된 계획안 역시 나름의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이어서 나의 글처럼 그 계획안을 본 사람들이 기존 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보고, 현장에서 그 그림들이 적용 가능한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보자. 현장에서 도시민의 관심을 관찰시키며 15분 도시의 그림을 그려나가 보자. 취약한 인구 계층과 관계한 시민단체도 적극 활용하자. 이는 지역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일이며, 계획안의 완성도도 높이는 일이다. 이는 형식적 공청회의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주민조직-관련 시민단체의 결이 형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의회-구청-시의회-시청의 결이 형성되어 이 두 결이 서로 공공연히 접촉하고 만나야 한다.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이나 복지 기관 등이 이 사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면 금상첨화다.

최선의 15분 도시는 모두를 위한 도시이자, 모두가 행복한 도시다. 이를 위해 최선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도시론이 주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도시론으로 현실을 창조하고 견인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 과정을 주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권을 보장하는 도시가 된다. 아울러 다양한 도전과 실험의 창의도시이자, 집합적 작품으로서 도시가 될 수 있다. 15분 도시는 최선의 도시를 15분권 안에 구현해야 한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도시다.

부산은 소위 ‘노인과 바다’라는 멸칭을 별명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멸칭인가? 우리는 언젠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늙어가면서 취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취약한 존재의 입장에서 도시를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최선의 도시를 구현하려는 시도다. 취약한 존재를 생각하는 것은 최선을 생각하는 것이자, 최고를 생각하는 것, 아울러 모두를 포용하려는 시도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기존 15분 도시 안은 타협의 도시에 불과하다. 도시를 작품으로 만드는 일, 인권을 도시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일은 결국 최선을 상상하며 출발하는 데서 나온다. 노인처럼 취약한 사람도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진정한 해양도시 부산도 그 연장선에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하면 부산은 취약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15분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15분 ‘노인과 바다’ 도시 부산은 ‘멸칭’이 아니라 ‘존칭’이 될 것이다.

최선의 도시 만들기 : 15분 문화도시



[그림 10] 최선의 15분 도시 비전을 위한 기본 구도(안)

우리는 왜 최선의 도시를 상상하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좀 더 과감하면 안 되는가?

우리에겐 타협의 도시가 아니라, 최선의 도시가 필요하다.

그림 설명

- 동심원 1) 취약성에서 출발하는 15분 도시
- 동심원 2) 도시권의 기본요소 : 보건, 안전, 지속가능성, 존엄한 거주와 일상, 문화와 체육의 풍성함, 생활경제와 시장
- 동심원 3) 15분 도시 커뮤니티와 연대, 시간-공간 주권, 15분 도시 기획 및 실험
- 화살표 : 15분 도시만의 리듬을 부여하는 다양한 매체 - 제도 - 인력
- 두 원 사이) 다른 15분 도시와의 수평적 상호관계성

참고문헌

-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2010.
- 김동규, 『함부르크의 두 가지 공공미술 사례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테제의 양상』, 『독일연구』 vol. 33, 한국독일사학회, 2016.
- 김동규, 『공공미술과 장소서사: 함부르크의 파크 픽션을 중심으로』, 『로컬 서사와 재현』, 소명, 2017.
- 김동규, 『장애와 역량적 접근 그리고 공공성의 변증법』, 『한국문화논총』 제79집, 2018.
- 김동규, 『서발터니티라는 방법』, 『인문사회과학 연구』 Vol.24 No.3, 부경대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 나야토 마사아키, 『도시 신진대사: 순환형 사회』, 『도시 어메니티와 생태』(우에타 가즈히로 외 저/ 조동범 외 역), 한울, 2013.
- 데이비드 심(김진엽 역), 『소프트 시티: 사람을 위한 일상의 밀도, 다양성, 근접성』, 차밍시티, 2020.
- 마키아벨리(강정인 외 역), 『로마사 논고』, 한길사, 2013.
- 문현병, 『프랑크푸르트학과의 사회비판이론』, 동녘, 1993.
- 박상필 외, 『부산형 15분 도시 계획 구상』, 부산연구원, 2022.
- 박용남, 『제2부 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민중의 도시, 벨루오리존치』, 『도시의 로빈후드 뉴욕에서 몬드라곤까지, 지구를 바꾸는 도시혁명가들』, 서해문집, 2014.
- 성은영 외,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2021.
- 앙리 르페브르(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朴貞子 역), 主流·一念, 1990.
- 앙리 르페브르(정기현 역), 『리듬분석: 공간, 시간,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 갈무리, 2013.
- 에드워드 렐프(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16.
- 우에타 가즈히로 등 저(조동범 등 역), 『도시 어메니티와 생태』, 한올아카데미, 2013.
- 위르겐 하버마스, 『후기 자본주의의 정당성 문제』, 종로서적, 1983.
- 전성현, 『장시의 사회사, 장시의 정치사 - 허영란, 『일제시기 장시 연구 - 5일장의 변동과 지역주민』, 『지역과 역사』 vol.27, 부경역사연구소, 2010.
- 카를로스 모레노(양영란 역), 『도시에 살 권리: 세계도시에서 15분 도시로』, JEPNGYE-C PUBLISHERS, 2023.
- 크리스티네 에벨링(김동규 역), <공유재의 도난과 탈환, 함부르크의 갱에비어텔>, <<레디앙>>, 2016년 12월 13일.
- 폴 비릴리오(이재원 역), 『속도와 정치: 공간의 정치학에서 시간의 정치학으로』, 그린비, 2004.
- 한영숙 외, 『15분 도시 부산 기본구상』, 씨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2022.
- Adriana Cavarero, Horrorism: Naming contemporary violence, Columbia Uni. Press, NY, 2011.
- Editiona de L'Observatoire, Urban life and proximity at the time of COVID-19(『더 나은 도시 생활을 위한 근접성 혁명』), Editiona de L'Observatoire, 2020.
- Henri Lefebvre(E. Kofman, E. Lebas ed. & trans.), "Right to the City", Writings on Cities, Wiley-Blackwell, 1996.
- Judith Butler, "Rethinking Vulnerability and Resistance", Vulnerability in Resistance, Duke University Press, 2016.
- Jürgen Habermas, Legitimationsprobleme im Spätkapitalismus, Suhrkamp, 1977.

참고 사이트

- <https://library.krihs.re.kr/search/media/imglist/ART000303389616?type=down>
- <https://webzine.i-sh.co.kr/193>
- <http://www.kchannel.kr/news/articleView.html?idxno=19947>
- <https://actmediact.tistory.com/1750>
- https://www.sfac.or.kr/theater/WZ020600/webzine_view.do?wtIdx=13208
-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1162037005>
-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2142041015>
- <https://www.pps.org/article/what-is-placemaking>
- <https://www.sidewalk-sea.cs.washington.edu/explore>
- <https://gwanguon.gwangju.go.kr/intro/index.html>
- <http://www.redian.org/archive/106090>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연구

IV.

15분 도시의 유사 정책 간 비교

홍순연 (로컬바이로컬 대표)

IV. 15분 도시의 유사 정책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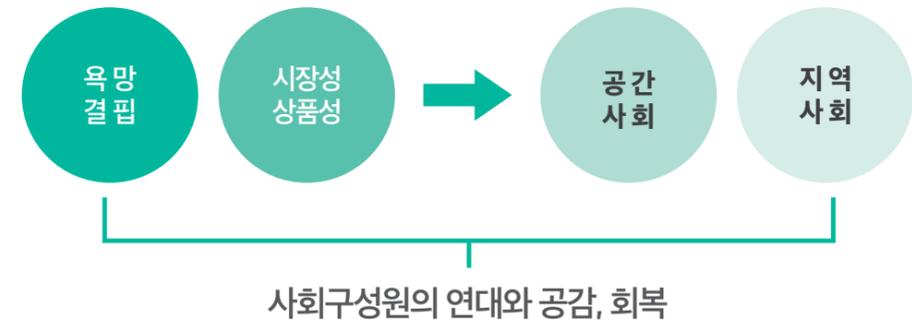
홍순연 (로컬바이로컬 대표)

1. 썬 생활권에 따른 도시 재편성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로 인해 도시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도시의 문제 또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생활과 삶에 대한 이해와 물리적인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진 도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다. 기존 도시는 집적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효율성, 지역 간의 연결망에 대한 하드웨어적 프로세스로 구축하였다면 이제는 편중된 하드웨어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도시모델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유입과 정주환경에 대한 문제와 집중화 현상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제는 대도시 내에서도 지역별로 편중된 집중화된 공간마다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재미있는 현상은 단지 지가상승이나 교통망으로 이야기되는 접근성, 교육환경 등이 주요한 정주환경 아닌 다양한 관계성에 의해 조성되는 환경에 주목하게 된다. 예를 들면 슬세권, 울세권, 숲세권, 스세권 등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른 니즈가 다양한 생활 거주권에 새로운 모델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준들은 삶의 가치추구 방식에 따라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반면 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적인 도시의 개념이 아닌 감소의 최소화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인구의 개념이 도입되거나, 위케이션 개념을 통해 작업환경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이제는 정주의 개념만이 도시의 활동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중심의 하이퍼 로컬(HYPERLOCAL, 지역밀착)의 등장으로 “혹시 당근하세요” 라는 슬로건처럼 이제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시·구·군이라는 행정동으로 구역화하지 않고 ‘우리 동네’라는 개념이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 관리 중심의 도시정책이 도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권역의 틀을 만드는 수단이 되어 가고 있으며 오히려 커뮤니티형 모델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의 가장 큰 이슈로 주목했던 것이 바로 사회, 경제 그리고 지속가능성이었다. 이러한 이슈들이 주목받게 된 계기 또한 도시의 성장이 멈춰짐에 따라 발생한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즉, 도시 성장에서는 욕망과 결핍 그리고 시장성과 상품성에 의해 구분되어 온 방법론이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와 공감 그리고 회복적 측면으로 변환되면서 오히려 공간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도시의 중요한 가치로 형성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이슈와 도시의 점진적인 인식변화와 위기의식이 결합되고 현재의 도시 내 생활 변화와 니즈들이 커뮤니티라는 돌파구를 찾게 되면서 지역만의 다양성과 독창성이 장착되어 도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더욱 보행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생활중심의 동 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세분화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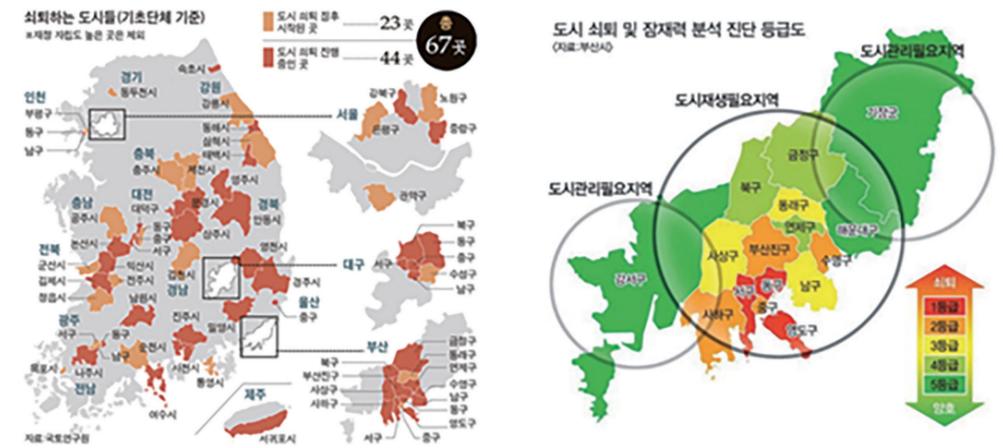
자동차 중심의 기존 이동수단을 도보 또는 자전거 등 소프트 모빌리티를 이용해 이동을 하거나 걷기와 만



[그림 11] 도시계획측면의 사회의 변화

남을 충족할 수 있는 도시기반이 진행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문화, 의료, 교육, 복지, 여가, 업무 등 사회적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계획이 바로 15분 도시생활권 계획이다. 15분은 이동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방법으로 주민이 도시에 대한 애착을 기본적으로 믿고 일상적 장소의 활용, 시간과 공간의 다양성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통망과 도시구조 그리고 필요충분조건에 따른 거점시설의 활용 등 물리적 환경의 점검을 통해 지역마다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처음 15분 도시의 개념이 국내에 도입될 때 교통망과 도시구조, 그리고 성장된 커뮤니티의 뒷받침 등이 아직 미흡함에 따라 성공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그럼에도 15분 도시는 지역 간의 불균형과 쇠퇴 지역의 위기의식, 커뮤니티 중심으로 지역단위 생활밀착형 계획을 통해 각 지역적 특성을 연결하는 사업이라 생각된다.



[그림 12] 부산지역의 도시쇠퇴 및 진단등급도

따라서 본 내용은 15분 도시와 유사한 정책들을 조사하여 기존의 사업들과 15분 도시가 어떠한 차별점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계획에서는 기존의 물리적 환경적 분석과 관리지침 계획과 달리 생활권

계획¹⁾에는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나타남으로써 생활서비스 측면을 고려한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²⁾

그 외 생활권계획과 유사한 도시 커뮤니티적 측면을 강조한 도시재생, 지역소멸정책, 유형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생활권계획 그리고 타 지역의 N분 도시사업 등을 유사정책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권 계획을 하나의 축으로 두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도시계획인 근린주구 계획과 도시 생활권계획을 초기에 도입한 서울시 생활권계획과 국토부 생활권계획의 지침들을 살펴볼 것이며 지역, 마을단위의 대표적 사업으로 시행되었던 도시재생뉴딜사업, 최근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진행되는 365생활권 사업, 어촌신활력사업, 타 지역의 서울시, 제주시, 청주시의 사례를 통해 N분 도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사업들 간의 특징과 차별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문적인 내용을 정립하기 보다는 유사사례를 통해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실행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 근린주구에서 생활권의 개념

일반적으로 소생활권으로 분류되는 근린주구는 1924년 미국의 페리(C. A. Perry)가 제안한 주거단지계획으로서 도로를 건너지 않고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단지규모에서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주민들 간의 사회적 교류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성된 물리적 환경을 말한다. 그리고 근린주구 조성을 위하여 페리는 6가지 계획 원칙으로 규모, 주구경계,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 상업시설, 내부교통체계를 제시, 일반적인 단지계획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면적당 인구밀도와 간선도로 계획,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공원, 그 외의 학교시설과 공공시설의 통합 배치 그리고 외부 동선과 연결된 상가계획, 마지막으로 순환교통체계를 통한 체계적인 가로망계획 등을 제안하고 있다.³⁾ 근린주구의 핵심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단지계획의 틀과 유사하나 보행동선을 정립하고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는 계획과 더불어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사회적 교류와 공동체에 대한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교류를 통한 주민들 간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생활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최근에는 대중교통 중심의 신 근린주구 개념이 도입되어 생활권 규모를 도보권과 이용시스템을 연결하여 저탄소,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친화적 주거 단지개발 수법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생활권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행정구역과는 관계없이 통근·통학, 쇼핑, 오락, 사회적 관계 등 사람이 일상 생활을 해 나가는 공간적인 범위로 정의하고 있다. 생활권의 공간적 범위는 페리의 근린주구처럼 초등학교 중심의 보행권에서 이동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대중교통의 결절지와 커뮤니티 시설이 근린공간의 중심시설이 되어 근린생활들의 이용권역의 확장으로 생활권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동과 목적지에서 행위에 따른 활동범위를 일반적으로 생활권이라 한다.

⁴⁾ 생활권은 도시 규모, 활동 패턴에 따라 위계화하여 일상 또는 소(근린)생활권, 대(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한

1)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대권역(권역생활권)과 통근·통학·쇼핑·여가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소권역(지역생활권)을 의미한다. 생활권계획은 대권역과 소권역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민 눈높이 계획을 의미한다.

2) 기존의 현행 도시기본계획은 개발시대의 도시발전패러다임은 양적성장과 공급에 초점을 맞춰 진행됨에 따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별 다양한 여건과 도시의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제시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1)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자연적 여건,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재해발생현황 및 추이 등을 기반으로 도시 및 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내용이 방대하거나 획일화에 따라 결국 나열식과 정형화된 활용성이 떨어짐을 지적하고 있다.

3) 근린주구계획 시 하나의 초등학교 학생 1,000~1,200명, 거주인구 5,000~6,000명, 어린이들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도록 주구의 반경은 400m, 면적은 약 64ha로 규모를 정립하고 있으며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용지는 약 10%를 확보, 커뮤니티 시설과 학교 등은 중심부에 배치하며, 상가는 1개소 내지 2개소를 주구 외곽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 내부의 교통 체계는 쿨데삭(cul-de-sac)과 푸프형 집분산 도로, 주구외곽은 간선도로로 계획한다.

* 쿨데삭은 주거 지역의 통행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 계획의 도로 배치에 막다른 골목이 추가하여 일부 막다른 골목은 도로 진입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통도를 제공하지 않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 보행자 또는 기타 비자동차 교통이 연결 지역권이나 경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연결망을 제어 또는 시각선을 확보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Dead_end_street)

4) 오병욱, 2012, 생활권 이론과 생활권계획 실태 분석 연구: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권, 4호 P3

다.⁵⁾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생활권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범위로써 그 중 소생활권은 인구 규모가 2~3만 명 정도이며 다만 자치단체 재량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소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생활권(부도심권 중심)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이며, 소생활권(근린지구 중심)은 통근·통학·쇼핑·여가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권역을 의미하며 중간 단위의 중생활권(지역생활권)은 지역을 순환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0~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로 거점시설 중 경찰서나 소방서의 관할 범위, 통상 고등학교 통학 범위에 해당한다.⁶⁾

이러한 대 중 소생활권은 도시기본계획 지침 상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등 부분별 계획으로 수립되고 권역 설정에 따라 배치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마을 만들기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 특성과 유사성을 고려하고, 일정 면적 및 인구 규모 단위의 생활권 설정을 목표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 간·지역 내 균형발전, 전략적 성장유도, 단절된 생활권 간 연계 유도 등을 기준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을 통한 결핍도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획이 수립되며 특히 교통망과 보행권에 기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2. 국내 유사 정책의 비교

가. 주요 생활권계획 ⁷⁾

1) 2030 서울생활권계획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의 후속 계획으로 생활권의 특징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생활권 발전방향과 도시 관리구상을 제시하기 위해 대생활권과 소생활권으로 구분하여 2030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였다. 권역계획에 속하는 대생활권의 경우 권역의 대상을 5개 권역(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부권)으로 구분하였으며 ‘서울플랜’이라는 권역별 구상을 통해 자치구 약 3개~8개를 묶어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소생활권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100여 개 지역(2~3개 행정동, 인구 10만 정도 규모)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발전방향, 관리 구상을 제시하는 지역생활권 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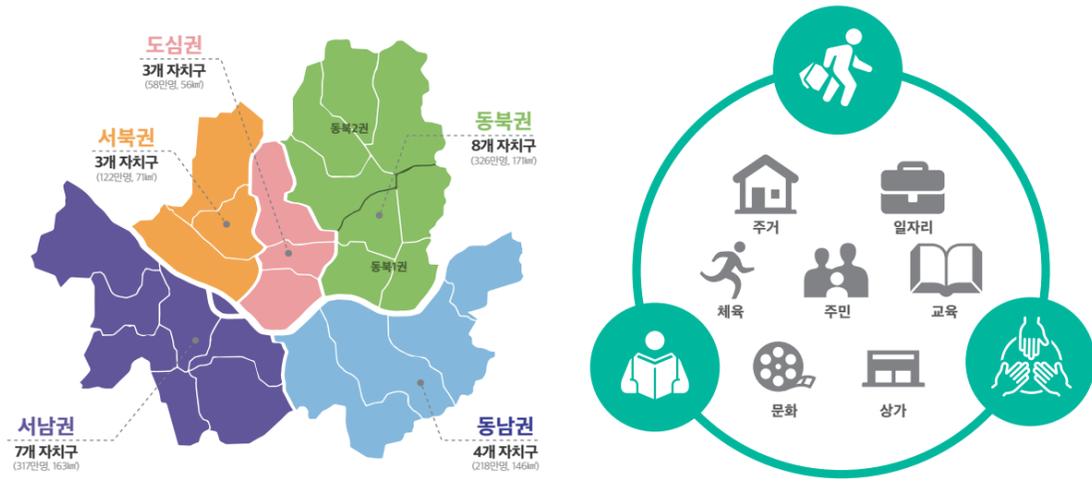
서울시에서 정의하는 생활권 계획은 통근·통학·쇼핑·여가·친교·업무·공공서비스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를 말하며, 생활권계획은 생활권을 범위로 주민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민 눈높이 계획으로 수립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주요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 및 종합화하는 목적과 지역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과제를 담아 구체적인 하위 및 관련계획의 지침화를 통해 자치구 간의 연계협력과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미래상과 지역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위한 주민주도형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간관리지침을 통해 중심지, 용도지역, 경관, 생활서비스시설 중심으로 구분하여 세분화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활권별로 4~5개의 목표와 10개 전

5)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2021. 국토교통부 훈령 제1470호, 2021.12.30, 일부개정, 제4장 제3절 2

6) 국토용어해설 / 국토연구원 https://library.krihs.re.kr/bbs/content/2_935 제1인용

7) 생활권은 2008년 기초생활권으로 사용될 때도 있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일자리, 환경 등 기본수요(basic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정주(human settlement)의 기본적인 공간단위이다. 기초생활권은 중심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심지와 배후지역(보완지역)으로 이루어진 정주생활권(1차 생활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2013년 ‘서울미래100년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 등 3단계로 구성하여 2014년 국토부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제정을 건의하여 생활권계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략을 수립하고 중심지육성 및 발전, 주거지 관리, 교통보행체계 생활서비스 확충 및 개선 그리고 지역특화 등 부분별 이슈를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116개 지역생활권단위를 구분하여 발전방향과 전략을 수립했음에도 실행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화 과정과 제도적 뒷받침(관련조례 등)이 미흡함에 따라 실행계획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백화점식 계획과 인프라 부족 등의 비판을 받고 있으나 운영시스템과 행정동 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된다면 소생활권 중심의 도시계획관리 및 활용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공유형 계획으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서울시 생활권계획 구역구분 및 주요 키워드

나. 국토부 생활권계획

국토부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도시문제의 증가와 상·하위계획 간 환류체계 부재 등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생활권의 구분은 일상 또는 근린(소)생활권과 권역(대)생활권으로 생활권을 위계성 있게 정립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일상/근린(소)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 활동(통학, 사고모임, 근린 공공서비스, 장보기 등)으로 읍·면·동이 1개 이상 모인 규모로 한정하고 지침은 일상/근린(소)생활권을 특·광역시, 대도시, 일반 시·군 모두에 적용 가능한 생활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권역(대)생활권은 자치구(구), 군이 1개 이상인 특·광역시, 대도시에 적용 가능한 생활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의되어진다.

2014년 개정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13절)의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의 하나로서 전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상세화하여 지역발전방향과 정책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획 및 공간해석에 있어 도시기본계획 - 생활권계획 -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되어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생활권 계획은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상 또는 근린생활권, 권역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활동 (통학, 사고모임, 근린공공서비스, 장보기 등)이 이루

제13절 생활권 계획

4-13-1. 생활권의 구분

- (1) 생활권의 구분은 도시의 규모에 따라 달라 질수 있으며, 일상 또는 근린(소)생활권, 권역(대)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 일상생활권은 주민의 일상생활활동(통학, 사고모임, 근린공공서비스, 장보기 등)이 이루어지는 정도로써 동, 읍, 면이 1개 이상인 규모로 볼 수 있으며 특광역시, 대도시, 일반 시·군 모두 적용 가능한 생활권이다.
- (3) 권역생활권은 자치구(구), 군이 1개 이상으로, 특광역시, 대도시에 적용가능한 생활권이다.
- (4) 모든 자치단체가 위계적으로 생활권을 권역, 일상생활권으로 의무적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지역에만 생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4-13-2. 생활권계획의 성격 및 범위

- (1) 생활권계획은 부문별 계획의 하나로서, 전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상세화한 계획이다.
- (2) 공간적 범위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및 생산활동(통근, 통학, 여가, 친교, 쇼핑,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범위로 한다.
- (3) 지역의 생산 및 생활환경 개선과제와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4) 생활권계획은 모든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의 생활권 단위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작성할 수 있다.

4-13-3. 작성 원칙

- (1)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주민참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초조사, 주민계획단 과제 도출, 생활권 발전비전 및 공간구상, 생활권 계획지표 생활권 및 발전전략, 주요 생활인프라 배치전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일상생활권계획
 - ① 중심지 및 주거지관리, 대중교통, 가로환경, 경관 및 미관, 생활인프라시설, 지역특화시설, 계층별(영유아, 노인, 여성)필요시설, 생활안전, 지역문화교육 및 역사보존 관련 분야 등에 생활권의 발전 전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②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을만들기대상지역, 도시계획시설 등과 관련된 지자체의 정책 방향도 포함할 수 있다.
- (3) 권역생활권계획
 - ① 중심지 및 주거지관리, 간선교통, 경관 및 미관, 지역의 균형발전, 광역기반시설, 고용 및 경제기반, 범죄예방, 권역문화 및 교육, 역사보존, 권역특화 등에 대한 지자체의 발전 전략을 포함한다.
 -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
 - ③ 권역생활권의 중심지 체계 및 기반시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이전 적지, 유류지, 나대지 등을 개발하는 경우 그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자료: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2018. 국토교통부훈령 제1133호 (12월 21일 일부개정) 제4장 제13절
<https://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4470> (접속일: 2021년 9월 3일)

[그림 13] 도시·군기본계획수립 지침 중 생활권계획

어지는 정도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동·읍·면이 1개 이상인 규모로 볼 수 있으며 특·광역시, 대도시, 일반시군 모두 적용 가능하다. 작성의 원칙을 살펴보면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주민참여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프로세스의 경우 기초조사 - 주민 계획단 과제 도출 - 생활권 발전비전 및 공간구상 - 생활권계획지표 - 생활권 및 발전전략 - 주요 인프라 배치전략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에서 제안한 생활권 설정 방식은 도시공간구조, 중심지체계, 토지이용현황, 지역 특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권을 구획하며, 서울시와 같이 주민참여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역할과 기회 제공, 실현가능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도시계획 상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 및 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지침으로 정리되어 있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 정도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다. 지역 활성화 사업

1) 도시재생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사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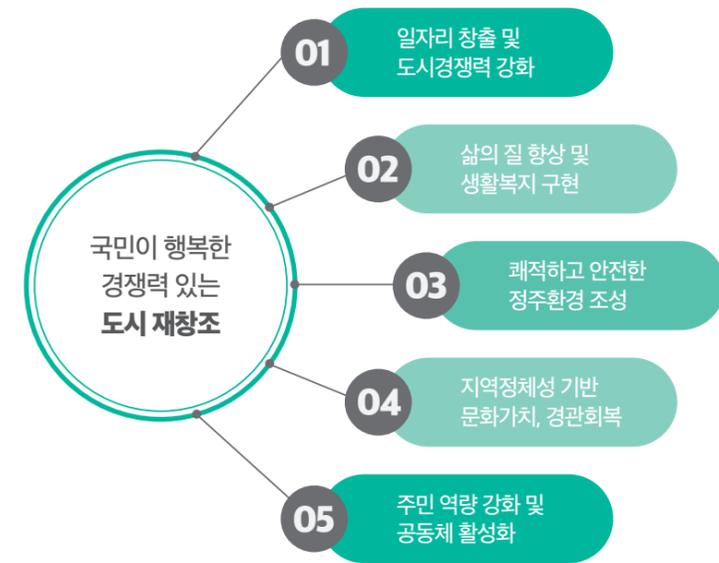
[그림 14] 도시재생의 정의

지역 활성화에 가장 주요한 모델로 제안된 도시재생은 인구감소, 사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은 재개발에 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재생의 의미에서 재개발과 재생은 방법론 측면에서 본다면 대치적 방법이 아닌 선택적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생 대상지역의 선정에 위해서는 도시가 얼마나 쇠퇴하였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쇠퇴도는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 등과 관련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도출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인구감소의 경우 지난 30년 중 인구가 가장 높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체의 쇠퇴기준은 지난 10년 중 사업체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및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지역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0% 이상의 경우를 쇠퇴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은 주체, 대상, 방식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와 차별점을 가지고 있으며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주체로 자력기반과 지역 활성화의 관점과 자력기반이 없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 종합적인 기능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도시재생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 생활권 단위 재생사업은 근린 재생형이며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9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칭되며 사업의 추진전략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8) 2009년부터 선도지역 2곳(마산창원, 청주 테스트베드사업)을 시작으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 우리동네살리기 등 사업유형은 다양하게 구분되었으며 현재는 커뮤니티 중심에서 혁신지구 사업까지 포함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유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림 15]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주요 키워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전략은 성과 중심의 사업체제로 재편되어 사업유형 또한 경제 재생과 지역특화 재생으로 개편하고,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성과연동형 예산 체계 도입 및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성과, 쇠퇴지역에 주거, 업무, 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하는 혁신지구 조성⁹⁾ 과 점 단위 사업이 아닌 면 단위 개발 방식으로 규모가 크고 가독성을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공 거점사업에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참여로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하며 민간 제안형 리츠 활성화 및 특화 재생사업에 민간참여 모델을 발굴 확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외 노후주거지 정비활성화 및 사업 추진체계 운영 시 전문 역량강화 중심으로 추진방식은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사업유형 중 경제재생형의 경우 혁신지구를 선정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특화 재생형의 경우 지역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우리 동네 살리기인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을 공급 지원하는 방식과 도시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 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인정사업으로 구분되어 선정되고 있다. 최근 도시재생은 실행력 중심으로 전환하여 노후 거주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강소도시 육성을 통한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역할 또한 주민 중심에서 현장전문가, 자자체, 지역기업 및 창조인력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 및 정보공유 확산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유관기관 및 중간조직 그리고 지역기업 등 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현재 부산시 (2023년 기준) 경우 인정사업 1건, 특화재생사업 1건이 선정되어 총 34개의 사업지가 진행되고 있다.

9) 최근 혁신도시와 유사한 공간혁신구역사업을 통해 도시활력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복합용도 (MXD)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용도개발은 동경의 롯분기힐스, 파리의 라테팡스계획과 유사하며 주거기반과 함께 상업·업무, 문화, 레저 등 서로 상이한 여러 용도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유기적으로 조합시켜 공간재생 방향을 제안하고 있으며 대상지는 노후공업 지역활성화, 구도심재창조, 공공청사 이전부지 활용 등으로 재생의 틀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 - 2019년도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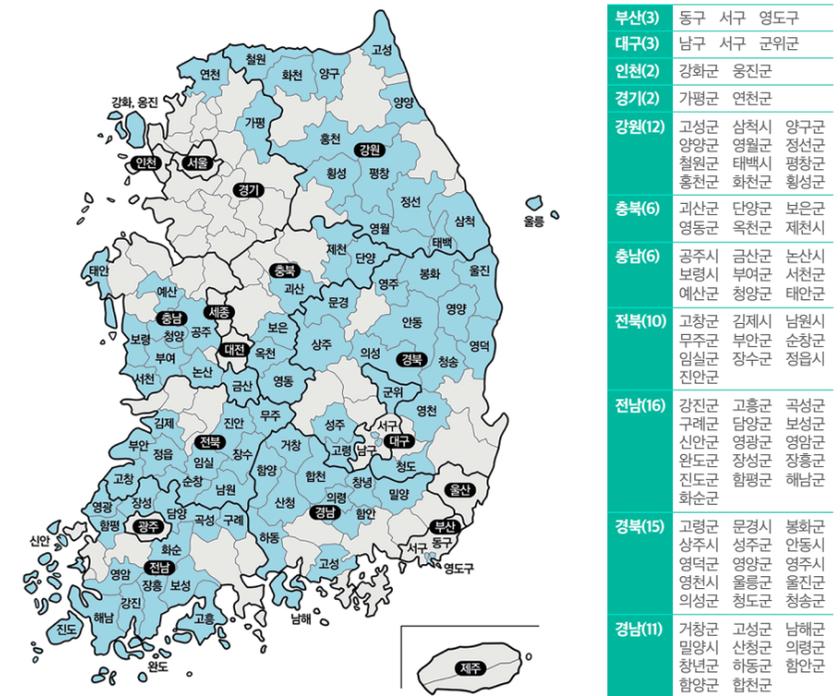


[그림 16]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현황 (부산광역시도시재생센터 참조)

2) 인구감소지역¹⁰⁾ 정책

인구감소는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대응기금¹¹⁾을 마련하여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생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의 시행을 통해 인구 유입 및 정착에 효과를 높이고자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감소원인으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 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 실천과제 마련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로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방법을 제안하거나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 조성을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청년문화센터 구축, 휴게·녹지 공간, 노후공장 개선, 근로·복지 환경 개선 등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도 육성하여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하는 지역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17] 인구감소지역 지원대상지 - 행안부제공

10) 인구감소지역¹⁰⁾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체 개발한 인구감소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18개 자치단체는 관심지역으로 구분한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역에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며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5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다.

11)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다. 정부 출연금으로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의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광역 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개, 2022년 관심지역 18개를 지정했으며 관심지역에는 기초자치단체 배정분의 5%를 지원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과 농어촌 빈집 정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도서 노선 등을 지원, 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를 복합시설화하여 지역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지자체 사업 중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¹²⁾를 도입하여 관광유형, 군인유형, 통근유형, 외국인유형, 통학유형으로 나누어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동구, 서구, 영도구이며 관심지역으로 금정구, 중구가 이에 해당된다. 이 지역은 인구소멸 자금을 활용하여 의료관광특구인 서구는 의료관광과 병원 일자리 확보에 초점을 맞췄으며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간병인 등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도구는 커피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이와 관련한 직업 교육을 통한 커피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그 외 해양치유센터조성을 통한 지식산업 연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동구는 북항 재개발 이후 차츰 유입될 젊은 층을 위해 기금 전액을 보육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폐교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 외 창조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케이션 센터는 생활인구형 모델로서 대상 지역에 위치하여 생활인구에 초점을 맞춘 거점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3) 농어촌신활력사업

① 농촌신활력사업

농촌지역에 생활권계획으로 제안되고 있는 365생활권은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의 농촌협약¹³⁾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365생활권은 30분 내 기초생활서비스 지원, 60분 내 복합서비스 접근 보장,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낙후된 농촌지역 생활권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농촌공간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촌협약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권 계획은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재생의 4대 분야(위해시설 정비, 주거 및 주거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부문별 생활서비스 확대)의 단계별·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 거점이 되는 읍과 비교적 규모가 큰 면지역을 거점지역으로 하여 주변 면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서비스를 집중시킨다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방식이다. 즉, 기존 읍면 소재지 마을이 중심지이고, 그 외 마을이 배후마을이던 것이 이제 시군 단위 읍(또는 거점면)이 중심지가 되고 주변 면 지역이 배후마을이 되는 방식은 기존의 농촌 활성화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마을단위의 개발에서 정주생활권 단위로 공간적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농업중심의 개발에서 농촌경제, 농촌사회, 생활환경, 지역문화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형 생활권 계획과 차이점은 기존의 생활권(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과 지역생활권(농어촌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을 구분하여 관계설정을 하고 있으며 지역생활권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도시-농어촌 중심지-마을'로 연결되는 공공·상업 서비스 이용 공간을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12) 생활인구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13) 농촌협약은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농식품부와 시·군 간의 협약이며, 시·군이 농촌경제 및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농식품부가 5년간 일괄로 지원하는 제도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복지·교통 등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농식품부의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 사업이나 교통모델 지원사업, 취약마을 정비 사업 등 4~11개 일괄(패키지) 사업들을 각 시·군의 경계보다는 통합적인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통해 농촌협약 제도를 통한 지원 사업 및 사업 규모 등을 진행하여 농촌형 생활권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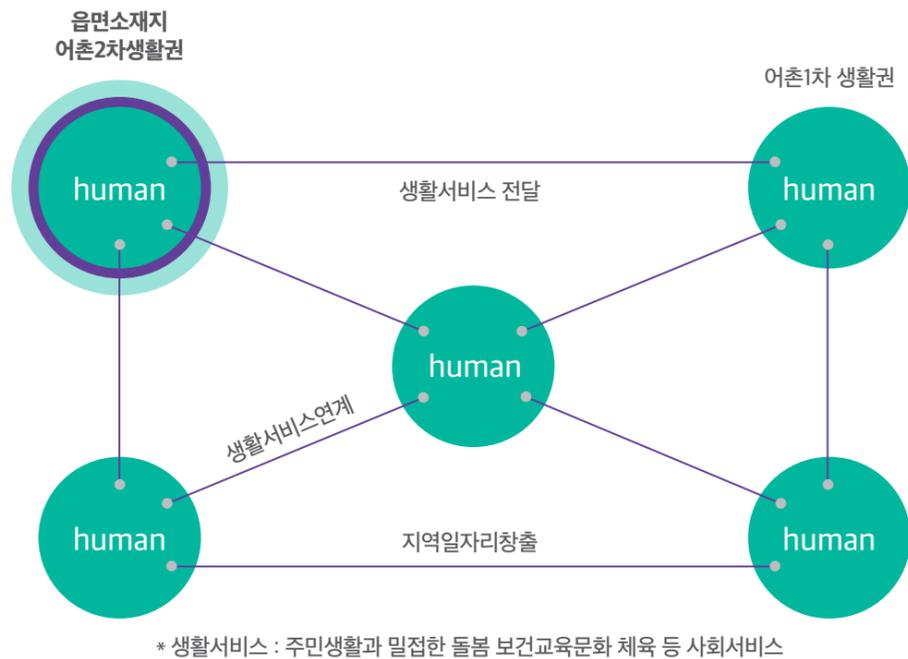
[그림 18] 농촌협약개념도(농촌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제공)

②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반면 어촌지역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에 의한 어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어촌공동체 중심으로 어촌계를 비롯해 부녀회, 마을자치회, 청년회 등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생단체를 비롯해 지역 상인회 등과 같이 지역 내 특정 목적을 위한 단체나 모임,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계획을 말한다. 특히 어촌생활권을 정립하여 생활서비스가 연계되고 경제 생태계가 형성되는 공간적 범위로서, 도보 중심의 1차 어촌생활권과 행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의 2차 어촌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권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차 어촌생활권은 어항을 중심으로 배후마을과 연결한 마을, 동일한 어업권을 가지거나 수산업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등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로, 도보권을 기준으로 중심 어항에서 5km 내외로 범주를 정하였으며 2차 어촌생활권은 1차 생활권을 서로 연계하고 생활서비스를 전달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어촌형 생활권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추진조직에서는 앵커와 링커의 개념을 통해 조직화를 재설정하여 지역 내 전문가 그룹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주거환경 개선, 어촌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어촌의 가치를 높여 지역주민의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 인구를 유입 그리고 어촌생활권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소재 기업과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어촌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재생을 통합적으로 실현하여 어촌생활권 단위의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 마련과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사업추진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역맞춤형 사업모델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중 어촌생활권의 거점시설인 어촌스테이션의 경우 생활서비스 전달 및 로컬 창업의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대상지 내 자원의 특성 및 생활서비스 공급수준 분석을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거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어촌스테이션은 1차 생활권에 위치하여 돌봄·복지, 문화·교육, 관광거점, 수산업 지원시설 등 어촌활력증진 지원 사업의 촉매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장소로, 사업 대상지 내 1개 이상 설정이 가능하다. 2차 어촌생활거점은 일반적으로 어촌지역의 행정·업무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읍면 소재지 내 중심지로 설정하고 있다. 단, 지역에 따라 1차 어촌생활권이 읍면동 소재지와 차량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위치에 입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지 내에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 등 기존 기능을 고려하여 면소재지 내 서비스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2차 어촌생활 거점 설정이 가능하게 설정해 놓았다. 어촌생활권 사업은 타 사업과 달리 앵커조직이 사업의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혁신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역할을 부여하였다. 특히 지역 내 생활 서비스 연계 및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생활서비스 지원기관, 지역 소재 기업, 지역가치 창업자 등 링커조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발굴·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도 수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링커조직은 돌봄, 교육, 문화 등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 주체와 지역 소재의 기업, 전통 기술을 보유한 주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가치창업 활동을 하는 소셜벤처, 로컬벤처 등 다양한 활동 주체의 참여를 구체화 하였으며 공간 환경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및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어촌생활권 단위 공간 관리방향과 전략, 세부 사업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화 모델을 구축토록 하였다. 현재 부산에서는 기장 문동항이 선정되어 진행 중이며 생태, 에너지, 생활서비스부분과 더불어 경제 환경 재편성을 기반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림 19] 어촌생활권사업 생활권 연계 방안

다. 타 지역 N분도시 사업

1) 서울시 보행일상권 계획

부산시 15분 도시와 유사한 서울시의 보행일상권 계획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인 '보행 일상권 조성'을 통해 개인의 생활 환경 안에서 일자리·여가문화·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도보 30분 내 누릴 수 있도록 한 자족적인 근린생활권을 의미한다. 서울 전역에 보행 일상권을 조성해 시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히 주거지가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달라진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 공간 개념을 도입하여 '나'라는 개인의 생활 환경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도보 30분 내 누릴 수 있는 보행 일상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20] 서울시 보행일상권 계획

물리적 환경으로는 인구 7~8만 명을 기준으로 행정동 2~4개소 도보기준 30분 내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심지, 자연환경, 문화환경 시설을 구분하여 중심지의 경우 역세권 2~4개 권역과 10개 이상의 지역 공공의 료시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자연환경의 경우 20개의 작은 공원, 녹지, 하천과 수변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 친화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로 조성하고 배후 주거지와와의 접근성을 높여 수변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한강'은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그 외 문화시설과 생활서비스시설, 자원순환시설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두고 있다. 서울시 보행 일상권은 실제 공간에서 지구중심, 역세권 등으로 대변되는 '거점'과 1~3개 행정동 규모의 '배후주거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지구단위 중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정된 경계를 설정하기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규모와 범위 내에서 일상 생활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도보뿐 아니라 자전거, 개인형 이동수단(PM), 마을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한 보행일상권의 실현을 위해 기존 도시계획사업 및 역세권활성화사업과 연계하고, 보행환경, 생활SOC 관련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통한 사업모델을 진행 중에 있다.

2) 제주형 15분 도시

제주도의 15분 도시는 사람중심 도시에 초점을 맞춰 읍면동의 섬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계획으로 제안되었다. 생활서비스 현황분석 및 생활권 설정에 따라 시범지구선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 15분 도시는 생활환경의 필수시설을 생활, 건강, 여가, 돌봄, 교육으로 분류, 도보로 15분 내에 5가지 필수시설을 연계하여 향후 업무까지 포함하여 5+1을 생활필수 기능값으로 설정하여 계획되어 있다. 각 기능에 따른 세부 시설을 보면, '생활'에서는 은행, 소매점,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파출소, 지구대, 시청, 경찰서, 소방서, 도청, 경찰청, 공영주차장, 클린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돌봄'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노인교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제시했다. '건강'은 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약국, 보건소, 의원, 체력단련장, 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체육도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가'는 공공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생활문화센터, 지역거점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거점형 공간 등을 기반으로 연계성을 확보하는 계획이 바로 15분 도시 계획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동 편의 향상과 시설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해 제주시 동 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 제주 동·서부 지역 등 4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한 뒤 3개년(2024~2026)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차 제주도 전 지역으로 넓혀간다는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세부생활권을 구분하여 제주도심 생활권 13개, 서귀포시 도심생활권 5개, 동부생활권 6개, 서부생활권 5개로 총 30개 15분 도시 생활권을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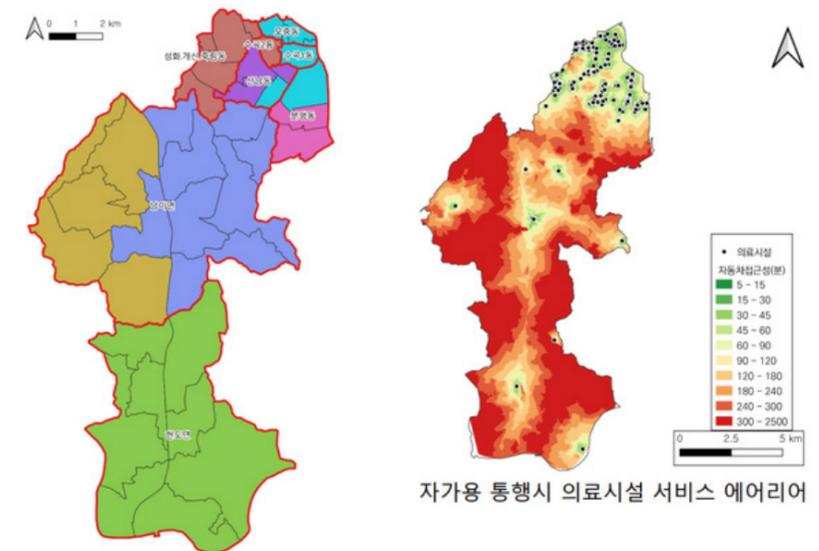


[그림 21] 제주 15분 도시 생활권 설정

인구 규모의 경우 도시공간은 1만 5000명~5만 명, 농촌지역은 1만~2만 5000명을 기준선으로 제시하고 있으며(우도면과 추자면은 예외) 주요 이슈인 '보행환경 개선 및 자전거·대중교통 활성화', '도심 내 공원공간 확보', '생활권 내 생애주기별 돌봄' 등을 세부 키워드별로 도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실천가능성을 모색 중에 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성, 근접성, 지속가능성, 포용성 등 15분 도시의 핵심 원리에 따라 15분 도시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청주형 15분 도시

청주형 15분 도시'는 도시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내, 농촌에서는 대중교통(수용 응답형 콜버스¹⁴⁾ 포함)으로 15분 내 청주시민 모두가 일상에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고민처럼, 동 지역과 면 지역의 지역 격차가 커 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한 15분 거리 안에 모든 생활 인프라를 집적시키는 '일상생활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의료·복지·교육·학습·문화·체육·생활편의·공원·교통 시설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권 계획으로 기존의 면적, 공간 개념으로 구획했던 도시를 '시간' 개념에 집중해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권별 생활서비스의 적절한 공급과 접근성을 높여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그림 22] 청주시 15분생활권 내 탄력적인 운영계획(의료부분)

청주시는 도농 통합시로, 비도시지역에서는 보행이나 자전거로 15분 내 필요한 생활서비스에 접근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용 응답형 콜 버스 인프라를 포함하는 '중생활권'으로 사업 규모가 확장되고 있으며 '15분 도시'의 개념을 도입하여 생활권마다 병원과 약국, 의원, 어린이집, 경로당, 초·중학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파출소, 소방서, 전기차 충전소,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과 도보를 이용해 15분 거리 안에 모든 생활 인프라를 집적시키는 '일상생활권 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더욱 밀도 있게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짧은 거리 안에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행정구역상으로 같은 동, 같은 면으로 묶여있다 하더라도 가운데에 산과 강이 지나갈 경우 같은 생활권이라 보기 어려웠지만 이 개념으로 대중교통, 도보를 이용했을 때의 생활권을 한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으며 도보로 15분 내에 생활 인프라를 집적시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종합병원 등 청주지역에서도 단 1곳만 존재하는 시설의 경우엔 각 생활권마다 구축할 수 없어 개념을 5km 이내 대생활권으로까지 확대 조성하여 소·중·대생활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지역 간 특화하여 연계하는 방식으로 15분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4) 수용응답형 교통체계의 한 수단으로 대중교통의 노선이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 경유지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운송서비스를 의미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버스를 탈 수 있는 능동적인 대중교통수단을 의미한다.

3. 15분 도시 차별화 전략

이처럼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살펴본 15분 도시와 연계된 사업들은 생활권 계획 내에 소생활권 범위 정도에서 계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생활권이라는 틀에서는 비전과 목표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며, 보행권과 정주권이 주요한 사업계획에 정립되어 있으나 여전히 토지이용에 관련된 계획수립에 국한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계획참여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는 마을단위 세부계획과 더불어 민관참여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과 지역의 특수성인 인구감소지역 계획까지 생활권 개념이 도입되어 있다. 특히 일자리와 더불어 생활인구 인식전환, 기존의 정주환경과 지역커뮤니티 중심에서 벗어난 개념까지 확장되고 있다. 또한 도시와는 조금 떨어진 농어촌지역의 경우 소재지 중심과 주변지역을 협약 또는 1차, 2차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부분 거점별 생활서비스 통합화 및 경제비즈니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타 지역 15분 도시의 경우 의료, 복지, 문화, 보건, 교육, 돌봄 등 하나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통합적 계획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계획들은 기존의 관리형 도시계획과는 다르게 생활중심, 보행중심 그리고 생활서비스 강화를 통해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보행권 확보는 대도시의 경우 기존 자연환경과 중심지에 형성되어 있는 공개공지 또는 도심형 공원, 하천, 워터프론트 중심으로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은 보행환경보다는 교통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그 외 거점시설의 경우 기존의 걸림 및 쇠퇴를 문화, 교육, 건강, 보건 서비스 등을 통합형 또는 연결성을 확보하여 서로 다른 성격의 서비스를 상호보완하는 방식으로 정립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15분 도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물리적 환경과 생활서비스를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행화를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적으로 조직, 시스템, 그리고 거점시설의 활용적 측면에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가. 유연한 조직체계

15분 도시는 다양한 부처 간 업무영역의 재편성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즉 현재 행정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이러한 통합적이고 연계성 확보를 위해 유연하게 접근하여 정책들의 입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거점시설에 탑재되는 콘텐츠와 내용들이 문화, 복지, 보건, 교육 등을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를 실행하는 부처 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시스템은 물리적 환경에서 조성되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은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행정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상과 타깃이 달라짐에 따라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로서 행정에 국한해서 조직체계의 유연함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와 공급자의 조직을 상하관계에서 수평관계로 기본적인 역할과 논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그다음은 지역에 기 구성된 조직들이 맡아서 업무분장을 재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 연계형 행정조직과 워킹그룹 형식의 부처 간의 의견수렴 창구를 다각화하는 전략을 통해 기본 단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상위부터 하위단의 주민센터까지 행정조직의 변화는 좀 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는 다시 커뮤니티 조직에서도 연결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한다. 사실 그간 유사 사업에도 커뮤니티 조직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들이 관주도하에 만들다 보니 구성력은 가지도 실천과 참여에 대한 부분에서 시간이 갈수록 지속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15분

도시 단위에서도 이해관계 주민들을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즉, 상인, 주민, 직장인, 청년, 문화예술인 등 이러한 조직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 말이다. 우선 우리 동네 사람지도와 같은 사람연결망 지도를 통해 지역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작업을 했으면 한다. 쓰는 언어는 달라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기에 그만큼 중요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의 유휴공간들과 크리에이터의 연결방안을 모색한다거나 중간 브로커(?) MD조직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방식 등 구체적인 의제와 의견수렴이 연결되도록 조직이 구성되었으면 한다. 우리 동네 발굴단, 체험단, 실천단같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연결되도록 유연한 조직이 만들어 졌으면 한다. 이를 위한 전제는 단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지역별 운영사 또는 대행사 같은 민간협력기업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 받아 개선하는 최소 3년 이상 지역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이 존재하였으면 한다.

나. 기존 거점시설 재활용 모델 구축

도시계획적 프로세스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구획과 구역으로 권역을 정리하는 과정과 몇몇 선도 및 시범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예시를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위한 시행지침의 근거를 만드는 작업에서 그치기 때문에 이를 실천적인 사업으로 연결하려면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방식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침은 타깃, 콘텐츠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로 만들어진 거점사업보다는 기존의 공간을 활용하여 새롭게 시간 단위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복지관 등은 이미 지역 내에 거점시설로 활용되고 있지만 단순히 하나의 기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다기능으로 전환하여 좀 더 가동률을 높였으면 한다. 최근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서 조성된 거점시설들을 15분 도시의 거점공간으로 리뉴얼한다는 내용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거점과 유휴거점시설에 따라 프로그래밍을 달리 해야 한다. 이미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핵심콘텐츠를 훼손하지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한다면 좀 더 재미있는 실험실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반송큰시장에 거점을 둔 풍류다방같이 청년들이 필요한 악기 공방이나 연습실로 활용하거나 이를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테스트베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지원된다면 이들은 지역참여방식을 다양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이러한 팀들에게 거점시설들이 제공된다면 통합된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며 15분 도시의 하위 단에서 구성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다. 커뮤니티와 시스템의 콜라보

15분 도시는 기존에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등으로 이미 구축된 다양한 커뮤니티와 지원 네트워크가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산시의 경우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지역마다 사회경제적 조직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조직은 주민주도형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역량과 구성력 그리고 실천적인 활동을 위한 참여도가 저조함에 따라 조직력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기존 사업들은 거점시설 구축은 용이 했으나 커뮤니티에 대한 전문성이나 비즈니스적 마인드의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15분 도시가 새롭게 리브랜딩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 및 역할부여를 할 수 있다면 인적자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앵커조직을 육성하

였으면 한다. 앵커조직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조직을 중심으로 관계성을 재확립을 통해 통합적인 사업들과 연결한다면 지역 내 필요한 지원 네트워크 조직으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다. 또 하나의 제언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포용력이 높아졌으면 한다. 생활 작업단위 개념 주민의 범주를 확장한다면 어렵지 않게 주체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영청넷이라는 청년조직들의 활동이 문화, 보건, 일자리, 창업 그리고 복지 분야로 확장된 네트워크 모임을 참여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영도의 청년들은 거주인구보다는 생활인구 즉 직장이 영도에 있어 청년 활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본인을 소개할 때 “직장은 물리치료사이지만 저는 지금 문화기획자, 크리에이터 디렉터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부캐의 시대인만큼 하나만 잘하는 전문가가 아닌 다양함을 엮어내는 전문가가 이미 지역에는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의제 발굴과 참여자의 아이디어로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고 지역네트워크에 생활인구의 개념을 넣어 참여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다시 업역에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동시에 고령화와 복지, 어린이와 교육환경, 주민들과 문화 활동 및 비즈니스 그리고 범죄예방까지 사회적 문제를 콜라보된 프로그래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주요키워드	역할	비교
01	조직의 범위	- 사업유형별 행정조직의 연결망 구축 - 주민조직의 범주 인식전환(생활인구) - 자립적 지역커뮤니티 발굴	캠페인 ↓ 거점시설 운영진단 (가동율, 관리운영상황)
02	거점시설 활용	- 지역별 유휴자산 (거점시설 오픈스페이스 등) 리스트업 - 각 부처별 거점시설 통합플랫폼화 - 모델하우스형 활용방법 제안	↓ 시공간단위 운영체계 ↓ 초기 실험형 프로젝트
03	협업모델	- 장르별 협업형 모델 제안 - 협업과제 도출 및 구체화 (수익화포함) - 지역간 협업 프로젝트 확장	↓ 모니터링 ↓ 지속성 프로젝트
04	테스트베드	- 실험형, 수익형, 아카데미형 등 테스트베드 프로젝트 - 장기프로젝트로 연결성 확보 - 유입된 팀들 간의 콜라보	↓ 지역간 연계 프로젝트 확장

[표 3] 15분도시 실행화 단계 주요 키워드

결국 15분 도시는 계획된 사업들을 구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이러한 조직과 거점들을 활용하여 생활권 단위로 세밀하게 계획하고 활용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였으면 한다. 물론 보행권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와 동시에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실행단위에서 실험하는 과정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결국 공간적 집합체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교류와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영역을 통해 커뮤니티와 연결된다면 더욱 유기적인 공간으로 탄생될 것이다. 정형화된 계획보다는 실천적 계획을 수립한다면 15분 도시를 익숙하게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거점, 협업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통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별 계획이 제안되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조직이 어떻게 바뀌고 참여형 커뮤니티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캠페인 또는 인식 변화를 위한 방법과 지역마다 거점시설들의 재점검을 통한 좀 더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협업모델을 통한 시공간 단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면 한다. 하나의 기능과 역할만이 아니라 실험형, 지속형, 유형별, 시간대별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거점시설 중심의 물리적 환경과 결합한다면 하나의 거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을 거점시설에 국한하지 않고 오픈스페이스까지 확장된다면 더욱 다양한 주체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역 간의 협업으로도 확장가능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계획들은 지역별 생활특성에 따라 재편성되어야 하며 지역민 중심으로 다양한 참여자들의 역할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시작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생활권 이론과 생활권계획 실태 분석 연구: / 서울연구원 / 오병록/2012.2. 근린주구 계획개념의 한국적 적용과 변용에 관한 연구/2016/ 서울대학교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계획 / 서울연구원 /양재섭, 성수연 /2017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3권, 4호: 1-20
도시 실행력을 위한 생활권계획 도입방안연구 / 국토연구원 / 2021
생활권계획 수립범위와 실행계획에 관한 연구 / 울산연구원 /정현욱/ 2021
농업 혁신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정 전략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아우리 /2022
다양한 도시계획·제도 활용과 서울만의 특성 살려 이동시간 줄이고 삶의 질 높이는 '보행일상권' 실현 / 서울연구원 /2023

국토용어해설 근린주구, 생활권 /국토연구원/ https://library.krihs.re.kr/bbs/content/2_935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www.burc.or.kr/web/contents/view.do?mId=49>
도시재생종합센터
<https://www.city.go.kr/portal/policyInfo/urban/contents04/link.do>
서울아카이브 <https://seoulsolution.kr/ko/content/9885>
동네에서 봐오, 우리 /지역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본 하이퍼 로컬 시대 https://www.rcda.or.kr/webzine/202111/webzine_view03.asp
농촌협약 개념도 <https://www.raise.go.kr/raise/geoInfoSystem/goMenu.json>

V. 시간 중심 도시계획과 문화적 실천 사례

원향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연구

V.

시간 중심 도시계획과 문화적 실천 사례

원향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5분 도시 창시자인 소르본 대학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는 ‘15분 도시는 마술 지팡이가 아니라 각 도시의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¹⁾ 고 주장한다. 각각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해결 과정에 시간중심 도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생태적 과제, 빈곤퇴치를 위한 경제적 과제, 소외 퇴치의 사회적 영향이라는 우선순위에 기반하되, 실질적인 방법론은 각 도시만의 레시피를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부산 또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도시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을 통해 15분 도시 레시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시간 중심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 영국 에든버러의 사례를 부산시의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각 도시마다 어떻게 도시의 문제를 시간 중심 도시계획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문화예술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랑스 파리 [15분 도시(ville du quart d'heure)]

1) 프랑스 파리 [15분 도시] 주요 내용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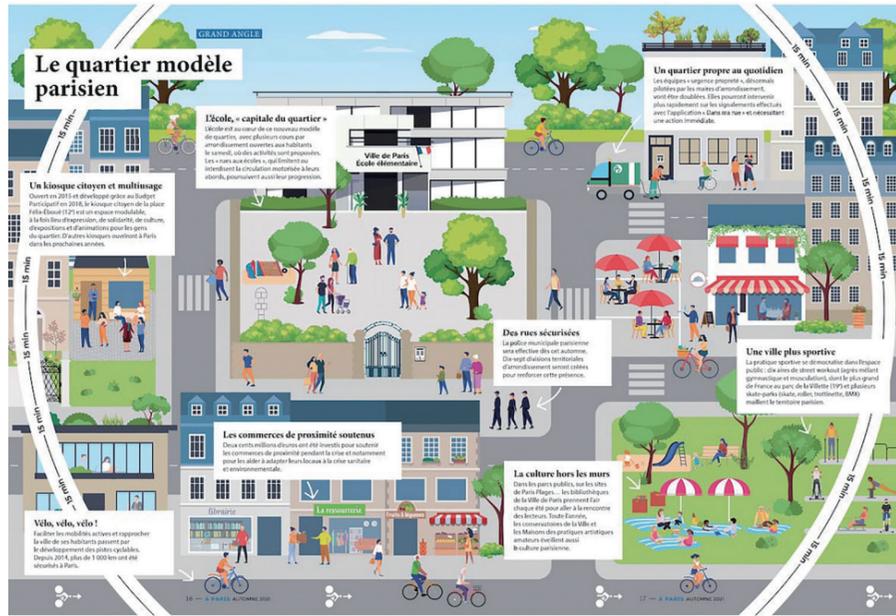
시간중심 도시계획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는 모든 주민들이 파리의 공통적인 핵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장소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장소들이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의 지역사회 연결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파리의 15분 도시의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주요정책	실천과제
자전거와 보행 인프라 정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까지 파리를 100% 사이클링 도시로 전환 • 주요 노선 및 외곽순환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 30km/h 속도 제한 적용
녹지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ha의 신규 공공 정원 조성 • 녹색도로 및 오아시스 학교마당 조성
공공 공간 전환 및 이를 위한 주민 참여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교통정온화, 녹지화 등 분야별 진단 및 평가 진행과 공청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 • 온라인 플랫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완전한 동네' 구축과 번영을 위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마을 '중심'로 조성, 학교 운동장 녹지화 및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예술플랫폼 구축, 시민 키오스크 활성화 등

1) 파리시청 홈페이지 <https://www.paris.fr/pages/la-ville-du-quart-d-heure-est-une-reponse-a-l-urgence-climatique-et-sanitaire-15929>
 2) 참고자료 파리시청 홈페이지 <https://www.paris.fr/dossiers/paris-ville-du-quart-d-heure-ou-le-pari-de-la-proximite-37>

지역상점 활성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수공업자 지원사업 등 ·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린업종이나 수공업자들에게 임대 및 정보 제공
주택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를 위한 주택 공급 · 중산층을 위한 중간임대료 주택 제공 및 임대료 제한 조치 등

[표 4] 파리 15분 도시 주요정책



[그림 23] 파리 15분 도시 모델 지구
(출처: <https://www.paris.fr/dossiers/paris-ville-du-quart-d-heure-ou-le-pari-de-la-proximite-37>)

파리는 15분 도시를 위해 크게 공간의 변화, 안전하고 청결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장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이트클럽을 체육관으로, 학교를 주말에 모든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의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 통학 시간 동안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로컬 기업과 상점들의 소비를 장려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Make in Paris' 라벨을 사용한 현지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결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결 관리자를 지정하고 자치 경찰을 창설하고 있다. 15분 도시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인 공간의 변화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24] Maryse Hilsz학교의 참여적 건설현장
(출처: <https://sites.google.com/caue75.fr/courseasismarysehilsz/accueil>)



[그림 25] Quatre Fils 초등학교 참여적 건설 현장
(출처: <https://www.caue75.fr/content/les-chantiers-participatifs-des-cours-oasis>)

['동네의 중심'으로서의 학교] 학교, 대학교, 어린이집과 같은 지역의 공공공간은 토요일에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 현재 42개의 학교와 29개의 어린이집이 토요일에 문을 열고 있다. 토요일에 개방하는 어린이집에서는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교 및 대학에서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되는데, 예술, 스포츠, 정원 가꾸기, 연극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단위도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학교와 대학의 안뜰 공간을 개조하기 위하여 학생과 성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로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면서, 학교 내 공간을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조성과정에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이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다.

['문화를 주민에게 가까이 - 예술 플랫폼] 지역의 '예술 플랫폼'을 개발해서 파리의 문화기관과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예술 간의 적절한 공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 민주주의 - 시민 키오스크] 파리의 15분 도시는 몇몇 시범지구에서 지역에 맞는 15분 도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림피아데스 지구에서는 이동식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6년 두 명의 시민이 주민 의회에 제출했던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DIY도서관을 만들었다. 플라스 데 페트 지구에서는 시민의 키오스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특히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마을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몽마르트 관문 지구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사업들을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26] 몽마르트 관문 지구(quartier porte de Montmartre) 시민의 키오스크
(출처: <https://www.paris.fr/pages/le-quartier-porte-de-montmartre-au-rythme-de-la-ville-du-quart-d-heure-20898>)



현재는 파리 중심부 외에도 교외 지역까지 15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근접성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파리 의회는 2021년 11월에 파리 근접 조약(Parisian proximity Pact)을 체결하여 각 지구 행정주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행정 주체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 기금도 조성하고 있다.

2) 프랑스 파리 [15분 도시] 의 문화적 실천 전략³⁾

[교통패스의 문화적 기능 추가] 파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감한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문화적 장소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리 지역의 대중교통패스인 나비고(NAVIGO) 패스에 문화적 기능을 추가하였다. 지역 내 300여 개의 문화공연장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는데, 요금 할인, 동반자 무료 티켓, 워크숍 참여, 시사회 및 오프닝 초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유휴공간의 임시적 활용] 파리 지역의 유휴공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2019년부터 공공 및 민간 파트너들에게 파리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 도시농업, 예술 및 문화 창작 등의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유휴공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지원을 하고 있다. 평균 4년 정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임시 활용 전에는 유휴공간의 잠재성과 가용성을 파악하고,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면서, 필요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임시적 활용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사전 파악을 실시한다. 활용 기간 중에는 가급적 다양한 용도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또한 문화적인 제3의 장소 창출을 위해서 예술가, 프리랜서, 스타트업을 위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술가와 창조인력을 위한 워크숍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공유정원(Les jardins partagés)과 녹화 허가(Le permis de végétaliser)] 파리에는 주민들이 가꾸는 녹지 공간인 공유정원이 있다. 동네의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다. 공유정원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파악한 후 주민들은 협회를 결성하고 도시 정원사를 위한 자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조성할 수 있다. 공유정원을 관리하는 주민은 대중에게 공유정원을 공개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녹화 허가는 최소 5명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공장소의 보도나 광장의 녹화 작업을 하는 것인데, 보도 가장자리, 자투리 공간에 식물을 심고 가꿀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그림 27] 녹화 허가 프로젝트 사례
(출처 : <https://www.paris.fr/pages/un-permis-pour-vegetaliser-paris-2689>)

3) Odile Soulard, 「CULTURE&PROXIMITY IN PARIS REGION」, 2023 부산문화컨퍼런스II 발표문 참조

2. 에든버러 [20분 네이버후드(20minute Neighbourhood)]⁴⁾

1) 에든버러 [20분 네이버후드] 주요 내용

에든버러는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20분 만에 일상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20분 네이버후드를 추진하고 있다. 에든버러 또한 20분이라는 절대적 시간보다는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 큰 방점을 두고 있다.

에든버러의 20분 네이버후드는 도시의 빈곤 해결, 에든버러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공간에 의료, 보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지원주체들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에든버러는 20분 네이버후드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회복력이 있는 지역
- 각 동네 내에서 제공되는 공공부문의 고품질 서비스의 공동 배치
-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의 변화
- 지역 내에서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경제 및 기업의 지원
- 도시 전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 개선을 통한 탄소배출 감소 목표 달성
- 빈곤 예방에 중점을 둔 공공 서비스 접근 방식 개선
- 자원봉사 영역 허브를 통한 사회자본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자원봉사 시설, 서비스, 네트워크의 강화
- 녹지 및 열린 공간이 제공되는 도시 및 지역 센터의 고품질의 장소 만들기
- 더 많은 현지 근무와 주변 동료 직원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 방식
- 20분 네이버후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여행
- 모든 사람에게 온라인 서비스 또는 '5초 네이버후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및 스마트 시티 전략 제공

에든버러 20분 네이버후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역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지원, 단일 지역에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파트너십 작업, 교통망의 효과적인 사용, 녹색 및 사람 중심의 지역 센터 설계, 번성하는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구성요소로 제안하고 있다.**

20분 네이버 후드의 5가지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다.

장소 공유 계획 세우기 :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공간 활용계획을 세우고, 이를 스코틀랜드 정부의 장소계획과 연결한다.

기존의 기회 활용 : 이미 20분 네이버후드와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었거나 논의 중인 지역들을 활용해서 20분 네이버후드의 추진력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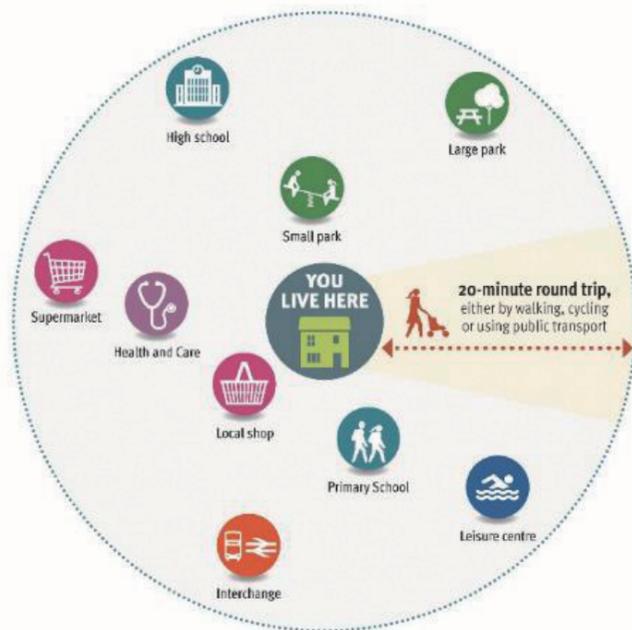
4) 참고문헌 : The Edinburgh Council, 「20minute neighbourhood-Living well locally」
The Edinburgh Council, 「Citywide Culture Strategy 2023-30」

건물이 아닌 서비스 중심 : 다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활용에 대해 지역 주민의 요구, 기후위기 대응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춘 업무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원의 재편성 : 각 지역별 계획 수립 후 시행을 위한 자원을 편성하는데 장소기반 이니셔티브 기금과 같은 재원 조달계획도 활용한다.

지역 비즈니스 연계 : 이미 지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비즈니스 컨설팅,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을 시행한다.

에든버러 20분 네이버후드에서도 학교의 활용을 핵심 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학교에 대해서는 상세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20분 네이버후드에 적합한 학교 환경을 고려하도록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공간, 민간 등의 다양한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림 28] 에든버러의 20분 네이버후드 모델

2) 에든버러 [20분 네이버후드]의 문화적 실천

에든버러 20분 네이버후드는 초창기에는 문화부문의 계획은 없었고, 청정에너지 중심의 교통수단 위주로 구성되었으나, 시민의 이동권 제한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었다. 이후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과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의 플랫폼적인 기능을 인식하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있다.

[문화전략과 20분 네이버후드 연계] 에든버러는 2022년 문화전략을 수립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목표를 수립하였다.

- 모든 에든버러의 거주자는 자신의 지역에서 의미 있는 문화 체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지역 문화 제공에 기여할 기회를 갖는다

- 에든버러는 다양한 범위의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활동가들이 그들의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 이곳을 선택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원한다.

- 에든버러는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중심지이자 환경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도시로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교환되고 주민들의 다양성이 존중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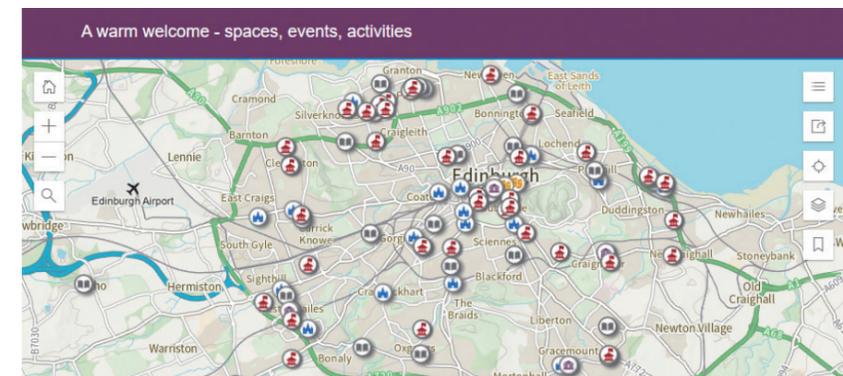
에든버러의 문화전략과 20분 네이버후드 전략은 첫 번째 목표인 에든버러 거주자의 문화접근과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중 20분 네이버후드와 지역사회 계획을 시 정부 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공중 보건, 사회 사업 및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웰빙에 대한 문화의 기여가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을 핵심적인 문화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분 네이버후드의 거점기관으로서 도서관, 문화공간 활용] 19세기부터 스코틀랜드 내에는 무료 공공도서관이 다양하게 분포해 왔다. 에든버러의 도서관은 책과 관련된 기능 외에도 노래동아리, 독서클럽, 바느질 모임 등이 일어나는 공간이고 20분 네이버후드 전략의 거점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도서관은 그 외에도 무료 와이파이 제공이나 출력서비스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 추가하고 있다.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되고 있다.

과거의 도서관 기능에서 벗어나 영유아를 위한 동요 모임 '책벌레(Bookbug)'와 지역 여성들의 커뮤니티 모임인 '바느질과 수다(knit and natter)' 등 지역사회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의 직원들은 지역 내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및 예술 관련 장소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장소로 쓰이기도 한다.

경기침체로 인한 난방비를 부담하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도서관과 예술센터는 '따뜻하게 환영하기(A Warm Welcome)'라는 이니셔티브를 실천하면서 그들이 따뜻하게 공공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행사는 연중 상시로 여는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각 공간에서는 커뮤니티 점심부터 아트팝업샵, 캐롤 부르기, 디제잉 및 파티 등 따뜻하게 환영하기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정보들은 에든버러시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림 29] 따뜻하게 환영하기(A Warm Welcome) 참여 도서관 및 공간 지도
(출처: <https://www.edinburgh.gov.uk/warm-welcoming-spaces>)

3. 부산 [15분 도시]⁵⁾

1) 부산 [15분 도시]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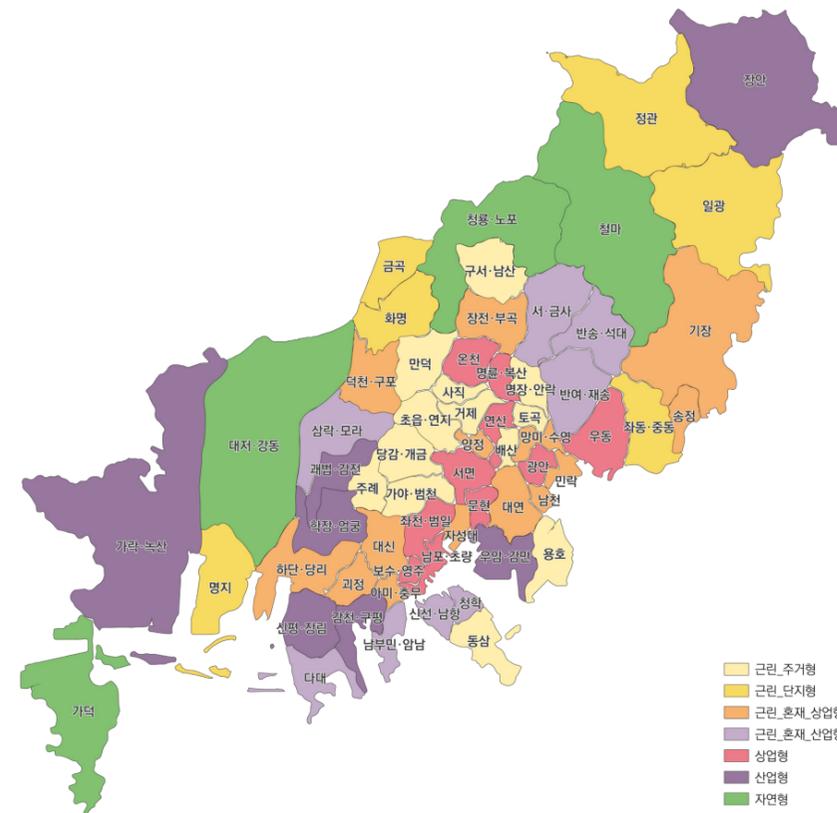
15분 도시 부산은 ‘도보와 자전거 등으로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여가 등 6가지 필수 기능을 15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모델’로 제시하면서 부산의 15분 도시를 ‘집 가까이 좋은 환경, 좋은 문화, 좋은 이웃이 즐겁고 행복한 도시’라고 소개하고 있다.

15분 도시 부산의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비전] 집 가까이 좋은 문화, 이웃으로 즐겁고 행복한 15분 도시 부산		
[가치]		
집가까이 / 접근성	이웃과 함께 / 연대성	깨끗한 환경 / 생태성
보행중심의 근거리서비스로 생활편의성 향상	교류·공유공간의 확충과 활성화로 커뮤니티 회복 및 활력	열린 녹지공간과 자원재활용 등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도시
집가까이 (접근성)	근거리 내 생활서비스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인 보행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성 향상 - 보행기반 생활권 조성원칙 - 승용차, 대중교통 등 전통적 이동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 민관의 저활용 시설 등을 이용, 주민 교류공간 확충·연결 - 들락날락, HAHA센터 등 연령별 맞춤형 공간의 복합화를 통해 세대간 소통 활성화 #갈맷길, #차없는거리 #경사형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들락날락 #HAHA센터 #생활체육시설 #역세권 복합개발 #캠퍼스타운 #로컬비즈니스 #새로운일자리	
이웃과 함께 (연대성)	사람과 삶, 공간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생활의 핵심가치 실현 - 학교/아파트 공동체, 스포츠클럽 등 자생적 커뮤니티 활동 지원 - 부산형 자원봉사 타임뱅크로 사회적 기여문화 활성화 - 공유/공동체 플랫폼을 우리동네 디지털 맵으로 제작/보급, 실시간 연결 #커뮤니티 활동 지원, #공유공간 플랫폼, #공동체 프로그램 플랫폼, #우리동네 디지털 앱, #도담주택/도담타운, #부산형 자원봉사 타임뱅크	
깨끗한 환경 (생태성)	일상생활에 밀접한 도시 공간의 생태적 전환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열린 생활형 공유공간 조성 - 선형공원, 24시간 개방형 녹지공원 등 그린 인프라 확충 - 공유전자전거 등 퍼스널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개방형 공원, #그린카펫, #스마트팜, #탄소발자국, #퍼스널모빌리티, #로컬푸드센터, #탄소제로건축물	

[표 5] 부산광역시 15분 도시 계획 주요 내용

5) 위 문헌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핵심정책 소개 - 15분 도시 <https://www.busan.go.kr/15minute/intro01>
 한영숙 외, 『15분 도시 부산 기본구상』,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2022.



[그림 30] 부산 62개 생활권 총괄도(출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생활권역 구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부산은 도시 특성에 맞게 62개 생활권을 15분 도시 조성 계획 기본단위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시범사업 운영] 2023년부터 15분 도시 부산 시범권역 사업으로 해피챌린지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진구를 시작으로, 영도구, 수영구, 사하구, 사상구, 동구, 북구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주요 사업은 보행 기반 생활편의시설 연결 등의 접근성 개선과, 주민 교류 공유공간 확충, 데이터 기반 도시관리 등이다. 또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15분 도시와 관련된 정책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당사자들이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15분 도시 추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간과 연결] 교육창업, 복지건강, 문화체육 등 각 영역별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들을 확충하거나 기능을 추가하면서 공간들을 이어 내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자문위원회, 공감정책단 운영]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5분 도시 관련 조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와 시민들로 구성된 공감정책단을 운영하고 있다. 각 구군별로 구성된 공감정책단은 2023년 현재 1,38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5분 도시 관련 각종 사업에 참여하면서 해피챌린지 거버넌스와 15분 도시 조성 관련 정책제안 및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2)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공공공간 활용 프로그램]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 관련 사업들은 15분 도시 차원에서 특화된 사업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15분 도시적 관점에서 연결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5분 도시 추진단 사업 차원에서는 시범권역의 생활권 내 소규모 문화공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과 시범권역 내 장소 특화 운영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당감개금권역에서는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와 마을 장날을 활용하여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열린 하하호호 맛실 행사는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앞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의 문화공간과 커피공간이 참여하는 부스 행사와 생활문화동아리 공연 등이 이루어졌다. 마을에서 존재하고 있으나 잘 알지 못했던 커피공간, 서점 등이 부스에 참여하여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림 31] 당감개금권역 [하하호호 맛실] 행사(출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또한 초등학교 강당이나 운동장을 활용해서 공연과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하하호호 콘서트는 지역주민들에게 초등학교 공간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15분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존 공간의 다기능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범권역 내 초등학교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에 대한 새로운 전유의 경험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 개포초등학교 하하호호 콘서트(출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민간문화공간 활용 프로그램] 또한 지역의 다양한 민간문화공간을 활용해서 생활권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역 소공연장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원먼스 페스티벌’은 민간 소공연장에서 6월 한 달간 매일 릴레이공연을 개최하는 축제이다. 생활권 주변 소공연장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행사는 2023년 기준 32개의 소공연장에서 공연팀 52팀, 참여예술인 약 215명이 참여했다. 소공연장 외에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특별 공연 ‘프롬나드 콘서트’를 운영하였고, 신인예술가 발굴을 위한 라이징스타 콘테스트도 함께 운영하였다. 참여자는 야외콘서트 1,700여 명, 소공연장 참여자가 약 1,500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15분 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민간 문화공간을 정책 실현의 조력자로 활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 15분 도시 추진 전략] 부산문화재단은 2022년 15분 도시와 관련하여 부산문화재단의 실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비전	15분으로 연결되는 문화적 전환 도시 부산		
가치	15분 생활권 도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동체 기반 연대 도시
목표	기초 단위 문화예술활동 기반 강화	탄소중립 문화예술활동 환경 구축	연대와 포용 기반 문화로돌봄 구조 구축
추진 전략	기초 단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탄소중립 문화예술활동 및 가이드라인 개발	문화로 돌봄 구조 마련
	동네 공간의 문화예술기능 강화	부산문화재단 ESG경영 강화	공동체 예술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문화예술정보 스마트 확산	생태보행환경 활용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문화생태계 연대 기반 조성

[표 6] 부산문화재단 15분 도시 추진 전략

이 전략은 부산문화재단 차원에서 15분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전략들을 수립한 것으로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15분 도시 차원에서 검토하여 재구성하거나 일부 사업을 신규제안한 것이다. 크게 15분 도시의 핵심 가치인 근접성, 생태성, 연대성 차원에서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근접성 차원에서는 구군 단위의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보 확산, 동네 공간의 문화예술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유니크메뉴’, ‘지역 문화예술 정보 전달 강화’ 등의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생태성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에 실현하고 있는 비치코밍 등의 기후위기 대응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부산문화재단의 ESG경영 선언 등을 실천과제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연대성 회복을 위하여는 문화예술교육,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및 커뮤니티 아트 활동가 인력양성을 실천과제로 제시하였다. 현재 이 실천과제들 중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이며, 해마다 사업 계획 수립 시 15분 도시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가치	추진전략	실천과제
15분 생활권 도시	기초단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① 하이퍼로컬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② 기초단위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운영
	동네 공간의 문화예술기능 강화	③ 우리동네 유니크베뉴(unique venue) ④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콘텐츠 공동 개발 운영 ⑤ 서부산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 조성
	지역문화예술정보 스마트 확산	⑥ 지역 문화예술 정보 전달 강화 ⑦ 하이퍼로컬 콘텐츠 크리에이터 연계 확산
탄소중립 그린도시	탄소중립 문화예술활동 및 가이드라인 개발	⑧ 문화예술계 탄소중립 실천 가이드라인 보급 ⑨ 기후위기 대응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부산문화재단 ESG경영 강화	⑩ 부산문화재단 ESG 경영 선언 ⑪ 부울경 기후정의 실천 네트워크 운영
	생태보행환경 활용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⑫ 걷기좋은 예술길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기반 연대도시	문화로돌봄 구조 구축	⑬ 맞춤형 예술교육 및 예술로 치유 활성화 ⑭ 반딧불이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공동체 예술 활성화 기반 마련	⑮ 커뮤니티 아트 활동가 양성 ⑯ 이웃집 예술가 pool 조성
	문화생태계 연대 기반 조성	⑰ 민간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환경 구축

[표 7] 부산문화재단 15분 도시 추진 전략 실천과제

부산문화재단의 실천 전략은 2022년 부산시 15분 도시 추진 전략보다 먼저 도출된 전략으로서 지속적인 평가와 재구성이 필요하다. 15분 도시는 부산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추진과정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연구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4. 소결

각 도시마다 시간중심 도시계획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양하며, 하나의 동일한 전략이 모든 도시에 만능해법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 각 도시별로 당면한 문제들을 도출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시간중심 도시 관점이 새로운 대안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도시들이 지금도 15분 도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본 파리나 에든버러의 경우 15분 도시를 수행하는 도시 규모는 부산에 비해 다소 작은 편이다. 그렇기에 더 과감하게 보행 및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더 마이크로한 규모의 15분 도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심과 주변부가 명확한 도시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중심으로 몰려있는 인프라들을 분산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의 경우 15분 도시를 추진하는 도시의 규모가 파리나 에든버러보다 광범위하다. 도시의 특성 상 하나의 중심과 여러 주변부로 나누어 질 수 없는 선형적인 도시 지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동쪽, 중앙부, 서쪽 권역별로 중심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부산이 가진 문제점이라면 권역별 중심부 간에 인프라의 불균형 해소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15분 도시 정책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가 부산이 가진 고민이어야 한다.

또한 15분 도시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파리나 에든버러가 15분 도시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책 중 부산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주변에 차를 막아서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한 파리의 추진 전략은 이미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에 차를 막아 안전한 등하곳길을 만들고 있는 우리의 사례가 그들에게 벤치마킹할 전략이 될 수 있다. 다만 부산이 이 지점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은 정책 개발 과정에 더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성 설정이다. 안전한 등하곳길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하여 학교 주변 거리에 인간의 시간을 더 많이 넣어볼 수 있는 기회로 확장하는 것이 15분 도시 실천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 하나의 목적으로 시작되는 정책이 다차원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15분 도시 성공의 핵심적 선결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성은영 외, 『15분 도시 실험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2021
 원향미, 「15분으로 연결되는 문화적 전환도시 부산의 실천 전략」, 부산문화재단 상반기 동향리포트, 2022
 한영숙 외, 『15분 도시 부산 기본구상』, 사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2022
 Odile Soulard, 「CULTURE&PROXIMITY IN PARIS REGION」, 2023 부산문화컨퍼런스II 발표문
 The Edinburgh Council, 「20minute neighbourhood-Living well locally」
 The Edinburgh Council, 「Citywide Culture Strategy 2023-30」

부산광역시 15분 도시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15minute/intro01>

에든버러시 홈페이지 <https://www.edinburgh.gov.uk>

파리시 홈페이지 <https://www.paris.fr/>

파리 건축, 도시계획 및 환경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caue75.fr/>

VI.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1. 15분 도시 부산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
2.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방향
3.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제안

VI.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원향미(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 15분 도시 부산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

■ 15분 도시 부산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및 주요 의견

부산이 지향하는 15분 도시에 대해서 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또한 15분 도시 실현과정에 문화예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했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15분 도시가 단순한 도시계획을 넘어 도시의 체질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15분 도시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문가적 시선에서 15분 도시의 상을 구현해 볼 수 있는 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연구 과정 중인 지난 11월 2일부터 24일까지 5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문화예술, 행정, 로컬기업, 장애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던 자문회의에서는 우선 시간중심 도시 계획과 15분 도시 부산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 이후 부산의 15분 도시의 실현 가능성 및 선결과제를 도출해 보고, 15분 도시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정책 제언을 청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또 15분 도시가 문화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어떠한 방향성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자문회의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다.

	성명	성별	소속	구분
1	강동훈	남	독립서점 크레타 대표	공간
2	김병수	남	미션잇 대표	기업
3	김아란	여	부산 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전문연구원	청년
4	김영민	남	로컬바이로컬 팀장	기업
5	박상화	남	푸드 트래블 대표	기업
6	서종우	남	부산광역시 정책기획보좌관	행정
7	송교성	남	문화예술 플랜비 대표	문화
8	심보라	여	심오한 연구소 대표	청년
9	우신구	남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학계
10	이수금	여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
11	이인미	여	책방 비은후 대표	공간
12	이지훈	남	필로아트랩 대표	문화
13	정유경	여	부산관광공사 선임매니저	관광
14	최영	남	부산진문화재단 사무처장	문화
15	현광희	남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장애
16	김동규	남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원장	공동연구진
17	신지은	여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8	원향미	여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9	홍순연	여	로컬바이로컬 대표	

[표 1]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연구 자문회의 참여 전문가 명단(가나다순)

주요 자문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분 도시에 대한 이해도 제고]

- 15분 도시의 중요한 지점은 공동체의 재건이다.
- 15분 도시는 시간적 차원의 절약 개념이 아니라 생활권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차원으로 시민들에게 이해되어야 한다.
- 15분 도시는 탄소중립을 위한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이나 자동차 이용 억제 등 시민들의 공감과 공통된 합의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 사소하지만 일상적인 활동들을 문화적으로 발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15분 도시의 문화적 실천전략에서 필요하다.
- 현재의 15분 도시 계획을 생활권 내 시민들이 본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일, 놀이, 배움, 건강을 위한 활동들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등의 장치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기존 시설과 공간의 적극적 활용]

- 학교의 운동장, 도서관과 수련원, 지원센터 등 교육공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정확한 관리주체 선정으로 학교나 교육시설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도시텃밭 등도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화단을 도시텃밭으로 이용하는 등의 시도가 가능하다.
- 15분 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화 인프라와 비문화 인프라 간 결합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제3의 장소로 기능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문화적 요소를 결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 문화공간 인증제 등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마을공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 편의점을 15분 도시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행정에서 고민 중이다. 비문화 인프라 공간인 편의점에서 작은 규모이지만 공연이나 문화행사를 운영해서 문화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 15분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공동체의 재건인데, 생활권에 분포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복지관과 같은 거점공간에 커뮤니티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들 간의 접점을 이루어야 한다.
- 생활권 내 문화공간들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설과 공간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차원의 변화가 중요하다.

[공동체 활성화 및 활동 인력의 중요성]

- 지역 내에서 15분 도시에 관여할 수 있는 주체들이 다양해지도록 관광뿐만 아니라 마을의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는 크리에이터와 같은 선수들의 발굴과 연결이 중요하다.
- 15분 도시는 집 가까이에 좋은 환경, 좋은 문화, 좋은 이웃들로 즐거운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간의 사업들이 토건 중심으로 행해온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지역의 크리에이터와 같은 주체들이 기획하고 협력, 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다.
- 생활권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 15분 도시를 문화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한 문화기획자들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에서 무료로 문화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 지역에서 문화기획자들이 자리 잡아서 시민들과 공생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 지역민의 참여도 필수적이지만 생활인구, 관계인구 등 외부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도 필요하다.
- 마을교육공동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형성된 마을 공동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포용적인 15분 도시 구현]

- 15분 도시 구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각도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장애인이나 소수자들이 도시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15분 도시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선결과제인데, 장애인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15분 도시 정책 추진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 유아 등 개개인의 이동패턴과 시간 등을 고려한 입체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청년들의 경우 15분 도시에서 전통적인 공동체 회복과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 일과 문화를 생활권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 어린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15분 도시의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공공간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 투어’ 나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압박조끼나 피젯토이 등을 구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 15분 도시를 모든 시민들이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층이나 세대별로 15분 도시 부산 사용 설명서를 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

[전 사회적인 협력과 연결 필요]

- 15분 도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데 관광의 경우에는 도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15분 도시와 연계하여 고민할 수 있다.
-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기보다 있는 공간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부산문화재단 및 유관 기관들의 사업들을 15분 도시 전략과 연계하여 리패키징하고 연결해야 한다.
- 15분 도시 부산을 추진하는데 민간 주체의 참여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 15분 도시의 성패는 민간 영역의 적극적 참여인데 민간 공간, 조직, 프로그램의 참여가 더 보완되어야 한다.
- 15분 도시가 생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등의 사업들과 긴밀히 연결될 필요가 있다.

■ 15분 도시 부산 관련 전문가 자문 결과 요약

자문회의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우선 15분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을 언급하였다. 시간중심 도시계획은 단순히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근접한 거리에서의 삶을 통해 사람의 속도로 도시를 재구성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동체와 관계성의 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15분 도시의 철학이 생략된 채 도시에서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15분 도시를 구축하는 과정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시민의 도시권 회복에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도시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시민이 아닌, 나의 눈에 보이는 장소와 공간에 나의 의지를 담아 변화시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부산에서 15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략은 기존 시설과 공간의 적극적 활용이라고 전문가들

은 입을 모았다. 학교, 행정복지센터, 복지관과 같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편의점, 커피숍, 문화공간 등 민간 시설까지 15분 도시 실현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통해 마을의 공동 공간을 조성하였으나 주민 모두의 장소로 활용되지 못했던 선례를 반복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간의 쓸모를 사용자들이 직접 발견하고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15분 도시는 단순한 도시 재정비계획을 넘어 도시의 체질을 변화하는 계획으로서, 이 과정에서 15분 도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인력과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도시재생사업과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마을에 형성된 기존 공동체들과 잘 협력할 것과, 거주자 외에도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기획자 등 다양한 차원에 관계인과 생활인구들이 결합할 방법을 고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5분 도시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지점에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은 포용성이었다. 도시에 살아가는 평균적인 여건의 시민을 기준으로 수립되어 온 기존의 도시계획과 15분 도시는 달라야 한다. 도시를 사람의 속도로 구성하는 데 있어 각각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여성, 어린이, 노인 등 15분 도시의 평균 속도에 적응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15분 도시에 공동체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외에 익명성에 기반한 느슨한 도시 공동체의 가치를 소홀히 해서도 안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15분 도시가 단순한 도시계획을 넘어 전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도시경제 등의 영역이 함께 15분 도시의 의미를 고민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실천가능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영역에서도 15분 도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특정부서의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5분 도시가 도시의 새로운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대전제이자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방향

앞서 서술되었던 15분 도시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로컬의 가치 회복

- 로컬에 대한 접근성 회복, 도시 우선단위로서의 로컬의 가치 회복

15분 도시는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권역의 구분도 무너뜨린다. 시민 개인을 중심에 둔 다중심 도시를 지향한다.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로컬의 가치와 중요성은 15분 도시 구현에 있어 필수적인 선행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15분 도시 부산은 가장 작은 단위의 로컬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도시의 가장 우선 단위로서 로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로컬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면서 도시의 우선단위로서의 로컬의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

15분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용어가 ‘근접성’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일정 거리 내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근접한 거리에 어떤 시설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과연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우리는 거주지 주변의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다. 최근 들어 당근마켓, 네이버 우리동네처럼 사용자 주변의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 형성으로 로컬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당근마켓은 15분 도시 실현에 가장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이다. 물건 재활용, 근거리 교류로 탄소발자국을 줄이면서, 근거리에서 일어나는 행사, 가게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네이버 우리동네 서비스는 마을 단위 소상공인들이 지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로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그간 팽창 중심의 도시 경제에서 배제되었던 로컬이 새로운 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로컬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로컬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로컬의 가치를 회복하지 않으면 15분 도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때의 로컬은 구군 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람 기준의 거리와 시간을 중심에 두고 작은 단위에서의 이루어지는 시도들이 성공 모델이 확산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 15분 도시 시범권역 사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은 주민 몇 명이 모여 시작한 작은 단위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그 시도를 알려내고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늘 중앙정부-광역정부-기초정부의 방향으로 전달되어 오던 정책의 방향을 기초플뿌리에서부터 발신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광역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은 마을 단위에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작은 단위에서의 성공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광역으로, 국가 단위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시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

■ 시민의 도시권 회복 - 도시 운영 주체로서의 시민의 참여 기회 확보

15분 도시는 인간 중심의 도시 운영 구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 회복이 필요하다. 정책 수립, 결정, 실행, 평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래서 시민이 도시 운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지역 정치에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민원의 대상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된 현실에는 시민들이 지역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기회가 부족했다는 원인이 존재한다. 물론 구조적으로 시민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은 제한적이다. 직장을 다니거나,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는 이유를 이런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 참여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의 참여는 큰 단위보다는 내가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범위의 공간에서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전체의 쓰레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도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는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 덜 어려울 수 있다. 큰 광장의 활용에 대해서는 막연할 수 있어도 우리 동네 썸지공원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실현하는 데에도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이러한 도시에서의 전유 경험의 성공적으로 축적되면 시민은 어떠한 형태로든 도시 운영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 돌봄과 포용의 공동체 회복 - 포용과 서로돌봄의 공동체 문화 활성화

15분 도시에서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연대성의 회복인데, 문화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연대성보다 더 근본적인 전제로서의 포용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났던 전문가들은 15분 도시 계획이 평균적인

부산시민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그 기준에 배제되는 많은 시민들이 정책 실행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책 실행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책 실행과정에서 포용적 관점을 견지하여야 한다.

또한 15분 도시를 추진하면서 시민들 간의 서로돌봄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마을 단위에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능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포용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돌봄의 구조를 마을 안에서 만들어낸다면 상호호혜적 관점에서의 15분 도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 15분 도시로 부산의 오래된 미래 회복

15분 도시는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 ‘오래된 미래’에 가깝다. 과거 인간의 속도로 살아온 도시의 기억을 되살리고, 일상 가까이에서 이웃을 만나고,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결코 새로운 모델이 아니다. 마을 동네 슈퍼 앞 평상이 그러했고, 빨래터 우물가 이미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기억들을 현재의 도시에 적용하는 실험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변화한 트렌드를 인식해서 수정해 보는 기회가 15분 도시여야 한다. 앞서 제시했던 로컬의 가치 회복, 시민의 도시권 회복, 돌봄과 포용의 공동체 회복이라는 방향성을 견지하고 부산의 새로운 ‘오래된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정책 수립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제안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다. 작은 단위에서 실험과 평가, 수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되어야 하는 진행형 전략이어야 한다.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개요는 다음과 같다.

목표	시민의 도시권 회복으로 15분 도시 부산의 오래된 미래 구현		
핵심가치	근접성	시민주도성	포용성
추진전략	일상에서 찾는 문화적 전환	시민이 이끌어내는 도시의 가치	모두에게 활짝 열린 15분 도시
실행 제안	장소	우리동네 유니크베뉴 / 시민 연결 반려 장소 만들기	
	프로그램	15분 도시 부산 사용 설명서 / 15분 도시 시민 실험실	
	사람	15분 도시 문화활동가 양성 및 네트워킹 / 우리동네 히어로 연결망	
	연결망	15분 동네 포털	
	제도	15분 도시 조례 개정	

[표 8]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개요

■ 목표, 핵심가치, 추진전략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의 목표는 ‘시민의 도시권 회복으로 15분 도시 부산의 오래된 미래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15분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자 목표지점은 시민의 도시에 대한 권리 회복인데, 도시 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존재들의 잇힌 권리도 함께 대변할 수 있는 시민들이 15분 도시의 핵심 주체들로서 도시 운영의 적극적 주체로 역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가 이미 기억하고 있는 오래된 미래를 구현하는 것이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의 목표가 될 것이다. 핵심가치는 기존의 15분 도시 부산의 핵심가치인 ‘근접성’ ‘생태성’ ‘연대성’에 근거해서 ‘근접성’ ‘시민주도성’ ‘포용성’으로 문화적 실천의 핵심가치를 새롭게 도출하였다. 추진 전략으로는 일상에서 찾는 문화적 전환, 시민이 이끌어내는 도시의 가치, 모두에게 활짝 열린 15분 도시로 설정해 보았다. 이러한 목표, 핵심가치, 추진전략에 기반한 실행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우리동네 유니크베뉴

유니크베뉴(unique venue)는 MICE용어로 MICE전문 시설은 아니지만 도시의 고유한 컨셉이나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MICE 개최가 가능한 독특한 장소를 일컫는다. 즉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함을 장소의 가치로 두고 있다. 유니크베뉴를 15분 도시 정책에 적용해 보면 우리 동네에서 소박하게 즐길 수 있는 숨은 명소들을 찾아내서 가치를 알리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공간 입장에서 생활권에서 단골고객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시민들에게는 멀리 가지 않고도 독특한 장소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동네 유니크베뉴는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행사, 혹은 문화향유가 가능한 공간을 찾아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유니크베뉴를 발견하고 가치를 찾는 주체는 시민들이다. 즉 시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 유니크베뉴를 발굴하고 확산하면서 장소의 가치를 찾아내고 새로운 전유의 경험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때 유니크베뉴는 민간과 공공을 다 아울러야 하고 문화 공간 외의 공간들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장소의 발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전유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

▷ 제안 프로젝트

[우리동네 유니크베뉴 지도] 시민이 직접 동네의 명소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공공과 민간공간, 문화공간 및 비문화공간, 썸지공원 및 자투리 장소 등 다양한 공간이 해당된다.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지도화하여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유니크베뉴 공간 중 일부에게는 환경개선, 프로그램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틈새의 문화 오아시스] 유니크베뉴 공간 중 원래 개장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일시적으로 개장하여 문화 행사를 운영하기, 통상적인 개장 시간에는 찾아갈 수 없는 시민들에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원래 장소의 기능 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볼 수 있는 실험이 가능하다.

[팝업 마켓 운영] 유니크베뉴 공간 중 오픈된 거리나 공원 등에서 팝업 마켓 열기, 인근 지역의 농가들이나 도시농부들,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터를 시도해 본다. 작은 문화행사도 함께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해 본다.

[우리동네 유니크베뉴 배리어프리 데이터] 장애인, 노약자들이 우리동네의 유니크베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한 지점이나 개선 과제들을 도출해 보고 개선안을 찾아본다. 유니크베뉴를 장애인, 노약자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비장애인들은 공간에 대한 관점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장애인, 노약자들이 정책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순천남초등학교 [세대공감 비타민 센터]

순천남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생 감소로 발생한 학교 내 유휴공간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하여 '세대공감 비타민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시설 내에는 마을조합과 저전동 현장지원센터, 공유주방, 작은도서관, 마을박물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도 입주하여 '중년 함께 배움 학교'와 같은 신중년층 대상 사업도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공간은 예술단체를 입주시켰고, 운동장 일부를 생태놀이터, 텃밭, 실습장으로 운영하여 아이들과 함께 농작물을 기르는 등의 사업들을 운영하여 마을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조성 당시 학교 시설의 개방으로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오히려 마을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33] 세대공감비타민센터 전경



[그림 34] 학생 참여 지역 불편 지적 지도

■ 시민 연결 반려 장소 만들기

부산대학교 뒤편 등산로 초입에는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작은 개울이 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공간은 주민 한 분이 남편의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돌을 고르고, 주변을 정비하고, 식물들을 심어 가꾼 결과였다. 개인의 노력으로 가꿔진 멋진 공간이 주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공동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시민 연결 반려 장소 만들기는 동네의 공원, 학교 화단, 약수터 등 마을에서 휴식의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들이 시민과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하는 가운데 도출된 제안이다. 최근 반려해변 프로그램이 국내에도 도입되었다. 1986년 텍사스에서 첫 시작된 반려해변 프로그램은 기업, 단체, 학교 등이 해변을 입양하여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제도인데, 국내에서는 2020년 제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파리의 공유정원 또한 시민들이 직접 특정 공간을 정원으로 관리하면서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리의 공유정원은 5인 이상의 주

민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다. 이처럼 동네주민 간의 연결고리도 반려장소를 통해 형성이 가능하다. 동네의 쌈지공원, 작은 화단 등을 입양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가꾸는 과정을 통해 동네에 대한 애착관계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안 프로젝트

[반려장소 연결하기] 작은 쌈지공원, 약수터, 거리를 향해 나 있는 화단 등 돌봄이 가능한 장소들을 시민들 2~5명 정도의 반려장소 신청을 받아서 연결하기. 돌봄에 필요한 부자재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반려시민들에게 식재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게릴라 가드닝 콘테스트] 시민이 직접 잘 가꾼 반려장소의 가드닝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가드닝에 대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시민 간의 연결고리도 모색할 수 있다. 각자가 돌보고 있는 반려장소에 대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 생활권 공간에 대한 애착심을 키울 수 있다.

[동네 생태지도 만들기] 반려장소에 대한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서 반려장소의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15분 도시에서의 애착심과 공동체의식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명에 모두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나타내며 이 지점이 진정한 생태성을 구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반려장소에서 자라나는 식생들에 대해 알아보고 주민들이 함께 생태 도감 형태의 지도를 만들어 보는 워크숍을 운영한다. 동네 생태지도를 취합하면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5분 도시 부산 사용설명서 제작

15분 도시 부산의 다양한 사업들이 도시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15분 도시 부산 사용설명서를 제작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특별시시는 지난 2015년 서울생활안내서를 제작하면서 서울시민, 신혼부부 보육, 장애인, 청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각 세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15분 도시 부산 또한 도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세분화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 가족, 1인 가구(청년, 중노년), 장애인(어린이, 청년, 중노년, 남성, 여성), 청소년 등 한 도시에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세심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정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가까운 의료복지기관 등의 정보를 망라해서 제공해야 한다. 제공방법 또한 맞춤형으로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린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언어로 된 설명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 설명서 등으로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 15분 도시 시민 실험실

시간중심 도시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도시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끊임없는 작은 실험들이 도시에서 시도된다는 것이다. 팝업공간과 행사를 운영하면서 도시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실험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주체로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리빙랩처럼 도시의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부산시에서도 15분 도시 정책제안을 받고 있지만 기초지자체 행정단위에서 제안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해 보는 과정으로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혁신플랫폼과 연계하거나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15분 도시 문화활동가 양성 및 네트워킹

15분 도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15분 도시를 이끌어 나갈 인력의 양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내야 하는 과업도 인력 양성이다. 15분 도시 사업에 참여할 인력들을 주민들로만 구성하지 않고 다양한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들, 외부 인력들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양성 프로그램은 따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법과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퍼실리테이션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15분 도시는 개념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들에게 필수적으로 15분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문화활동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실행해보아야 한다. 15분 도시 사업 참여자 간 네트워킹도 필수적으로 운영하여 서로배움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 우리동네 히어로 연결망

연대의식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중요한 과업으로 여기는 15분 도시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의 방식이 다양하다. 시민의 참여 경로 중 도시를 위해 재능을 활용하거나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보가 망라되어 제공된다면 어떨까? 15분 도시 부산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산형 자원봉사 타임뱅크도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 노약자 등 도시의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도움요청과 도움제공이 상호적으로 매칭될 수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원봉사 팝업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회 기여 플랫폼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 15분 동네 포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취약한 정보를 꼽으라면 우리 동네 정보가 아닐까 싶다. 메이저 언론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하이퍼로컬 단위의 정보들은 과거와는 달리 디지털 환경에서는 전달이 용이한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부산 지역 맘카페 중 큰 규모를 자랑하는 모 카페는 게시판이 부산지역 구군별로 구분되어 있어 구군별로 학원, 병원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다. 특정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 모두에게 열린 15분 동네 포털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정보들이 망라되어 제공된다면 더 이상 로컬 정보들을 찾기 위해 수소문할 필요가 적어질 것이다.

■ 15분 도시 조례 개정

현재 [부산광역시 15분 도시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부산 15분 도시 조례)]는 15분 도시 추진계획 수립, 조성사업 추진, 시범권역 지정, 15분 도시 부산 자문위원회, 시민 참여를 위한 공감정책단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5분 도시 추진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역할로서의 자문위원회가 있고, 공감 정책단은 의견 청취 정도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15분 도시 관련 사업에 의결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조례에 의하면 15분 도시는 광역정부의 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15분 도시가 기초 생활권을 기본단위로 구성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자체 또한 자체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15분 도시 관련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유일하다. 향후 부산의 각 기초지자체에서 15분 도시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이끌어내야 한다.

VII.

나가며

VII. 나가며

우리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15분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성과, 15분 도시 실현에 중요한 도시민의 권리를 살펴보고, 다른 도시계획과 15분 도시 계획이 차별화되면서 동시에 연결되는 지점들을 발견하였다. 해외 사례들을 살펴봄에 우리 지역에 어떠한 사례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다.

II, III, IV, V장은 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적 관점에서 15분 도시에 관해 서술하였다. 15분 도시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던 II장¹⁾에서는 15분 도시가 복잡성 사고에 기반한 유기체로서의 도시를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동안 도시를 깔끔하게 구획화하고 관리했던 시도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도시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15분 도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를 위해 구획된 도시를 연결하는 장소로서 거리를 강조하면서, 도시의 익명성에 기반한 느슨한 상호 연대,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도시의 전유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15분 도시는 도시를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삶과 도시를 연결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내는 개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II장²⁾은 15분 도시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도시민의 권리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다. 시간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도시론으로서의 15분 도시를 언급하면서, 기존의 토건행정 중심의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건 행정 중심의 관점에서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구성에만 집중하여 평균적인 계층과 세대의 시민들만을 위한 계획으로 전략하는 것을 지적한다. 15분 도시는 취약성을 중심에 두고 도시에서 배제되는 존재들의 도시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민하면서, 결과적으로 도시민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주권을 발휘하기 위해 배제를 생산하지 않는 최선의 도시를 전제하여 제안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비판적 15분 문화도시론을 제시하면서 15분 도시 계획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대안을 찾아보는 과정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IV장³⁾에서는 15분 도시와 유사한 생활권 단위 혹은 도시 특화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15분 도시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 살펴보았던 유사계획의 특징은 생활권이라는 틀에서 비전과 목표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세스적인 계획으로서, 보행권과 정주권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계획참여를 강조하고 있었다. 앞선 사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15분 도시 차별화 전략으로 유연한 조직체계, 기존 거점시설의 재활용 모델 구축, 커뮤니티와 시스템 간 콜라보를 제안하였다. 과거의 도시계획이 구획을 나누고, 실천주체를 나누어 해당되는 기초단위를 구분 짓는 일목요연한 계획이라면 15분 도시는 가장 기초단위에서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단위 간 협력과 모색이 수반되어야 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V장은 시간 중심 도시계획의 해외 및 부산 사례를 소개하는 장이다. 해외 사례로 파리의 15분 도시와 에든버러의 20분 근린생활권을 소개하고 있는데, 파리의 15분 도시는 자전거와 보행 인프라를 정비하고, 녹지화 정책을 실시하는 기초적인 15분 도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학교의 적극적 활용, 시민키오스크와 같은 주민참여구조, 지역상점 활성화, 주택정책 등 광범위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도 교통패스에 문화시설을 연계하고, 유희공간의

1) 신지은, 「15분 도시, 도시의 시간, 공간, 문화를 전유하기」
2) 김동규, 「15분 문화 도시민의 주권과 공공성」
3) 홍순연, 「15분 도시의 유사 정책 간 비교」

임시적 활용, 공유정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에든버러의 20분 네이버후드는 지역민 참여와 기존 정책 연계, 지역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문화분야와 관련해서는 도서관을 문화활동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15분 도시 부산 실현에 있어 필요한 조언으로 15분 도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 기존의 시설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15분 도시를 구현할 활동 인력의 중요성, 포용적 관점에서 15분 도시를 고민하고, 전 사회적인 협력과 연결의 필요성을 도출해 내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방향으로 로컬의 가치 회복, 시민의 도시권 회복, 돌봄과 포용의 공동체 회복을 제시하면서 궁극적으로 15분 도시를 통한 부산의 오래된 미래를 회복하는 것이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방향의 핵심으로 제시하였다.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은 15분 도시 실현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가 할 수 있는 과업과 15분 도시 추진과정이 문화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과업을 함께 고민해 보았다. 그래서 기존의 15분 도시의 핵심가치인 근접성, 생태성, 연대성을 근접성, 시민주도성, 포용성으로 바꾸어 문화적 차원에서 필요한 핵심가치를 재구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일상에 찾는 문화적 전환, 시민이 이끌어내는 도시의 가치, 모두에게 활짝 열린 15분 도시를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실행과제로는 동네의 장소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유해 보는 과업으로 ‘우리동네 유니크베뉴’, 장소를 통해 시민과 시민, 시민과 환경을 이어내는 ‘시민 연결 반려공간’, 예술인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예술인행복플랫폼 고도화’를 제안하였다. 15분 도시에 대한 적극적 시민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대별 계층별 15분 도시 사용 설명서를 제작하고, 택티컬 어버니즘에 근거한 ‘15분 도시 시민 실험실’을 제안하였다. 15분 도시를 가꾸어나갈 인력 양성을 위해 15분 도시 문화활동가를 양성하고 시민들의 재능 공유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 플랫폼으로 ‘우리동네 히어로 연결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이퍼로컬 문화정보 전달을 위한 15분 동네 포털을 만들어볼 것과 기존의 15분 도시 조례를 개정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들이 의결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개입 구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15분 도시는 아직 가보지 않은 도시의 새로운 미래이지만, 도시가 과거에 간직하고 있던 가치들을 발견하고 적용해 보는 오래된 미래의 실험이다. 그렇기에 15분 도시를 구상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도시계획 방법과 달리 사람의 속도를 측정하고,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도시 계획에 녹여내는 문화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15분 도시 담론이 놓쳐서는 안 될 지점으로서 포용성, 취약성에 기반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가치를 복원한다고 해서 현재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감정과 속도를 무시해서도 안된다. 15분 도시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속도를 서로 인지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정책 제안들이 이러한 방향성에 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적어도 15분 도시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수립하더라도 정책입안자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관점과 태도를 새롭게 제시한 것에는 틀림없다.

앞서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보고서는 문화예술 및 문화적 차원에서 15분 도시를 검토하고 해 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이다. 정책제안들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도 평가와 환류를 통해 정책제안은 수정을 거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익은 정책제안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실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는 데에서 이 연구의 쓸모가 있다. 이 연구를 계기로 부산 지역 각 분야에서 15분 도시의 개념을 이해하고 핵심 가치를 도출해 내면서 생략되거나 배제된 관점들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15분 도시 부산의 문화적 실천 전략 연구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부산광역시, (재)부산문화재단
연구기획 및 수행 (재)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발행일 2023. 12. 31.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홈페이지 <http://www.bscf.or.kr>
전화 051-745-7205~7(정책연구센터)



위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를 준수할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